

제10기

가야학아카데미

가야사의 재조명



국립김해박물관
GIMHAE NATIONAL MUSEUM

제10기

가야학아카데미

■■■ 가야사의 재조명



국립김해박물관
GIMHAE NATIONAL MUSEUM

제10기 가야학아카데미 강의내용 및 일정

회차	일자	주제	강사
1	4/17	고고학으로 본 가야	신경철 (부산대 고고학과 교수)
2	4/24	문헌과 금석문 속의 가야	백승옥 (부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
3	5/8	금관가야의 왕묘 김해 대성동고분군 - 7차 발굴조사 성과를 중심으로	심재용 (대성동고분박물관 학예연구사)
4	5/15	문화답사 1 - 국립중앙박물관	
5	5/22	가야의 철기문화 - 가야 갑옷의 이해	김혁중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6	5/29	아라가야의 토기생산	이정근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
7	6/5	가야와 일본열도의 교류	하승철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자료연구실장)
8	6/12	문화답사 2 - 고령지역 문화유적	
9	6/19	가야의 제사	김현희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10	6/26	김해 봉황동유적의 발굴성과	윤태영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11	7/3	인골이 말하는 가야인	김재현 (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12	7/10	문화답사 3 - 울산지역 문화유적 / 수료식	

목 차

• 고고학으로 본 가야	7
신경철(부산대 고고학과 교수)	
• 문헌과 금석문 속의 가야	27
백승옥(부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금관가야의 왕묘 김해 대성동고분군 - 7차 발굴조사 성과를 중심으로	41
심재용(대성동고분박물관 학예연구사)	
• 가야의 철기문화 - 가야 갑옷의 이해	49
김혁중(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 아라가야의 토기생산	57
이정근(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	
• 가야와 일본열도의 교류	67
하승철(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자료연구실장)	
• 가야의 제사	75
김현희(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 김해 봉황동유적의 발굴성과	83
윤태영(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인골이 말하는 가야인	101
김재현(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고고학으로 본 가야

신경철

부산대 고고학과 교수

I. 머리말

발표자에게 주어진 ‘테마’가 ‘가야유적의 역사적 위상’이나, 이는 필자가 감당하기에는 다소 무거운 주제이므로, ‘가야유적의 역사적 의의’ 정도 이해하여 간단히 언급해 나가도록 하겠다. 아울러 아무래도 이 주제를 감당할 수 있는 유효한 고고자료는 고분과 이의 부장유물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이 발표문은 이를 기초로 하고 있음을 미리 확인해 놓고 싶다.

문헌자료의 절대 빈곤으로 문헌기록에 의한 가야사 복원은 거의 무망하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일 것이다.

다행히 근년 가야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가 급격히 진행되어, 고고학자료에 의한 加耶史 全般을 언급할 만큼, 고고학자료는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小文은 이러한 고고학 자료를 기반으로 가야사 전반의 대강에 접근함과 동시에 가야유적의 현상이 주변지역에 미친 영향도 언급해 보려 한다.

이 小考는 크게는 전기가야와 후기가야로 대별하여 서술을 진행하는데, 이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전기가야와 후기가야의 획기는, 후술하듯이 서력 400년 고구려군의 南征으로 촉발된 金海 大成洞古墳군의 築造中斷에 둔다. 물론 문헌사학과 고고학의 一角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견도 있으나, 이 획기에 대하여는 이미 상세한 고고학적 연구성과들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이에 대하여 더 이상 재론하지 않는다.

II. 가야의 출발과 일본열도의 동향

가야의 출발을 알리는 것은, 이미 충분히 논의되고 또 동의하고 있듯이, 김해의 大成洞古墳 群중에서도 29호분이다. 이 고분은 철저한 도굴의 피해를 입은 대성동고분군의 대부분의 고분들과는 달리, 극히 일부분만 도굴의 피해를 입어, 이 고분의 성격에 대해 치밀하게 논의할 수 있을 정도로 괄목할 만한 양호한 고고자료들이 출토되었음은 다 아는 바와 같다.

이 대성동 29호분에 대하여는 상세한 서술은 피하는 데, 이 고분군에서 확인된 最古의 도질 토기와 순장, 오르도스 동북, 步搖附金銅冠 등의 북방적 성격의 부장유물로 보아, 이 피장자의 출자는 북방에 있음에 틀림없다. 보다 좁혀서 언급한다면, 이들 유물의 상세한 검토에 의해 그 출자는 부여에 있었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가야의 출발은 이 대성동 29호분에서 비롯되는데, 이 고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야문화는 북방적 성격이 농후하다. 이는 금년 대성동고분박물관

관에서 발굴조사한 대성동 91호분 등에서도 심분 뒷받침되고 있다. 이런 북방적 성격이 짙은 가야문화는 수십년이 경과한 후 신라의 중추부에도 전파되는데¹⁾, 신라문화의 북방문화적 요소—도질토기, 순장, 보요부금동관 등—는 낙동강하류역의 이러한 가야문화—대성동고분군—에서 비롯된 것임이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의 일본열도와와의 관계다.

가야의 출발을 알리는 대성동29호분과 일본 고분시대 前期初의 가장 중요한 고분인 樁井大塚山古墳 출토의 철촉을 상호 비교검토해 본 결과, 대성동 29호분이 다소 이른 시기의 고분임이 판명되었다. 때문에 대성동29호분은 樁井大塚山古墳보다 한 단계 이른 시기의 고분인 箸墓古墳과 연대적으로 평행할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箸墓古墳은 이른바 최초의 ‘定型化한 前方後圓墳’이다. 일본학계에서는 이 보다 이른 ‘纏向型前方後圓墳’부터를 ‘고분’으로 보고, 이런 형식의 고분의 등장부터 고분시대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纏向型前方後圓墳’과 ‘定型化한 前方後圓墳’은 부장토기에서 상호 현격한 질적 차이가 있다. 이 점은 특히 부장토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전자가 近畿 중심의 庄内式土器가 일본열도 전역의 纏向型前方後圓墳이 아닌, 近畿의 纏向型前方後圓墳에 한정되어 되는 부장되는데 비해, 정형화한 전방후원분인 箸墓古墳부터는 역시 近畿 중심의 布留式土器가 일본열도 전역의 전방후원분에 부장되는 것이 그러하다. 三角縁神獸境의 부장도 정형화한 전방후원분부터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현상으로 보아 정형화한 전방후원분인 箸墓古墳부터 일본열도가 全土的으로 결속력이 현저하게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학계에서는 이러한 대형의 전방후원분이 大和—奈良—盆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한반도남부—아마도 낙동강하류역—로부터의 鐵입수 장악의 패권이 北部九州에서 近畿로 바뀐 것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가야의 출발을 알리는 대성동 29호분과 일본열도 最古의 정형화한 전방후원분인 箸墓古墳이 同時期라는 것은, 일본열도의 鐵入手先인 낙동강하류역에 강력한 집단의 돌출에 따른, 近畿를 중심으로 일본열도내부의 결속력의 강화를 의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정형화한 전방후원분의 등장부터 古墳時代로 본다면, 일본고분시대의 시작은 한반도남부의 정세변동, 즉 가야의 등장과 연동되는 것임이 분명하다.

1) 이를테면 낙동강하류역-김해-에서 발생한 도질토기가 수십년 후 경주지역으로 파급되는 것이 가장 좋은 예이다.
申敬澈 『陶質土器의 발생과 확산』 『考古廣場』 第11號, 2012.

Ⅲ. 가야전기의 특질과 해체

1. 특질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고고학자료로 보는 한, 그 동인에 대하여는 여전히 인식의 차이가 있으나, 변한에서 가야로의 전환, 혹은 가야의 시작을, 필자는 여러 가지 고고학적 증거로 3세기말로 여기고 있는데²⁾, 이는 다수의 연구자들로부터도 동의를 얻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가야는 낙동강하류역에서 출발한다. 이른바 금관가야³⁾가 그것인데, 이를 웅변해 주는 것이 위에서 강조하였듯이 대성동고분군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금관가야의 출발은 洛東江下流域 西岸의 대성동고분군집단과 그 東岸의 福泉洞古墳群집단의 연합에서 비롯되었으며, 곧 대성동고분군의 서쪽에 위치한 良東里古墳群집단이 이 연합에 가담한다⁴⁾. 대성동고분군을 정점으로 하는 이러한 구조가 금관가야의 중추부이다.

금관가야 중심고분군인 세 고분군의 표지적인 토기는 이른바 ‘外折口緣高杯’(도면1·2)이다. 그런데 금관가야는 연맹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통상 ‘전기가야연맹’으로 부르고 있다. 그런데 금관가야의 영역, 혹은 前期加耶聯盟圈域을 ‘외절구연고배’ 분포지역과 일치시키는 것이 보통인데, 필자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당시—대성동고분군 축조중단 이전—의 영남지역의 토기문화는 ‘고식도질토기’, 혹은 ‘공통양식토기’로 부르고 있는데, 이는 다시 낙동강하류역의 ‘외절구연고배권’과 ‘非外切口緣高杯圈’—筒形高杯—(도면3~6)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외절구연고배권’은 김해·부산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하류역에 국한되고, ‘통형고배—이른바, 工字形高杯—권’은 ‘외절구연고배권’의 낙동강하류역을 제외한 全영남지역에 분포하고 있음은 다 아는 바와 같다. 신라의 중심부인 경주도 ‘통형고배권’의 ‘고식도질토기’ 혹은 ‘공통양식토기’ 지역이었음은 물론이다.

2) 申敬澈 ①「김해에안리 160호분에 대하여」『伽耶考古學論叢』1, 1992.

②「金官加耶의 成立과 對外關係」『伽耶와 東아시아』(伽耶史國際學術會議, 김해시, 1992)

③「加耶成立前後と諸問題」『伽耶と古代東アジア』新人物往來社, 1993, 등

가야·신라 고분의 연대관은 부분한데, 본고의 연대관은 우선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기 바란다. 향후 보다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申敬澈 ④「金官加耶 土器의 編年」『伽耶考古學論叢』3, 2000.

⑤「陶質土器와 初期須惠器」『日韓古墳時代の年代觀』(歷博國際研究集會), 2006.

⑥「韓國考古資料로 본 日本古墳時代 年代論의 問題點」『한일 삼국·고분시대의 연대관(Ⅲ)』大韓民國 國立釜山大學校 博物館·日本國 人間文化研究機構 國立歷史民俗博物館, 2009

3) 물론 ‘금관가야’는 후대의 명칭으로 가야출발 당시의 명칭은 아니며, 이 무렵 낙동강하류역에 자리잡은 가야의 편의적 명칭이다. 후술하듯이 낙동강하류역에서 출발한 가야의 국명은 ‘가야’ 혹은 ‘가라’였다.

4) 申敬澈 ①「金海大成洞·東萊福泉洞古墳群 點描」『釜大史學』10, 1995

②「筒形銅器論」『福岡大學考古學論集—小田富士雄先生退職記念—』2004

전기가야연맹권역이 외절구연고배권역으로 국한한다면, 전기가야연맹은 낙동강하류역의 지역이 좁아진다. 그렇다면 그 밖의 지역, (1) 특히 영남의 낙동강서안은 가야권이 아니거나, (2) 통형고배를 표지로 하는 또 다른 ‘가야연맹체’—이를 잠시 ‘제2 가야연맹체’로 부르자—가 될 수밖에 없다.

공통양식토기 단계의 낙동강 서안이 가야권이 아니라면, 신라권역이 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이 시기의 고고자료로 보아 수긍할 수 없다.

또 筒形高杯(도면3~6)권역을 ‘제2 가야연맹체’로 간주할 수도 없다. 그것은 금관가야의 영역보다 훨씬 광역일 뿐 아니라,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까지 가야권역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무리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제2 가야연맹체’ 권역에는 대성동고분군과 복천동고분군을 능가하거나 필적할 만한 탁월한 고분군도 없다.

필자는 이런 의미에서 외절구연고배권역을 금관가야를 맹주로 하는 가야연맹의 중추부로, 경주 및 그 주변지역을 제외한 통형고배의 분포지역의 꽤 상당한 지역을 전기가야연맹의 외곽지역으로 이해하고 있다. 즉 외절구연고배 분포지역은 금관가야의 직할지이며, 그 밖의 지역은 금관가야의 관할하에 있는 가야연맹권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들 지역은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이 무렵에는 대성동고분군·복천동고분군에 버금가는 고분군이 없음은 물론, 대성동·복천동고분군이 이 무렵 영남지역의 절대적으로 탁월한 고분군이라는 점에서도 심분 보증된다. 통형고배 분포지역이 외절구연고배를 중추부로 하는 가야연맹권이었다는 것은, 적석목곽묘 분포지역만이 신라권역이 아닌 바와 같은 논리이다. 즉 적석목곽묘 분포지역은 신라의 중추부이며, 적석목곽묘가 아닌 수혈식석곽묘 지역은 신라의 외곽지역, 혹은 경주와 정치연합관계에 있음과 마찬가지로의 의미인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공통양식토기에 있어서의 외절구연고배(도면1·2)와 통형고배(도면3~6)와의 관계가 문제가 된다.

이 무렵 가야연맹의 맹주적 위치에 있었던 금관가야는 직할지는 ‘외절구연고배’를, 영향권하에 있었던 그 밖의 지역에는 ‘통형고배’를 쓰도록 하여, 연맹의 중추부와 주변부를 구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 통형고배의 중심지역은 (1) 이러한 고배들이 출토되는 4세기대의 고분군이 다른 지역에 비해, 함안 및 그 주변지역에 밀집 분포하고 있는 점, (2) 함안지역에 苗沙里·于巨里 가마에서 보듯, 이 시기의 도질토기의 거대 가마群이 존재하고 있는 점, (3) 고식도질토기의 이후의 전개로 보아, 함안지역이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함안지역에 대성동·복천동고분군과 같은 대형목곽묘군이 不在하는 이유로 이 무렵

함안지역 아라가야의 존재에 회의론을 느끼는 견해도 있으나⁵⁾, 위 (1), (2)의 증거로 보아, 비록 낙동강하류역과 같은 강력한 가야는 아니었지만, 어떤 형태로든 정치체—아라가야—가 존재하였음은 틀림없다. 금관가야는 지금 여기에서는 상술할 수는 없으나 여러 가지 고고학적 정황증거로 보아, 함안을 토기생산거점으로 특히 중요시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함안지역의 이러한 토기가 영남의 각지에 분배되었거나 또는 강력한 영향을 끼친 소산이, 낙동강하류역을 제외한 숲 영남의 筒形高杯圈化였다고 생각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와 같이 본다면, 금관가야가 맹주였던 전기가야연맹은, 그 중추부는 외절구연고배권, 그 외곽 관할지는 통형고배권으로 二分되는 구조였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마찬가지로 통형고배권에 들어 있었던 경주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한마디로 이 무렵 경주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함안에 중심을 둔 筒形高杯圈下에 있어서, 토기문화상의 ‘아이덴티’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문헌사학의 보편적인 인식과는 달리, 4세기대의 신라는 가야에 비해 그다지 평가할 만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웅변해 주는 것이다. 즉 이때는 신라가 가야에 비해 열세의 위치에 있었다⁶⁾.

신라가 토기문화상 명백한 개성을 지니는 것은, ‘二段交互透窓高杯’(도면7·8)와 ‘圓筒形長頸壺’가 출현하는 5세기 이후의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러한 토기들이 初出하는 동래 복천동 21·22호분과 경주 황남동 109호분 제3·4곽부터이다. 개성적인 이러한 신라양식토기는, 기왕의 공통양식토기와 一劃을 긋는 것으로, 적석목곽묘의 출현과 궤를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이 때부터 신라가 비로소 영남지역의 강자로 부상하였음을 뜻한다.

2. 전기가야의 해체

대성동고분군의 축조중단에 의해 전기가야는 해체된다.

이미 통형동기를 소재로 전기가야연맹의 해체의 과정에 대해 살펴 본 바 있는데, 서력 400

5) 趙榮濟, 「고고자료를 통해 본 安羅國(阿羅加耶)의 成立에 대한 연구」, 『安羅國史의 새로운 理解』, 2004

6) 다소 반복되는 감이 있으나, 이는 경주지역의 도질토기의 출현시기가 낙동강하류역보다도 훨씬 늦다는 데서도 보증된다. 이를테면 낙동강하류역에서는 도질토기가 주1) ④의 글 1 단계-3세기 말-부터 출토되고 있으나, 경주지역은 함안지역과 마찬가지로 Ⅲ단계-4세기 2/4분기-부터 나오고 있음이 그러하다.

申敬澈 「陶質土器의 登場」 『釜山大學校 考古學科 創設20周年 記念論文集』, 2010.

申敬澈 「陶質土器의 발생과 확산」 『考古廣場』 第11號, 2012.

그리고 적석목곽묘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경주지역 목곽묘의 규모가 낙동강하류역의 대성동고분군·복천동고분군의 그것에 비해 매우 열세라는, 묘제의 면에서도 확인된다. 경주지역 묘제의 매장주체부가 비약적으로 커지는 것은 황남동 109호분 3·4곽으로 상징되는 적석목곽묘 출현부터이다.

년 高句麗軍의 南征으로, 전기가야연맹 중추부의 일원이었던 복천동고분군의 이탈에 따라, 금관가야는 얼마 후 사실상 몰락한다. 즉 庚子年 고구려군이 지금의 東萊—복천동고분군—까지 南下하여, 이 지역을 점령함에 따라 낙동강서안의 대성동고분군을 중심으로 하는 가야의 세력은 얼마 후, 이 지역을 포기하며 해체의 수순을 걷는 것이다. 이를 보여주는 가장 가시적인 증거가 전기가야연맹의 중추, ‘대성동고분군 축조중단’이다. 그 시기는 나의 연대관으로는 서력 420~430년의 무렵이다. 김해지역에서는 대성동고분군만이 축조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상세히 검토하면 양동리, 망덕리 같은 김해지역의 유력고분군도 사실상 동시에 축조가 중단되고 있다. 이후 김해지역은 中小古墳群만이 잔존하고 난립하며, 대성동고분군 같은 중심고분군이 없어 구심점이 사라진다.

대성동고분군은 금관가야의 해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기점으로 한반도남부사회는 재편될 뿐 아니라, 일본열도사회에도 엄청난 파장을 미친다.

그 동안 누누이 강조하여 왔듯이, 영남지역의 경우 대성동고분군의 중단과 동시에 신라양식 토기의 성립, 積石木槨墓의 등장—경주 황남동 109호분 3·4곽—이 그것이다. 이는 후술하듯이 이때 비로소 신라가 영남의 강자로 등장함을 뜻한다. 한편 일본열도의 경우도 대성동고분군의 축조중단을 기점을 初期須惠器의 등장, 甲冑의 定型化, 마구의 출현 등, 문화적으로 갑작스러운 커다란 변화가 간취된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大和盆地에 자리잡고 있었던 大古墳群도 해안지역인 河內평야로 이동한다, 古市, 百舌鳥고분군이 그것이다.

대성동고분군을 비롯한 김해지역의 유력고분군의 축조중단은, 이때 이들 세력이 다른 곳으로 조직적으로 移住하였음을 말한다. 후술하듯이 이주처로서의 유력한 곳의 하나는 고령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의 내륙이며, 또 다른 유력한 곳은 위에서 말한 지금의 大阪의 남부, 河內평야이다. 그것은 가야의 도질토기의 재현이라 할 수 있는 須惠器의 대규모 생산유적인 陶邑유적을 비롯하여 마구 및 정형화한 갑주가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고 있는 점에서 엿볼 수 있다. 낙동강하류역의 가야세력이 주축이 된 가야의 이주민이 정착한 바로 이곳에 일본 중기의 대고분군인 古市, 百舌鳥 고분군이 자리를 잡는 것은, 일본 中期古墳의 시작과 대성동고분군의 축조중단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일 것이다.

즉 일본열도의 古墳時代의 前期에서 中期로의 전환은 일본열도 자체의 발전에서가 아니라, 가야의 정세변동과 연동되는 것으로 단정해도 좋다.

IV. 후기가야의 구조

고식도질토기단계에 영남의 절대적 강자였던 금관가야는 광개토대왕 비문에서 보듯 서력 400년 고구려군의 영남지역의 남정으로 몰락한다⁷⁾. 그 가시적 증거가 금관가야의 정점이자 전기가야연맹의 맹주적 위치에 있었던 대성동고분군의 축조중단이었다. 뿐만 아니라 토기문화에서도 급격한 변화가 간취된다.

대성동고분군 축조중단 이전의 토기문화는 ‘외절구연고배권’ 과 ‘통형고배문화권’ 이라는 지역색을 띠기는 하였으나, 토기양식상에서는 어디까지나 ‘공통양식’ 이라는 단일토기양식이었던 것이, 대성동고분군 축조중단을 기점으로 영남의 토기문화는 일변하여, ‘가야양식토기’ 와 ‘신라양식토기’ 라는 二大樣式土器로 분화한다. 가야양식토기는 공통양식토기의 계보를 잇는 데 비해, 신라양식토기는 대표적 器種인 ‘二段交互透窓高杯’ (도면7·8)와 ‘圓筒形長頸壺’ 의 특징에서 알 수 있듯이 공통양식토기와는 一劃을 긋는 듯한 극히 개성적인 토기문화이다. 이러한 이대양식토기문화는 諸가야가 신라에 병합·멸망되는 6세기중엽까지 존재한다.

신라양식토기문화는 最古의 신라양식토기가 출현하는 복천동 21·22호분과 경주 황남동 109호분 제3·4곽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대성동고분군 축조중단에 바로 이어 출현한다. 이 신라양식토기문화의 등장은 적석목곽묘의 출현과 함께 신라가 영남지역의 강자로 부상하였음을 알리는 가장 가시적인 신호이다. 이는 대성동고분군 축조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이 서력 400년의 고구려군의 對加耶軍事作戰인 이상, 신라가 영남지역의 강자로 부상한 것은 독자적 성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군 남정에 편승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웅변하는 것이다. 즉 신라 급부상의 배경은 서력 400년 南征한 고구려 군사력이었던 것이다.

당시 영남지역의 사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 이러한 토기의 양식과 형식으로 보아 금관가야를 맹주로 하는 전기 가야연맹은, 대성동고분군 축조중단 이후에 親新羅系加耶와 非新羅系加耶로 분열된다.

7) 금관가야 몰락의 과정은 庚子年-서력 400년-고구려군의 南征으로, 금관가야의 핵심세력의 하나였던 동래 복천동고분군집단의 금관가야 정치연합의 이탈에서 비롯된다. 금관가야 정치연합의 정점에 있었던 대성동고분군집단은 이후 20~30년 정도 버티다가 서력 420~430년경에 조직적으로 김해를 떠난 것으로 생각된다. 즉 ‘대성동고분군 축조중단’ 이다.

申敬澈, 주3) ②의 글 참조

한편, 이때 김해지역에서는 대성동고분군만 축조중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良洞里古墳群을 비롯한 김해지역의 主要대형고분군들 모두가 일시에 중단되고 있음이 각별히 유의된다. 이 사실은 김해지역의 핵심집단이 다른 지역으로 조직적으로 이주하였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후 김해지역은 군소고분군만 형성되고 있다.

申敬澈, 『大成洞古墳群 發掘調査의 成果와 課題』, 『大成洞古墳群과 東亞細亞』(第16回 加耶史國際學術會議), 金海文化院, 2010

이와 같이 고고자료로 접근하는 한, 庚子年 南征에 나섰던 고구려군은 동래-지금의 부산-에는 도달하였으나, 낙동강을 渡江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문제는 별도로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친신라계가야’란 낙동강하류역을 비롯해, 신라양식토기내의 지역형식이 존재하는 창녕, 경산·대구, 성주 등의 지역을 말하며, ‘비신라계가야’란 가야양식토기내의 특징적인 토기형식이 존재하는 세 지역, 이른바 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를 가리킨다. 말하자면 금관가야를 맹주로 하는 전기가야연맹은 고구려군의 對영남지역 군사작전으로 와해되어, 크게 ‘친신라계가야’와 ‘비신라계가야’로 二分되는 데다, 다시 ‘비신라계가야’는 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로 갈라지는 것이다⁸⁾.

즉 공통양식토기단계의 가야는 금관가야를 맹주로 한 전기가야연맹은 신라양식토기와 가야양식토기의 二大樣式土器단계가 되면 친신라계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은 공통양식토기단계에 상대적으로 신라에 優位에 있었던 가야는 대성동고분군 축조중단을 기점으로 逆轉되어, 신라에 비해 열세로 돌아 섰음을 의미한다. 이는 고분군의 규모, 부장품 등의 고고자료에서도 잘 뒷받침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四分된 지역의 성격과 구조는 각각 판이하였다. 이에 대해 살펴해보도록 하자.

1. 親新羅系加耶

친신라계가야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왕의 가야지역이었던 곳이, 고구려군의 남정을 기점으로 신라와 정치적인 친연관계를 맺었던 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가야라 할 수는 없는 곳이었다. 따라서 고구려군의 南征으로 원래의 가야였던 곳이, 사실상 신라영역으로 편입된 지역이거나 신라와 정치 문화적으로 보다 긴밀한 관련을 지닌 곳이라 할 수 있다.

이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낙동강하류역의 금관가야였다.

낙동강하류역은 고구려군의 主標的이었다. 대성동, 복천동, 양동리 고분군의 筒形銅器의 소유(도면19)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구려군의 군사작전으로 금관가야의 핵심세력이었던 복천동 고분군집단의 이탈에서 비롯된 금관가야의 동요는, 급기야 5세기초~전엽의 어느 시점 대성동, 양동리 고분군의 축조중단으로 완전히 붕괴된다⁹⁾. 금관가야의 사실상의 몰락이자 전기가야연맹의 와해이다.

이후 대성동, 양동리 고분군과 같은 대형고분군이 사라진 김해지역을, 토기 등의 고고자료로 보아 정치적으로 신라쪽으로 돌아 선 복천동 고분군이 관할한다. 말하자면 대성동고분군의

8) 이 개념의 대강을

申敬澈, 「五世紀における嶺南の情勢と韓日交渉」, 『謎の五世紀を探る』, 讀賣新聞社, 1992

에서 언급하였으나, 당시는 소가야지역에 대한 조사의 미진으로 보고의 ‘소가야연맹’을 누락시킨 것이었다.

9) 주3) ㉔의 글.

축조중단 전까지는 대성동고분군이 낙동강하류역을 직접 관할하였으나, 이후는 복천동고분군이 김해를 비롯한 낙동강하류역을 통치하는 것이다¹⁰⁾. 대성동고분군집단이 건재하였을 무렵의 금관가야는 가야의 最盛期로, 신라에 우위에 있었으나, 복천동고분군이 김해를 비롯한 낙동강하류역을 지배하게 된 가야는 신라영역에 편입된, 성격이 현저하게 변질된 금관가야였다. 그러나 신라에 편입되었다고는 하나, 경주가 직접 통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연합하였을 뿐 여전히 在地고유의 수장권은 유지, 존중되었다. 즉 중앙집권적체제가 아닌 정치연합—연맹—체제였다. 문헌사학 일각에서 말하는 신라의 ‘간접지배방식’이 그것이다. 이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복천동고분군을 비롯한 친신라계가야지역에서 확인되는 고총고분군들이다.

복천동고분군의 경우, 분묘의 계속조영으로 인한 묘역의 부족으로, 제2의 장소로 이동하여 계속 영조되었다. 복천동고분군과 마주치고 있는 남쪽의 蓮山洞고분군이 그것인데, 여러 정황 증거로 보아 복천동고분군과 연산동고분군은 동일계보·동일집단임이 틀림없다.

보통 『삼국사기』의 서력 532년의 기사 ‘金官國主 仇亥의 신라투항’을 금관가야의 멸망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는 적확히 말해 복천동, 연산동고분군 집단의 신라투항을 가리키는 것으로, 지금까지 낙동강하류역에 대한 신라의 ‘간접지배방식’에서 ‘직접지배방식’으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점은 연산동고분군의 종언과 ‘구해의 신라투항’이 연대적으로 잘 일치하고 있는 점에서도 증명된다. 이후 부산지역에서는 대형고분군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서력 532년의 仇亥투항은 신라가 연산동고분군집단의 수장권을 박탈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며, 대성동고분군의 축조중단이야말로 금관가야의 사실상의 몰락인 것이다.

낙동강하류역에서 간취되는 신라의 이러한 ‘간접지배방식’에서 ‘직접지배방식’으로의 전환은 다른 친신라계가야지역에서도 확인된다.

이를테면 신라양식토기내의 一型式인 ‘창녕식토기’가 분포하는 비사벌의 창녕의 경우, 계남리, 교동, 송현동 고분군과 같은 고총고분군의 존재는 재지의 강력한 수장권이 유지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고총고분군이 축조가 중단되었다는 것은 수장권의 박탈, 즉 신라의 이 지역에 대한 ‘직접통치’로 전환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특히 교동고분군의 하한이 561년 건립의 진흥왕 순수비와 연대적으로 일치할 가능성은 지극히 크다. 즉 진흥왕 순수비는 이 지역에 대한 신라의 직접통치로 전환하였음을 보여주는 표지인 것이다¹¹⁾.

10) 주3) ①의 글

11) 창녕의 순수비를 변경을 개척하였다는 碑文내용에 의해 拓境碑로도 불리어 지는데, 이는 창녕을 신라가 ‘간접통치’에서 ‘직접통치’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라양식토기권역에서 비사벌과 대조적인 곳은 경산 임당동고분군이다. 임당동고분군의 부장토기는 주지하듯이, 경주 중심부의 토기이거나, 이를 충실히 따른 것이어서 이곳은 그야말로 신라와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가진 곳이거나, 신라의 직접 영향력 아래에 들어 간 곳이라 여겨도 좋은 것이다. 이에 반해 창녕의 비사벌의 토기는 기본적으로 신라양식토기이기는 하나, 매우 개성적인 ‘창녕식토기’를 독자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비사벌은 경산지역과는 달리 의연히 매우 강력한 주장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산과 창녕의 이러한 예로 보아 친신라계가야라 하더라도, 단순히 ‘친신라계가야’로 일괄적으로 규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지는 않다.

하여튼 신라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532년 복천동·연산동고분군집단의 주장권 박탈에서 시작된 신라의 對친신라계가야의 직접통치방식은, 비사벌(창녕)의 예에서 알 수 있듯, 6세기 중엽에는 순친신라계가야지역을 비롯한, 순신라양식토기권역에 적용시키는 동시에 가야정벌에 나서게 된다.

한편 당시의 일본열도의 對한반도교섭·교류는 가야→신라 중심부(경주)→대가야→백제로 변화하였다는 견해가 있다¹²⁾. 그러나 이것은 당시의 경주와 친신라계가야의 관계와 그 본질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당시의 일본열도는 신라의 중심부(경주)와 직접 교섭한 것이 아니라, 친신라계가야의 유력지역, 즉 낙동강하류역과 교섭하였음이 틀림없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대성동고분군 축조중단이후, 비록 낙동강하류역이 親신라지역으로 편입되었다고는 하나, 계속 영조된 복천동고분군의 존재에서 알 수 있듯이, 경주와는 정치연합—연맹—관계에 있었던 만큼, 在地首長權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때문에 대외교섭·교류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이를 명백히 증명해 주는 것이, 복천동, 연산동을 비롯한 낙동강하류역의 고분군들에서 출토되는 眉庇附冑, 三角形短甲과 같은 日本系甲冑이다. 당시 경주의 고분에서는 이러한 일본계갑주가 출토되지 않는다. 이점은 당시 일본열도가 신라의 중심부가 아닌, 낙동강하류역과 교류·교섭하였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 설혹 경주 중심부와 교섭하였다하더라도 ‘직접교섭’이 아니라 낙동강하류역을 통한 ‘간접교섭’이었음이 분명하다. 이는 일본 初期須惠器가 대성동고분군 축조중단무렵과 이후의 낙동강하류역 도질토기의 색채가 농후하다는 점에서도 더욱 뒷받침해 주고 있다. 따라서 일본열도는 親新羅化한 낙동강하류역과 교섭을, 신라 중추부와 교섭하였다는 의식은 없었을 것이다.

12) 朴天秀, 「3~6世紀 韓半島와 日本列島の 交渉」 『한국고고학보』 61, 2006

2. 非新羅系加耶

(1) 大加耶聯盟

대가야는 고령 池山洞古墳群을 정점으로 한 연맹체였다. 그것은 가야양식토기의 一型式인 ‘고령식토기’ (도면15~18)가 분포하는各地에 유력고분군들이 존재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력고분군들은 지산동고분군 정도의 탁월한 고분군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산동고분군을 맹주로 하는 피라밋구조의 연맹체였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구조를 ‘縱的聯盟體’로 부르기로 하자.

이러한 위치에 있었던 지산동고분군은 이미 지적이 있듯이, 4세기대의 고령지역에서 지산동고분군집단과 계보관계를 증명할 만한 유력분묘군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5세기대에 돌출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지산동고분군의 전단계는 토기형식으로 보아, 5세기 전엽의 고령 쾌빈동의 고분군이다. 그런데 쾌빈동 고분군의 출토토기와 묘제(목곽묘)는 대성동고분군 축조중단무렵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出自는 낙동강하류역의 금관가야에 있음이 틀림없다. 단기간 조영된 쾌빈동고분군은 곧 지산동고분군으로 이동한다. 또 지산동고분군 출토의 특징적인 ‘고령식토기’의 가장 표지적인 器種인, 고배와 장경호의 祖型이 낙동강하류역의 그것에서 구해지는 것은, 고령지산동고분군의 계보가 낙동강하류역에 있음을 더욱 보증하고 있다.

즉 지산동고분군집단과 대가야연맹체내의 유력집단인 합천 玉田고분군집단은 대성동고분군 축조중단사태로 말미암아, 금관가야 주력의 일부가 이곳으로 이주하여 형성한 것임이 분명하다¹³⁾. 대가야연맹은 상술한 금관가야가 맹주가 된 전기가야연맹과 마찬가지로 연맹체였으나, 전기가야연맹의 중추부는 ‘외절구연고배권’, 주변 관할지는 ‘통형고배권’으로 구분되는데 비해, 대가야연맹권은 ‘고령식토기’로 일원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이가 간취된다.

‘대가야’의 원래 국명은 원래 ‘가라’ 혹은 ‘가야’였다. 마찬가지로 낙동강하류역의 금관가야의 정식국명도 ‘가라(가락국)’ 혹은 ‘가야’였다. 대가야의 국명을 금관가야의 명칭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대가야가 금관가야를 계승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대가야란 이러한 인식의 후대적 표현일 것이다.

13) 이러한 가능성을

申敬澈, 『金海大成洞古墳群의 발굴성과』, 『伽耶文化』第四號, 1991

에서 언급하였으나, 조영제에 의해 상세하게 구체화되고 있다.

趙榮濟, 『西部慶南 加耶諸國의 成立에 대한 考古學的 研究』(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학위논문), 2006

(2) 阿羅加耶

아라가야의 정식 명칭은 ‘安那’, ‘安羅’, ‘阿羅’, 즉 아라이다. 아라에 가야란 접미어를 붙인 것은 ‘아라’가 가야의 일원이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임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아라는 토기로 보아 위의 대가야와 달리, 금관가야의 몰락이후, 통형고배를 기반으로 한 재지의 집단이 독자적으로 성장, 발전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 아라가야는 대가야와는 달리 연맹체가 아니라, 말산리·도항리고분군집단이 ‘함안식토기’ 분포권역을 직접 관할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함안식토기’ 분포권역에 유령고분군이 확인되지 않으며, 말산리·도항리 고분군이 독보적이라 할 정도로 탁월한 고분군이라는 데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라가야는 이런 의미에서 일원적 통치구조를 가진 것으로 보아도 좋다.

(3) 小加耶聯盟

소가야는 당시의 국명은 아니다. 고성에 기반을 둔 古自國이 원래의 국명이다. 소가야란 명칭은 고령에 본거지를 둔, ‘가라’ 즉 ‘대가야’에 대한 一然의 상대적 인식일 것이다.

소가야도 이미 상세한 연구가 있듯이 ‘水平口緣長頸壺’(도면9·10)와 ‘水平口緣鉢形器臺’(도면11)를 표지로 하는 지역에 형성된 연맹체였다. 이러한 ‘水平口緣壺’와 ‘수평구연발형기대’의 토기권역내에는 다시 一段長方形透窓高杯(도면13)·二段交互透窓高杯(도면14)圈과 三角形透窓高杯(도면12)圈의 지역색이 간취된다. 여기에다 대가야연맹과는 달리 연맹의 정점을 이루는 탁월한 고분군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일단장방형투창과 이단교호투창고배권의 대표적 고분인 고성 松鶴洞古墳群과 삼각형고배권의 중심고분으로 생각되는 산청 中村里古墳群은 상호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유령고분군이다. 수평구연의 호와 발형기대권역에는 지금 충분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不明인 점은 많으나, 현재 발굴조사중인 합천 三嘉고분군과 같은, 송학동고분군과 중촌리고분군과 같은 유령고분군이 몇 군데 더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① 수평구연장경호(도면9·10)·수평구연발형기대(도면11)를 공통의 토기로 하는 토기권내에 다시 일단장방형투창고배(도면13)·이단교호투창고배(도면14)권과 삼각형고배(도면12)권이라는 소지역권이 확인되는 점, ② 이러한 토기권내에 특정 탁월한 고분군이 아닌 상호 대등한 유령고분군이 복수로 존재하는 점에서 이 지역은 연맹체를 형성하였음이 틀림없다. 그리고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이 연맹체는 지산동고분군을 정점으로 하는 大加耶聯盟型의 縱的聯盟體가 아닌, 橫的聯盟體였다.

이러한 ‘횡적연맹체’의 구조는 문헌의 ‘浦上八國’의 이미지와 잘 부합되므로, ‘소가야연맹체’는 포상팔국임이 틀림없다. 이 점은 古自國이 포상팔국의 一國이라는 문헌의 기록에서도

증명된다.

포상팔국의 이름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209년과 212년의 ‘포상팔국의 난’의 기술에서 등장한다. 그런데 이들 문헌의 초기기록의 신빙성 문제로, 문헌사학자들 사이에 포상팔국의 연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함은 다 아는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고고학적 관점에서 포상팔국의 형성은 5세기 후반으로 확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포상팔국의 난’도 일러도 5세기 후반의 일이 된다. 보다 적확히 말하면 소가야연맹이 보다 굳건해 지는 5세기말 이후의 일일 것인데, 이하에 언급하듯이 포상팔국의 대상이 사실상 신라영역이라고 한다면, 포상팔국 연합체의 최성기에 ‘포상팔국의 난’이 일어났음이 틀림없다. 따라서 ‘포상팔국의 난’의 보다 좁혀진 時點은 금후의 치밀한 고고학적 검토에서 저절로 드러날 것이고, 한편 포상팔국의 공격의 대상이 209년은 ‘가라’로¹⁴⁾, 212년은 ‘신라’로 표현되어 있는데, 209년과 212년의 기사가 동일사건을 기술한 것인지, 다른 사실을 묘사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포상팔국의 난이 5세기 이후의 일이라면, 그 대상은 이미 ‘親新羅化’한 낙동강하류역—정확히는 복천동·연산동고분군 집단—을 가리킬 가능성이 극히 높다고 생각된다. ‘가라’는 원래 낙동강하류역의 금관가야를 지칭하는 것이며, 5세기 후반대의 낙동강하류역을 ‘남가라’로 지칭하는 문헌기록의 예 등에서 209년의 포상팔국의 공격대상인 ‘가라’는 낙동강하류역을 말하는 것임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또 212년의 공격대상인 신라도, 이 무렵의 낙동강하류역은 親新羅化하였으므로, 낙동강하류역을 신라로 간주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낙동강하류역을 가리킬 가능성은 극히 높다.

V. 총괄정리

以上에서 언급해 왔듯이, 낙동강하류역의 금관가야를 맹주로 하는 ‘전기가야연맹’은 ‘外折口緣高杯冠’만을 연맹권역으로 하는 것이 아닌, 보다 광역권의 연맹체였다. 이 사실은 국내의 고고자료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데, 일본열도의 初期須惠器를 통해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즉 대성동고분군 축조중단으로 상징되는 금관가야의 사실상의 몰락으로, 가야주민의 일본열도 移住에 의해 생성된 일본 初期須惠器에 낙동강하류역(금관가야), 서부경남(아라가야) 및 영

14) 서력 209년의 포상팔국의 공격대상을 『삼국사기』「신라본기」에는 ‘가라’로 동 「열전」(물계자전)에는 ‘이라국’으로 기술되어 있어, 혼란을 주고 있는데, 『삼국사기』의 포상팔국의 난이 『삼국유사』의 포상팔국과 동일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가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본문의 서술은 이를 전제로 한 것이다.

산강유역의 토기요소들이 반영되는 점은 극히 중요하다. 이는 금관가야의 몰락과 전기가야연맹의 와해에 따른 가야연맹주민의 동요에 의한 일본열도 이주의 소산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가야연맹권역은 이러한 初期須惠器로 보아 낙동강하류역을 중추로, 통형고배권의 상당한 지역이었으며, 영산강하류역도 가야연맹권역, 혹은 정치적인 친연지역이었을 가능성도 크다¹⁵⁾.

대성동고분군 축조중단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그것은 대성동고분군 축조중단과 동시에, (1) 신라의 경우, 신라양식토기가 성립되고, 적석목곽묘가 출현하는 점, 이것은 이때부터 정체성을 띤 신라가 처음으로 부상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2) 일본열도의 경우 初期須惠器가 초현하면서 일본열도의 大古墳群이 大和盆地에서 해안지역인 河內平野로 이동하는 현상이 간취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상술할 수는 없으나, 위의 사실들의 역사적인 의의는 매우 중요하다. 금관가야의 사실상의 몰락으로 기왕의 가야연맹권은 친신라(친신라계가야)권과 비신라(비신라계가야)권으로 二分되며, 비신라계가야권은 다시 대가야연맹, 아라가야, 소가야연맹으로 분열된다.

한편 가야 연구자들 중에는 이러한 대가야를 과도하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러나 대가야는 이와 같이 분열된 후기가야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가야의 최성기는 대성동고분군이 존재한 전기가야 때였으며, 후기가야는 전기가야에 비해 현저하게 약화된 가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가야도 예외는 아니다. 이 점에서 대가야는 어디까지나 후기가야의 一地域聯盟體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¹⁶⁾.

대성동고분군 축조중단으로 금관가야의 핵심세력은 여러 곳으로 이주한 것으로 생각된다.

初期須惠器를 비롯한 고고자료로 볼 때, 주요세력의 일부는 일본열도로, 또 다른 일부는 영남의 내륙을 선택하였다. 후자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대가야였다. 이 때문에 대가야는 금관가야를 계승하였다는 뜻에서 국명도 금관가야의 국명인 ‘가라’를 그대로 따랐다. 즉 대가야 지배집단은 금관가야 지배집단의 후예였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것이다. 一然도 이 때문에 금관가야의 ‘대가락국’ (대가라)에 이어, 고령의 가야를 ‘대가야’ (대가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15) 申敬澈 「日本 初期須惠器의 發現」 『東아시아 속의 韓·日關係』 (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所 '97國際學術大會), 1997

16) 최근 대가야는 ‘연맹체’가 아니라, 고대국가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김세기, 「대가야연맹에서 고대국가 대가야로」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고령군·대가야박물관·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07

그러나 대가야가 연맹체가 아니라는 것은 지산동고분군과 옥전고분군의 관계를 보더라도 납득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고대국가의 의미를 알 수 없으나—중앙집권체제를 고대국가로 한 듯—대가야가 고대국가였다면, 금관가야도 모든 고고학적인 지표로 보아, 고대국가로 규정하더라도 하등 이상하지 않다. 물론 필자는 금관가야를 고대국가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가야도 대성동고분군 축조중단과 동시에 성립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다소의 불안정한 시기를 지나, 지산동고분군을 대가야 지배집단의 항구적 묘역으로 선택한 지산동 35호분의 시기—5세기 3/4분기—부터였다¹⁷⁾. 연맹의 형성은 이보다 늦어, 옥전고분군이 연맹의 가장 유력한 구성원으로 가담하는 합천 玉田 M3호분—5세기 4/4분기—부터였다.

한편 아라가야는 대가야와는 달리 재지의 세력에 의해 성장한 가야였다.

소가야연맹의 경우, 지배집단의 출자는 토기로 보아, 아라가야 以西의 諸集團이 대가야연맹의 형성에 자극되어 결집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전기가야의 단일연맹체에서, 후기가야가 되면 몇 개의 그룹으로 분열되는데, 정치적으로 신라에 기울이지 않은 凡加耶圈은, ‘종적연맹체’의 대가야연맹, 관할영역의 직접통치구조였던 아라가야, 複數의 유력고분군이 대등하게 정치연합한 ‘횡적연맹체’의 소가야연맹으로 구성되었다.

이것이 가야의 전반적 모습이자 이미지이다.

여기에서 금관가야 몰락이후의 일정기간의 가야지역의 토기를 ‘型式 亂立期의 가야토기’로 규정한 趙榮濟의 견해¹⁸⁾를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형식 난립기의 가야토기’란 대성동고분군 축조중단이 상징하는 금관가야의 몰락이후, 小文의 ‘非新羅系加耶’, 즉 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의 특징적인 토기양식이 출현하는 5세기 중엽까지인 20~30년간의 ‘비신라계가야’ 지역의 토기를 통칭하는 것이다. 즉 대성동고분군 축조중단부터 ‘비신라계지역’의 各政治體의 체제안정시기까지의 불안정기를 ‘토기형식의 난립기’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가야지역의 토기형식의 ‘난립기’란 곧 가야지역의 ‘혼란기’를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비신라계가야’ 지역은 토기형식의 ‘난립기’에는 정치체가 성립되지 않았거나,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매우 불안정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비신라계가야’ 지역이 금관가야의 몰락—대성동고분군 축조중단—이후 일정한 공백기간—토기형식 난립기—을 거친 후, 다시 諸가야—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의 정치체가 등장하는 점은, 이 무렵 경주중추부, 혹은 ‘친신라계가야’ 지역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신라중추부와 ‘친신라계가야’ 지역은 황성동 109호분과 복천동 21·22호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대성동고분군 축조중단과 동시에 개성적인 신라양식토기—臺脚上下交互透窓二段高

17) 조영제도 강력하게 시사하였듯이, 고령 쾌빈동고분군은 지배집단의 임시묘역이었으며, 지산동고분군으로 묘역을 옮겨 항구적 묘역으로 선택하였을 때부터가 대가야의 체제가 안정되는 시기였다.

趙榮濟 주 12)의 글

18) 趙榮濟, 甞글 및 「型式 亂立期」의 가야토기에 대하여, 『考古廣場』2, 釜山考古學研究會, 2008.

杯·口頸圓筒形長頸壺—가 성립되고, 적석목곽묘가 출현하면서 아무런 공백없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점이, ‘비신라계가야’와는 커다란 차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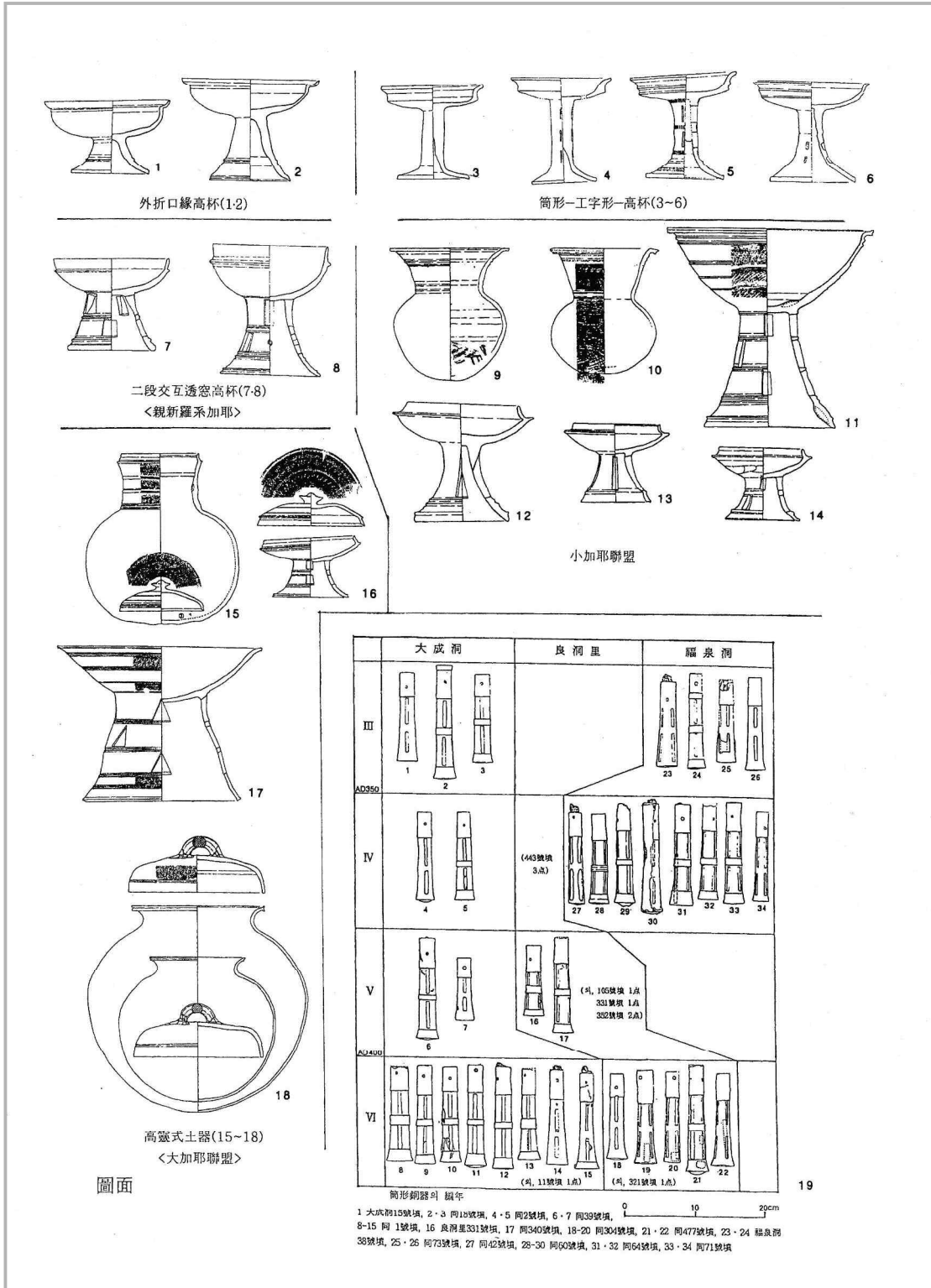
가야전기에는 가야가 신라를 압도한 반면, 후기가야가 되면 前期와는 달리 逆轉이 되는 것은, 이와 같이 공백기—토기형식 난립기—가 있고 없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해도 좋다. 즉 혼란기—토기형식 난립기—를 거친 가야지역은 그 만큼 발전이 지체되었던 것이다.

小文에서 특히 강조하고자 한 것은, 첫째 가야전기의 고분과 부장유물에서 언급하였듯이, 가야전기까지는 가야가 정치적, 문화적으로 신라에 우위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신라중심의 역사관을 불식하는 적극적인 근거가 된다. 동시에 이는 한반도 고대사의 진정한 복원의 출발점이 된다. 둘째 일본열도의 ‘야요이’ 시대에서 고분시대의 전환, 고분시대 전기에서 중기로의 전환은 일본열도 내부발전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가야의 유적, 특히 대성동고분군을 비롯한 낙동강하류역의 가야전기의 유력고분군의 소멸과 연동된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해 일본고분시대의 시작과 발전은, 가야의 정세변동과 관련되는 것이다.

요컨대 가야의 유적이 한반도남부의 고대사의 해명의 관건이며, 동시에 일본열도의 고분시대의 이해의 으뜸가는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附記〉 이 小文은 필자의 「가야스케치」『考古廣場』創刊號, 2007를 일부를 손질하고 내 용을 어느 정도 보완한 것이다. 따라서 前稿의 문장의 많은 부분이, 그대로 이 小稿에 轉載되었음을 밝힌다. 그리고 필자의 피치 못할 제반사정으로 필요한 註의 많은 부분이 일관성 없이 마구 누락되고 말아, 이 小文은 매우 불친절하며 거친 것이 되고 말았다. 寬容을 바란다.



문헌과금석문속의가야

백승옥

부산박물관 학예연구실장

I. 머리말

가야사 연구에 있어 가장 큰 애로점은 관련 사료의 부족이다. 이를 메우기 위해 고고학적 자료들을 활용하지만 이도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가야사는 금석문 자료를 포함한 문헌자료와 고고학 자료를 함께 활용하지 않는 한 연구의 진전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금석문 자료와 문헌 자료를 골격으로 한 다음, 고고학적 자료로서 살을 붙인다면 가야사의 내용은 더욱 풍부해 지리라 생각한다.

II. 가야사 연구를 위한 관련 史書들과 그 내용들

1) 《三國史記》

고려 인종 23년 乙丑(1145년)에 金富軾(1075~1151)이 왕명을 받들어 편찬한 관찬사서이다. 중국사가류의 기전체를 본떠서 本紀(28권)·年表(3권)·志(9권) 및 列傳(10권)을 세워 만들었다. 모두 50권이며, 옛날 舊版의 粧冊으로는 9내지 10冊 정도이다. 일찍이 고구려의 留記, 백제의 百濟本記·百濟記·百濟新撰, 신라의 國史 등이 편찬된 것이라든지, 김부식의 《삼국사기》 이전에 《舊三國史》가 존재했던 것이 확인되는 만큼 이들을 모두 참고하여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삼국지》 등의 중국 측 사서들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三國史記》의 고려 板本은 현재 전하지 않고 있다. 조선시기 판본은 목판본과 鑄字本 두 종류가 있다. 목판본은 태조 2·3년 경 陳義貴·金居斗 등이 前後 경주부사로 있을 때 開刊한 것을 中宗 7년(1512)에 중간한 이른바 壬申本이 있다. 주자본은 영조 36년에 인출한 것이 있다. 新活字本에는 朝鮮古書刊行會本, 동경제국대학본, 朝鮮光文會本, 朝鮮史學會本이 있고, 영인본에는 경주 옥산서원본(구목판본)을 영인한 고전간행회본과 1973년에 (재)민족문화추진회에서 《삼국유사》와 함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의 임신본(세칭 正德本)을 교감 영인한 것이 있다.

2) 《三國遺事》

高麗 忠烈王時(1275-1308) 曹溪宗僧 普覺國師 一然의 撰이다. 遺事라고 함은 拾遺한다는 뜻으로 이미 正史인 三國史記가 백수십년전인 仁宗 二十三年(1145)에 金侍中 富軾에 의하여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누락된 것을 주어 모아둔다는 의미에서 유사라고 한 것이다. 撰者 一然은 당대의 고승으로 많은 저술도 남긴 사람이나 그의 저술 목록 중에는 三國遺事의 서

명이 보이지 않는다. 이만치 三國遺事이 그의 업적 중에 보잘 것 없는 것으로 간과된 셈이다. 즉, 이 三國遺事는 高僧 一然의 本業인 불교연구와도 다소 인연이 먼 閑中雜錄 또는 漫錄 野錄 舊聞 瑣錄이라고 보겠다.

그러나 三國遺事 불교와 인연이 아주 먼 것은 아니다. 아주 먼 것이 아니라기 보다 역시 직접적인 인연을 갖고 있다. 지금 三國遺事의 편목을 보면 王歷篇, 紀異篇, 興法篇, 義解篇, 神呪篇, 感通篇, 避隱篇, 孝善篇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불교와 직접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왕력편, 기이편과 피은편 효선편 등이라고 하겠는데 왕력편은 三國 및 駕洛國을 中國 年表를 중심으로 세운 것이니 自國의 불교사상을 취급하려면 아무래도 자국의 왕력이 그 縱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 의미에서 불교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피은편, 효선편 역시 불교와 전연 무관할 수 없다. 기이편도 굳이 말하면 불교에 의하여 계승된 古神道의 원류와 불교유통의 밑바탕이 되는 사회사상의 편모를 전해준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런 의미로 볼 때는 三國遺事의 전편이 모두 불교유통이란 대목적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바이다.

가야사연구에 있어서 三國遺事의 가치는, 첫째 기이편 제일에서 단군조선편을 卷首에 두어서 민족의 出自와 화합과 독립자주의 사상을 강조함과 같이 伊西國 오가야기사를 收載하고 脫解王條에 가락국 수로왕과의 係爭事를 취급하였으며 그 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하여도 「駕洛國記」 「略而載之」 하여준 일이라고 하겠다. 오늘날 만약 가락국기 마저 없어졌다고 하면 가락국의 실마리를 어디에서 찾을 것이나 비록 황당하고 윤색되고 설화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가락국기가 전해짐으로써 가야사의 편모나마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三國遺事의 간행을 살펴보면 고려 때 이미 版本이 있는 듯하나 자세하지 않고 三國史記와 같이 李朝 中宗 壬申(정덕 7년=1512)의 刊本이 있으나 그것도 지금은 極稀本으로 되어 있다. 憲宗 乙巳(1845) 이를 改刊한 것이 韓末까지 전한다. 해방 후 육당 최남선의 「增補三國遺事」를 비롯하여 李丙燾의 역주본도 나왔고 기타에도 역본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으나 역시 六堂의 增補 三國遺事 가장 善本이라 할 수 있는 바이며 특히 李弘植교수가 고심하여 작성한 索引은 增補三國遺事의 가치를 더욱 높여 주고 있다.

3) 《日本書紀》

元正天皇 養老四年(720) 舍人親王 主率下에 太祖臣 安麻呂 등이 관여하여서 編修한 것으로 30권의 編年體로 된 日本正史의 嚆矢이다. 멀리 神代로부터 第四十一代 持統天皇(687-696)에 이르는 일을 편년순으로 기록한 것으로 일본서기에는 계속하여 편찬된 續日紀 以下 日本後紀 續日本後紀 文德實錄 三代實錄 등에 비하면 그 속에 포함된 사료 등이 대단히 특색있는 바가 있다.

《日本書紀》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천황이 일본을 통치하는 기원을 기록한 역사서이다. 한반도관계에 있어서도 마치 천황이 다스리는 것처럼 왜곡하여 한반도 南部 諸國을 일본의 藩國으로 설정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지 않으면 《일본서기》는 매우 위험한 史書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서에 주목하는 것은 『일본서기』가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반도 관계와 관련하여서는 내용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들로서 「백제기」, 「백제본기」, 「백제신찬」 등이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완전히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최근 《일본서기》에 관한 연구 성과에 의하면, 《일본서기》는 권1부터 차례대로 찬술된 책이 아님이 밝혀졌다. 森博達은 《일본서기》의 음운과 문장을 분석하여 그 표기의 성격 차이를 바탕으로 α 群(권14~21·24~27)· β 群(권1~13·22~23·28~29)·권30의 세 유형으로 나누었다. 나아가 α 群은 持統朝(687~696)에 續守言과 薩弘恪이 正音에 의한 正格漢文으로 述作했으며, β 群은 文武朝(697~707)에 山田史御方이 倭音を 바탕으로 한 일본식 한문으로 찬술하였다고 하였다¹⁾. 권30은 元明朝(708~714)에 紀朝臣清人が 찬술하였다고 한다²⁾. 권14 雄略紀부터 권21 用明·崇峻紀와 권24부터 권27 天智紀가 먼저 찬술되어졌으며, 권1 神代紀부터 권13까지는 그 후에, 그리고 권30이 마지막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충분히 받아들여 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일본서기』에 사용된 曆의 적용시기를 살펴보면 森博達의 견해가 수긍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일본서기》는 권13의 安康 즉위전기까지는 새로운 儀鳳曆을 사용하여 年紀를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安康 원년부터는 오래된 元嘉曆을 사용하여 연기를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³⁾. 이는 원가력을 적용한 부분이 먼저 편찬되어졌음을 말하는 것이다. 일본에서의 儀鳳曆 사용은 실제로 文武 2년(698)부터라고 한다⁴⁾. 따라서 권1에서 권13은 文武 2년(698) 이후에 찬술된 것이 되고, 권14 雄略紀부터 권21 用明·崇峻紀와 권24부터 권27 天智紀는 元嘉曆이 적용된 그 이전 시기에 찬술된 것이 된다.

1) 阿利斯等에서 阿羅斯等, 즉 '利'가 '羅'로 바뀐 이유도 정격한문에서 일본식 한문으로 고쳐지면서 발생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2) 森博達, 1991, 『古代の音韻と日本書紀の成立』, 大修館書店; 2008(1999 초판), 『日本書紀の謎を解く—述作者は誰か』, 中公新書; 森博達 지음, 심경호 옮김, 2006, 『일본서기의 비밀』, 황소자리.
 3) 小川清彦, 1946, 『日本書紀の曆日について』(内田正男 編, 1978, 『日本曆日原典』, 雄山閣 所收)
 4) 森博達, 2011, 『日本書紀에 보이는 古代韓國 漢字文化의 影響(續篇)—山田史御方와 三宅臣藤麻呂—』, 목간학회 하계워크샵 발표요지.

4)《三國志》

三國志는 晉의 陳壽(233-297)撰으로 魏書 三十卷(四帝紀二十六傳) 蜀書 十五卷 吳書 二十卷으로 도합 육십오권으로 된 中國 三國時代의 正史이다. 다른 정사에 비할 때 表·書가 없음이 결점이 되기도 하나 역대 정사 중에서도 그 사료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사서이다. 魏를 정통으로 보고 蜀 吳에는 帝紀를 두지 않았으나 촉에 관한 기사는 많은 호의를 가지고 編述하고 있다. 그 이유는 陳壽의 母國이 蜀이나 그는 위의 정통을 계승한 晉의 史臣이었으므로 正閏論에 고민하면서 위를 정통으로 삼고 모국 촉에 대하여서는 情的으로 동정한 필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인용한 사료가 방대하여 140 여나 된다고 하니 그 編修의 苦心을 알 수 있고, 또 三國志의 「記事簡略 引用史料節略」을 보충하는 宋太祖時 裴松之의 註는 본문의 가치에 못지 않는 중요한 사료가 된다. 이 三國志의 魏書 列傳 중의 東夷傳은 우리 상고사의 근본사료로서 가장 뛰어난 것으로 여기에는 夫餘傳 高句麗傳 東沃沮傳 挹婁傳 濊傳 韓傳 辰韓傳 弁辰傳 辨辰傳 倭人傳 등이 소재되어 있다. 말하자면 삼세기 후반기의 동방사회에 관한 가장 충실한 見聞과 기록 보고를 종합한 기록으로 우리의 고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오늘에 있어서는 거의 절대적인 사료 가치를 갖고 있다. 가야사연구도 이 東夷傳에서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韓傳, 辰韓傳, 弁辰傳, 辨辰傳, 倭人傳 등은 가라사의 직접적인 사료가 된다.

5)《後漢書》

南朝 宋의 范曄(398-445)의 撰으로 후한의 13대 196년의 정사이다. 本紀 10권, 志(律曆, 禮儀, 祭祀, 天文, 五行, 郡國, 百官, 輿服) 30卷(단 八志는 晉司馬彪作), 열전 80권, 도합 120권으로 되어 있다. 본서의 재료가 된 것은 班固의 「世祖本紀」 「光武時功臣列傳載記」 崔寔 등의 「漢紀」 馬日磾 등의 「東觀漢紀」 謝承의 「後漢書」 華嶠의 「後漢書」 袁宏의 「後漢紀」 謝沈의 「後漢書」 등으로 풍부한 사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다만 撰成年代가 陳壽의 三國志보다 뒤에 속하므로 사료로 취급함에 있어서는 이 점에 주의를 요한다. 後漢書 열전 중의 동이전에는 夫餘國傳, 挹婁傳, 高句麗傳, 句驪傳, 東沃沮傳, 濊傳, 韓傳, 倭傳 등이 있는데 대체로 삼국지 동이전의 기사를 요약 기재한 감이 있다.

6)《宋書》 卷97, 列傳57, 東夷傳 倭國條

- ① “(前略)讚死弟珍立 遣使貢獻 自稱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 (中略) 二十八年 加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將軍如故 (中略) 興死弟武立 自稱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安東大將軍

倭國王 (中略) 詔除武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王。”

- ② (전략)讚이 죽자 동생 珍이 왕이 되어 중국의 宋에 사신을 보내 공헌하면서 ‘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 이라고 자칭했다. (중략) 28년에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將軍’ 로 봉해 전과 간이 했다. (중략) 興이 죽고 동생 武가 왕이 되어 스스로 ‘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 이라고 칭했다. (중략) 조칙을 내려 武를 ‘使持節都督倭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王’ 에 제수했다.
- ③ 이는 5세기 대 倭王들이 중국 南朝 宋에 사신과 공물을 보내 왜왕으로 제수받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다. 이 기사는 왜의 왕권성립과 관련하여 5세기 대 왜가 한반도 남부의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사료로서 이용되어왔다. 특히 위 기사에 보이는 武를 《日本書紀》의 雄略으로 비정하여 왜왕권 성립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 가야사와 관련하여서는 임나와 가라 2국명이 보이고 있다. 광개토태왕릉비문에는 ‘임나가라중발성’ 이라고 나와 있어 하나의 국명으로 볼 여지가 커지만, 여기에서는 임나가라를 하나의 국명으로 보지 않고 임나와 가라로 나누어 2국명으로 보고 있다.

7)《南齊書》卷58 列傳39 東南夷傳 東夷

- ① 加羅國 三韓種也 建元元年 國王荷知使來獻 詔曰 量廣始登 遠夷洽化 加羅王荷知 款關海外 奉贄東遐 可授輔國將軍本國王
- ② 가라국(加羅國)은 삼한의 종족이다. 건원(建元) 원년(479)에 국왕(國王) 하지(荷知)의 사신이 와서 공물을 바쳤다. 조서를 내려, “도량이 넓은 자가 비로소 등극하니 먼 오랑캐가 교화에 젖도다. 가라왕 하지가 바다 밖에서 방문하여 동쪽 멀리서 폐백을 바쳤다. 가히 보국 장군본국왕을 제수한다.”라고 말하였다.
- ③ 가라국왕을 안라국왕으로 보는 설도 있으나 고려 가라국(대가야)의 왕으로 보는 설이 일반적이다. 중국의 남조와 통교한 이 기사로 인하여 가라국이 5세기 중·후반대 가야제국 중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加羅王荷知’ 라는 구체적 이름을 가진 왕명도 보이고 있다.

8)《梁職貢圖》百濟國使臣圖經

- ① 普通二年(521)其王餘隆遣使奉表云 -(中略)- 旁小國有叛波·卓·多羅·前羅·斯羅·止迷·麻連·上己文·下枕羅等附之

- ② 보통 2년에 그 왕 여룡이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려 말하기를 -(중략)- 백제 인근의 소국에는 반파(叛波)·탁(卓)·다라(多羅)·전라(前羅)·사라(斯羅)·지미(止迷)·마련(麻連)·상기문(上己文)·하침라(下枕羅)가 있다.
- ③ 梁武帝(502~549) 때에 蕭繹(508~554; 후의 梁元帝로 재위기간은 552~554)이 직접 그리고 그 序를 지었음. 편집시기는 그가 荊州刺史로 있었던 시기(526~539)로 추정된다. 가야사와 관련하여서는 백제 옆에 있었던 소국들의 위치와 성격이 문제의 초점이다. 김태식은 여기서의 叛波를 고령의 대가야로 보고 있다.

9)《翰苑》卷第30, 蕃夷部 新羅條

- ① 地惣任那[齊書云 加羅國三韓種也 今訊新羅耆老云 加羅任那 昔爲新羅所滅 其故地今並在國南七八百里 此新羅有辰韓卞辰二十四國 及任那加羅慕韓之地也]
- ② 땅은 임나를 통합하였다. [齊書]에는 가라국은 삼한의 한 종족이다. 지금 신라의 노인들에게 물으니, 그들은 말하기를 '가라와 임나는 옛날 신라에게 멸망당하여, 그 옛 땅은 지금 나라의 남쪽 7, 8백리이다' 라고 하였다. 이는 신라가 진한과 변진 24국과 임나 가라 모한의 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 ③ 《翰苑》은 중국 역대 문화에 대한 일종의 事類賦이다. 30권으로 이루어졌다. 唐高宗 顯慶 5年(660)에 張楚鎔이 편찬하고 雍公叡가 注를 붙였다. 일실되어 전해지지 않다가, 30권 중에 蕃夷部 1권만이 두루마리 형태로 日本九州 福岡 大宰府神社 西高辻家에 전하고 있다. 《翰苑》蕃夷部에는 匈奴·烏丸·鮮卑·夫餘·三韓·高句麗·新羅·百濟 등이 기재되어 있다. 誤字가 많은 것이 흠이지만, 현재 전하지 않는《魏略》등이 注에 인용되고 있어 한국 고대사 연구에 귀중한 사료가 된다.

10)《通典》卷185, 邊防門1, 東夷上, 新羅國條

- ① 遂致强盛 因襲加羅任那諸國滅之 其西北界犬牙出高麗百濟之間
- ② 강성하게 되어 가라와 임나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그 서북쪽은 고구려 백제와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었다.
- ③ 《通典》은 중국 상고로부터 唐玄宗代에 이르기까지의 역대 제도를 8부문으로 나누어 서술한 史書이다. 200권이다. 唐德宗 貞元 17年(801)에 杜佑가 編纂하였다. 食貨 12권, 選舉 5권, 職官 21권, 禮 99권, 樂 6권, 兵 16권, 刑 7권, 州郡 13권, 邊防 1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邊防門에 馬韓·辰韓·弁韓·新羅傳 등이 따로 있어서, 前代의 東夷傳 관계 기록들이 체

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특히 新羅傳에는 신라가 加羅·任那諸國을 공격하여 멸하였다는 기사가 나오며, 이는 《隋書》의 잘못을 바로잡은 것이다.

Ⅲ. 금석문·명문자료

1) 廣開土王陵碑文

① 十年庚子 敎遣步騎五萬 往救新羅 從男居城 至新羅城 倭滿其中 官軍方至 倭賊退 來背急 追至任那加羅從拔城 城即歸服 安羅人戍兵 城 倭滿倭潰城 盡更 來安羅人 戍兵滿 其 言 辭 潰 以 安羅人戍兵 昔新羅寐錦未有身來 開土境好太王 寐錦 僕勾 朝貢(釋文은 水谷悌二郎,《好太王碑考》, 東京, 開明書院, 1977.)

② 십년 경자(400)에 보병과 기병 오만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남거성을 지나 신라성에 이르니 왜가 가득차 있었다. 우리 고구려군이 이르니 왜적은 물러나고 ...결락... 뒤를 쫓아가서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렀다. 성이 항복하여 오니 ‘羅人戍兵’을 안치했다. 新라성 왜가 가득했는데 그들을 쾌멸시키고 城...盡更 來 羅人戍兵을 안치하고, 滿...其...言...辭...潰 以隨 羅人戍兵을 안치했다. 옛날 신라의 매금이 직접 온 적이 없었는데, ...광개토경호태왕...매금...僕勾...조공.

③ 비문에는 ‘임나가라’가 보이는데, 그 위치를 어디에 비정하느냐에 따라 5세기 이후 가야사에 대한 설명이 치명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검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임나가라의 위치문제이다.

임나(任那)는 광개토왕비문에 초출(初出)되며, 그 외 우리측 기록에는봉림사진경대사보월릉공탑비문(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文)과 《삼국사기》 강수(强首)열전에 나오고 있다. 중국사료에는 《송서(宋書)》왜국전(倭國傳)(4), 《남제서(南齊書)》 왜국전(1), 《양서(梁書)》왜전(1), 《남사(南史)》왜국전(5), 《통전(通典)》신라전(1)에 나온다. 일본사료에는 임나의 차자(借字)인 미마나(彌摩那), 어간명(御間名) 등을 합하여 《일본서기(日本書紀)》에 216例, 《신찬성씨록(新撰姓氏錄)》에 12例가 나오고 있다.

‘안라인수병(安羅人戍兵)’에 대한 해석에는 ‘安羅’를 고유명사로 보는 경우와 고유명사로 보지 않고 ‘安’을 술어로 보는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安羅’를 고유명사로 보는 경우도 이른바 임나일본부설과 관련하여 ‘안라인의 지키는 군대’로 보아서 임나를 지배하는 왜군 장군이 통

솔하고, 안라인 병사들로 이루어진 군대로 보는 경우와 安羅人戍兵을 함안 안라국인으로 구성된 수비병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이들을 ‘任那日本府의 傭兵’으로 보지 않고 ‘백제를 돕는 동맹군’으로 보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安羅人戍兵’에서의 안라를 함안의 안라국으로 보는 설을 부정하고 ‘安’을 술어로 보아 ‘安’과 ‘羅人戍兵’을 띄워 읽는 해석의 시초는 중국의 王健群이 열었다. 그는 과거 일본인 학자들이 ‘安羅人戍兵’을 임나일본부의 용병이라고 한 해석을 억측이라 하면서 이 부분의 해석을 ‘(고구려 군대가 어떤 城을 탈취한 후) 신라인을 안치시켜 戍兵把守했다’로 해석하였다.

2) 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文(新羅 景明王 8年; 924)

- ① 大師諱審希 俗姓新金氏 其先任那王族 草拔聖枝 每苦隣兵 投於我國 遠祖興武大王 鼇山稟氣 鯨水騰精 握文符而出自相庭 携武略而高扶王室 □□終平二敵 永安兎郡之人 克奉三朝 遐撫辰韓之俗(釋文은 김태식·이익주 편,《가야사사료집성》서울, 재단법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 ② 대사의 이름은 심희이고, 俗姓은 新金氏이다. 그의 선조는 임나왕족이었다. 풀에서 성스러운 가지를 뽑았으나(이는 ‘나라를 세우긴 했으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매번 주변으로부터 고난을 당해왔었다. (이후) 우리 신라에 투항해 왔다. 遠祖는 興武大王(김유신)이다. 그는 오산의 늪늪한 기상과 커다란 물결의 정기를 타고, 문신의 부절을 잡고 재상이 되었다. 무신의 지략을 잡아 왕실을 높이 부양하였으며, 마침내 이적(고구려와 백제)을 평정하고, 나라 사람들을 오래도록 안정시키었다.
- ③ 新羅 下代 九山禪門 가운데 鳳林山派의 開祖인 진경대사 심희에 대한 비문이다. 그 비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 신라 景明王 8년(924)에 崔仁滾이 敎書를 받들어 찬술하였다. 심희의 속성이 신김씨이고 그 선조가 ‘任那王族’이었다는 기록이 주목된다.

3) 陝川梅岸里碑

- ① 概要: 1989년 5월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팀이 발견, 마을에서는 선돌로 신앙대상이었다. 오랜 기간에 걸쳐 마멸이 진행되어 판독이 거의 불가능하다. 확인된 것은 1행 10여 자, 1,2행 정도 더 있을 가능성도 있으며, 北魏風의 楷書體이다. 따라서 이 비가 신라비인지 가야비인지 불분명하다.
- ② 판독문: 辛亥年□月五日□□村四十干支
- ③ 해석: 辛亥年□月 5日 □□村 40干支가 … 하였다.

- ※ 辛亥年 연대는 書體나 官名表記에서 보아 6세기 경에 한정되므로 471년, 531년, 591년 중에 하나일 것이다. 591년이라면 562년 대가야 멸망이후이므로 신라비로 볼 수 있으나, 551년 이전건립의 丹陽赤城碑까지만 干支라는 관등표기가 존재하므로 471년 내지 531년 건립의 가야비로 볼 가능성이 크다.
- ※ 五日 다음의 □□부분이 5일의 干支로 볼수도 있으나, 고구려 이외 신라 등의 경우에는 日의 간지가 기록된 예는 거의 없다(황초령비가 유일한 예). 따라서 □□는 村의 지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四十干支; 四十이 干支의 人名인지 干支라는 수장들이 40명이라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日本書紀》 임나관계기사에 가라의 수장들을 ‘皐岐’라 기재하고 6세기 소위 <임나부흥>에 대한 회합기록에는 皐岐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곳은 干支(=皐岐)라는 관명을 가진 수장의 출신지라기 보다는 회합처일 것으로 사료된다. 즉 이 비가 세워졌던 그 당시에는 어떤 큰 사건(위기)으로 40명의 수장들이 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이 □□村에 모여 회합을 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비석에 새겨 맹세를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4) 昌寧校洞 11號墳 出土 象嵌鐵刀 銘文

- ① 概要: 1919년 발굴한 고분에서 출토된 것으로 현재 진주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처음의 보존처리과정에서 판독하여 백제계라는 설과 새로이 판독되어 고구려계라는 설이 있다.
- ② 판독문: a) 백제 계통설 ‘乙亥年□汗率□’
b) 고구려 계통설 ‘上部先人貴□刀’
- ③ 해석: 乙亥年; 위의 설에 합당한 연대로서는 435년/495년이 가능성이 있으나 불분명하다. 555년설은 신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당하다.

5) 日本 東京國立博物館 所藏 環頭大刀 銘文

- ① 概要: 동경국립박물관에는 한반도 출토의 환두대도가 10점 이상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을 진열하기 위해 일부 수리하던 중, 1989년 6월 單龍文環頭大刀에서 문자가 있음이 X선 촬영을 통해 확인되었다. 銀象嵌에 의한 명문은 16자가 확인되었다. 문자 중에는 상감된 銀線이 이차적 균열 등에 의해 잘 알아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 명문의 문자는 行書風이지만, 중국 六朝시대에 행해졌던 隸書의 書風이 남아 있는 古書風과 유사하다고 한다. 그리고 명문의 내용에서 추정하자면, 원래 명문은 적어도 현존의 것 보다 2배 이상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명문이 새겨진 환두대도는 분류양식에 의하면 5세기 대의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1978년 고령 지산동 32호분에서 출토된 철제 은상감대도와 매우 흡사하여 6세기 초 이전의 가야 제품일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② 판독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不 畏 也 □ 令 此 刀 主 富 貴 高 遷 財 物 多 也

③ 해석: (이 칼이 있으면)두렵지 않다. (?) 이 칼의 주인은 부귀가 높고, 재물이 많아 지리라.

6) 陝川 苧浦里 出土 土器 銘文

① 概要: 저포리 E지구 제 4-1호분 출토의 短頸壺(대가야계 6세기 중엽) 구연부에 새겨진 5자의 명문.

② 판독문: 下部思利^々

③ 해석: 下部(소속)의 思利^々라는 인물로서 토기제작자나 피장자의 이름으로 추측된다.

7) 창녕 계성고분군 출토 토기 銘文

① A B C지구[大千] (2) B C지구 大
干

: 창녕 계성고분군은 낙동강 중류유역의 해발 60-85m, 높이 25m 전후의 구릉지대 경사면에 조성되고 1976년에 A, B, C지구로 나누어 발굴되었다.

A지구: 10기의 소고분, 대부분 수혈식석곽, 1호분(최대)을 중심으로 배치, 6호분 석곽의 동북귀퉁이의 약 1m 동쪽에 여러 소형의 합구식옹관 중에 서북옹(회색와질)에서 ‘大千’ (보고서; 六干)이라는 글자가 음각.

B지구: 가장 높은 곳에 독립된 1기와 그 아래에 25기로 구성, 대부분 수혈식석곽으로 부곽이 있는 다곽식이며 3기의 고분에서 출토된 4개의 토기(유개고배)에서 문자가 확인. ‘大千’ (보고서; 辛)

C지구: 해발 80m 위치의 큰 고분 2기와 그 아래 13기의 고분이 3개 지군으로 분포. 북쪽의 3호분(장방형석곽)에서 출토된 작은 병과 상하교열투창고배에 문자가 확인. ‘大千’ (보고서; 辛)

이들 음각문자는 왼손으로 새겨진 것으로서 습성의 특이성인 듯하다. 이 문자들은 대형이 아닌 소형고분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아 ‘大王’이란 수장의 칭호라기보다 그 토기의 제작자와 관련있는 듯하다.

8) [大王]銘 有蓋長頸壺

1976년경 대구의 골동품상에서 구입한 것으로 현재 충남대박물관에서 보관, 토기형태상 고려계토기(뚜껑의 지름 10.8cm, 壺의 구연부지름 10cm, 높이 16.8cm, 몸체 지름 9.5cm)로서 고려, 남원, 합천, 거창, 함양 등지의 할석축조 세장형 수혈식석곽묘에서 발견되는 장경호와 같은 형태이며, 이들지역은 적어도 대가야문화권에 속한다. 《日本書紀》의 임나관계기사에 가라의 수장들을 ‘旱岐’라 기재하고 있는데 ‘大王’이라는 명문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또는 백제세력의 침투에 의한 영향인지, 어쩌면 대가야 수장의 칭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 김해 예안리고분군 출토 토기 銘文 : [井] [井勿]

김해 예안리고분군은 4~7세기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묘제간의 상호 중복관계로 인하여 목곽묘→수혈식석곽묘→횡구식석곽묘의 순서로 축조되었다. 그 규모상으로는 1그룹(0.5~1m), 2그룹(1~2.6m), 3그룹(2.7~4m)으로 구분된다. 이들 중 6세기 말~7세기 초로 편년되는 30호분(횡구식 방형석실; 210×155cm, 고배에 ‘井’)과 49호분(상동; 210×190cm, 병형토기에 ‘井勿’)에서 명문토기가 출토되었다. 이 銘文에 대해서는 기존의 언급이 전혀 없는데, 중국의 예로 보아 ‘井’과 ‘勿’의 경우 禁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매장의례에서의 금기를 행하는데 사용하였던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혹은 그 고분의 축조시기에서 보면 김해가야 멸망이후의 시기이므로 신라식 이두표기로 볼 수 있다면 ‘井勿’이란 ‘井(우물)+勿(물=水)’ 또는 ‘井(우물)+勿(받침 명시표기)=우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그 의미는 매장의식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朝鮮金石總覽》《韓國金石遺文》《韓國金石全文》《譯註韓國古代金石文》 제2권, 1992, (재)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鄭求福 等, 《譯註 三國史記1 - 勘校 原文篇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 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乙酉文化社, 1989 4版
- 북한 고전연구실, 《三國史記》 과학원, 1958
- 李載浩, 《三國史記》 光信出版社, 1989
- 辛鎬烈, 《三國史記》 東西文化社, 1977
- 鄭求福 等, 《譯註 三國史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의 번역편(2권)과 주석편(3, 4)
- 慶尙南道, 《昌寧桂城古墳群發掘調査報告》, 1977
- 釜山大學校博物館·慶尙南道, 《陝川苧浦里B地區遺蹟》, 1987
- 東京國立博物館, 《有銘環頭大刀》, 1992.
- 釜山大學校博物館, 《昌寧 桂城古墳群》, 1995
- 釜山市立북천분관, 《유물에 새겨진 古代文字》, 1997
- 경상북도, 《가야문화도록》, 1998
- 호암미술관, 《昌寧桂城古墳群(上)(下)》, 2000
- 정중환, 《加羅史研究》, 2000, 해안
- 백승욱, 《가야사 기초자료 연구》, 2003, 세종출판사
- 蔡尙植, 《陝川 苧浦 4號墳 出土 土器의 銘文》 《伽耶》 2 伽耶文化社, 1989
- 金昌鎬, 《伽耶지역에서 발견된 金石文 자료》 《鄉土史研究》 1 韓國鄉土史研究全國協議會, 1989
- 金相鉉, 《陝川梅岸里古碑에 대하여》 《新羅文化》 6, 1989
- 韓永熙·李相洙, 《昌寧 校洞 11號墳 出土 有銘圓頭大刀》 《考古學志》 2 韓國考古美術研究所, 1990
- 早乙女雅博·東野治之, 《朝鮮半島出土の有銘環頭大刀》 《MUSEUM》469, 1990
- 金昌鎬, 《韓半島出土 有銘龍文環頭大刀》 《伽耶通信》19·20合, 1990
- 西谷 正, 《朝鮮三國時代の土器の文字》 《古代の日本と東アジア》 小學館, 1991
- 李永植, 《昌寧 校洞 11號墳 出土 環頭大刀銘》 《末甲鎬教授停年退任紀念論文集》, 1993
- 武田幸男, 《伽耶~新羅의 桂城 '大千' -昌寧·桂城古墳群出土土器의 銘文について-》 《朝鮮文化研究》 1 東京大學 文學部 朝鮮文化 研究室, 1994
- 盧重國, 《大伽耶의 政治·社會構造》 《伽耶史研究-대가야의 政治와 文化》 경상북도, 1995
- 田中俊明, 《加耶諸國의 王權에 對する 私見》 《加耶諸國의 王權》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편, 신서원, 1997

금관가야의 왕묘 김해 대성동고분군

- 7차 발굴조사 성과를 중심으로

심재용

대성동고분박물관 학예연구사

I. 조사개요

금관가야 왕들의 묘역인 김해 대성동고분군은 작은 구지봉을 뜻하는 '왜(애) 꼬지 구릉과 그 주변일대에 위치하며 김해시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다. 북쪽에 구지봉(龜旨峰), 동쪽에 수로왕릉(首露王陵), 남쪽에 봉황대유적(鳳凰臺遺蹟)이 위치하며, 서쪽에 해반천으로 불리는 소하천이 북에서 남으로 흐른다. 본 유적은 다음과 같이 발굴조사가 7차례 걸쳐 이루어졌으며, 제1차 발굴조사 결과 유적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1990년 11월에 사적 제341호로 지정되었다. 이 7차례의 발굴조사에서 총206기의 무덤, 마갱1기, 溝1기, 수혈1기가 확인되었다. 1~3차 조사에서 3~5세기 전기의 大形木槨墓와 2세기전기의 목관묘 등 가야지배층들이 확인되었고, 4차조사에서는 22기의 목관묘와 3구의 순장인골이 양호하게 남아 있는 57호분이 조사되었다.

발굴순서	조사기간	조사성과	조사기관
1차	1990. 6.12~ 8. 1	1·2호	
2차	1990. 9. 3~1991. 4.14	3호~39호	경성대학교박물관
3차	1991.10.18~1992. 4.14	40호~53호, 주변 I~IV지구 묘83기, 구1기	
4차	2001. 4.30~ 9.23	54호~67호, 주변 V 지구 묘32기	
5차	2009.10.12~12. 3	68호~72호	
6차	2011. 7.29~10.14	73~84호	대성동고분박물관
7차	2012. 6. 4~ 9.26	85호~91호, 마갱1기	

5차 조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실물 안장과 은제환이 조사되었고, 6차 조사에서 5세기후기 大型豎穴式石槨墓와 청동기시대 石蓋木棺墓가 대성동고분군에서는 처음으로 조사되었다. 비록 파괴가 심하지만 공백으로 있던 4세기초 大型木槨墓도 확인되었다. 7차 조사에서는 가야·신라권역에서 가장 빠른 시기의 금동제마구들과 금동제대금구, 그리고 로만글라스편 등이 처음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7차 발굴조사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7차 발굴조사내용

1. 유적의 층위

본구간의 사면은 貝塚이 있으며, 大形木槨墓2기는 貝塚 위에 만들어졌다.

貝塚의 층위는 유적의 기반암인 풍화화강암(VI층) 위로, 담갈색문화층(V층), 순패각층(IV층), 고려~조선시대 기와가마와 근대경작층에 의해 재퇴적된 혼토패층(III층), 현대경작층(II층), 북토층(I층) 순으로 퇴적되었다. IV층과 V층은 청동기시대에 해당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加耶時代의 豎穴式石槨墓5기, 木槨墓2기, 豎穴1기가 조사되었고, 무덤의 조성이 중지된 이후에 만들어진 수혈2기가 확인되었다.

호분	구조	墓壙/석·목곽(cm)		유물			연대
		길이	너비	토기	철기	기타	
85호	수혈식 석곽	470 370	170 75	高杯5, 蓋2, 기대대각편1	교구3, 재갈1, 철환1, 모자도1, 鐵鏃12, 鹿角製柄刀子7, 刀子2, 철정10, 철부4, 철검1, 꺾쇠8	안교손잡이1, 안교장식1, 靱尾金具1, 석제품1, 頸飾, 금제이식, 靱角製병소刀子6	5세기 4/4분기
86호	수혈식 석곽	(170)	130		꺾쇠2	金製耳飾1, 頸飾	
87호	수혈식 석곽	418 330	165 60	蓋1, 高杯1	철모2, 투구1, 철부2, 철검2, 刀子2, 꺾쇠5,	金製耳飾1, 頸飾	6세기 1/4분기
88호	목곽	810 590	440 270	短頸壺3, 蓋1	鐵鏃146, 철창1, 이지창1, 철정4, 판 갑편, 鹿角製柄刀子2, 刀子2, 꺾쇠 12, 원두정2	巴形銅器12, 筒形銅器3, 銅針1, 銅 鏃2, 弓金具1, 晉式帶金具4, 靱尾 金具2, 紡錘車形石製品2, 骨鏃81, 고달5, 상어이빨촉2, 이형골각기1, 원형골각기1, 활장식2, 빗2	4세기 3/4분기
수혈 1호	제사 유구					말1구	88호의 부 속유구
89호	수혈식 석곽	(300)	150	蓋片2	재갈1, 교구1		5세기4/4 분기
90호	수혈식 석곽	440	200	기대편4, 高杯편2	소찰편1, 꺾쇠1		5세기 4/4분기
91호	목곽	820 650	480 280	爐形器臺9, 爐形土器4, 컵형토기6, 短頸壺17, 삼류부호1, 연질용5	철부38, 철검9, 따비1, U자삽날1, 교 구6, 재갈4, 십금구3, 집게1, 8자형철기5, 刀子5, 鹿角製柄刀子13, 환두도1, 목병도1, 철참6	金銅擘5, 金銅環2, 金銅什金具1, 金銅金具12, 金銅雲珠1, 金銅圓板1, 貝雲珠23, 筒形銅器1, 동완2, 동령4, 8 자형동기2, 이형동기1, 靱각2, 통형골각기3, 조蓋상신구1, 이형골각기1, 목기1, 운모1	4세기 2/4분기

〈표1〉 유구 현황표

() 잔존크기임

(1) 88호

주축방향은 거의 남북향이다. 북동쪽은 87호, 남서쪽은 89호에 의해 상부가 파괴되었고 바닥까지 도굴되었다. 墓壙의 규모는 길이810cm, 너비450cm, 깊이170cm이며, 목곽의 규모는 길이590cm, 너비270cm다. 바닥에는 윗변 약20cm길이의 단면역삼각형 홈이 장벽을 따라 파져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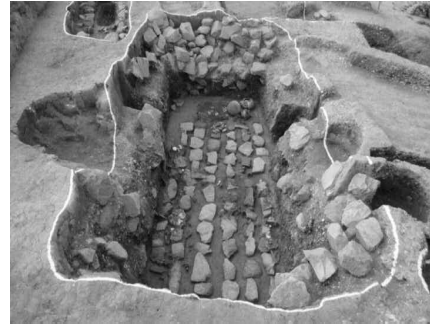
는데, 목곽을 바닥에 고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목곽 내 바닥에는 북쪽 일부를 제외하고, 직경 30cm 이상의 판상의 시상석을 동서6열과 남북11열로 돌 사이 간격을 두고 깔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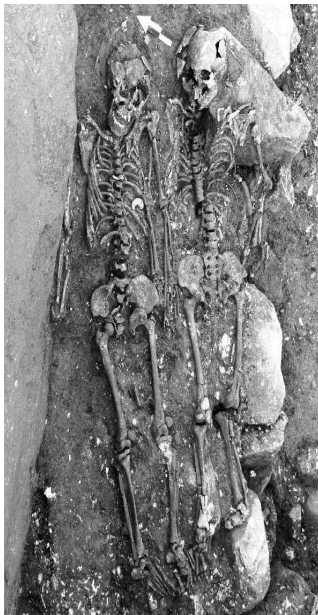
층전토는 목곽 네벽에 붙여서 직경 30cm이상의 큰 돌을 놓은 후 혼토패층과 적갈색점질토를 교대로 판축처럼 쌓았고 층전토 위에 큰 돌을 놓았다.

봉토는 층전토처럼 패각이 혼입된 층과 적갈색점질토를 교대로 쌓았는데, 적갈색점질토의 두께가 패각층들보다 훨씬 두껍다. 한편, 혼토패층에서 중광형동모가 수습되었고, 북쪽 층전토의 혼토패층 위에서 순장인골2구와 그 위로 적갈색점질토를 덮은 후 다시 순장인골1구가 놓여 있었다. 아래층의 순장인골의 머리에는 빗모양장신구가 확인되었고, 殉葬者 모두 頸飾과 刀子를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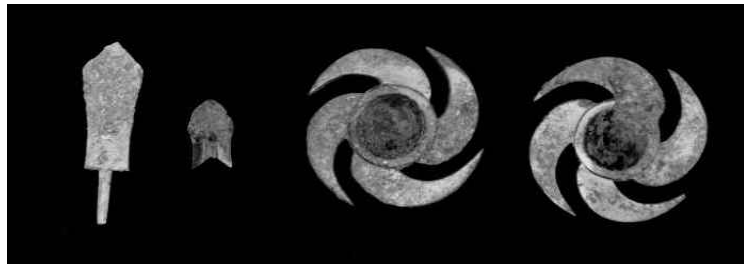
遺物은 木槨의 북쪽에서 土器4점, 有孔式鐵鏃群, 筒形銅器3점 등이 조사되었고, 양 장벽을 따라 巴形銅器5점과 6점이 각각 출토되었다. 巴形銅器 주변에서 紡錘車形石製品, 다량의 骨鏃과 鐵鏃이 출토되었고, 목곽 중앙의 동쪽부근에서 罽式帶金具가 조사되었다. 축조시기는 銅鏃과 巴形銅器의 형태에 의해 4세기3/4분기로 추정된다.



〈사진1〉 88호 전경과 순장자



〈사진2〉 88호 순장자



〈사진3〉 88호 동축 및 파형동기



〈사진4〉 88호 진식대금구

(2) 91호

주축방향은 거의 동서향으로 23호 木槨墓가 서남쪽 어깨선을 일부 파괴하였고, 목곽의 대부분은 도굴되었다.

墓壙의 규모는 길이 820cm, 너비 480cm, 깊이 90cm이며, 목곽의 규모는 길이 660cm, 너비 300cm다. 북쪽 장벽은 네 벽 중 유일하게 이단으로 굴광하였고, 바닥은 적색의 풍화화강암층을 다져 사용하였다.



〈사진5〉 91호 전경

충전토는 네 곳 모두 축조방법이 다르다. 북쪽 바닥에만 돌을 2단으로 놓고, 북쪽과 서쪽 최상층에 큰 돌을 넣었는데, 이는 88호 木槨墓의 충전토 구조보다 빠른 형식으로 보인다.

바닥에서 목곽흔으로 보이는 굽은 사립이 섞인 황색점토가 확인된다. 목곽내부는 전면도굴로 인해 교란되어 봉토흙을 보기 힘들지만, 서쪽 어깨선에 붙어서 殉葬者로 추정되는 인골2구가 충전토 상에서 조사되었다. 그리고 북서쪽 도굴갱에서 인골편이 확인되어, 殉葬者가 더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유물들의 잔존상태를 통해 주피장자는 목곽 중앙에 놓이고, 유물들은 주피장자의 사방에 놓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도굴이 일부에 그친 동쪽에서 殉葬者3인을 비롯, 爐形器臺와 短頸壺 set, 爐形土器, 철기농공구류, 金銅·靑銅製 馬具, 靑銅洗, 靑銅盥 등이 확인된다.

피장자의 좌우는 도굴에 의해 정확히 알 수 없고, 발치쪽인 서쪽에는 토기들을 다량으로 부장하였다. 남쪽 장벽 중앙부의 도굴갱에서 용문양이 투조된 운주2점과 다수의 금동제장식운주, 운모, 로만글라스편 등이 수습되었다. 축조유물들 중 특히 金銅製 및 靑銅製 馬具類들은 중국 慕容鮮卑(前燕)의 대표적인 무덤인 朝陽 袁台子壁畫墓와 安陽 孝民屯154호에 부장되는 것과 거의 같다. 축조시기는 중국의 이 두 무덤이 4세기3/4분기이고, 출토된 爐形器臺와 高杯가 古式인 점에서 대성동13호분과 동시기인 4세기2/4분기로 추정된다.

Ⅲ. 7차 발굴조사의 의의

1. 大形木槨墓인 88호와 91호는 무덤의 규모와 출토유물에 의해 왕급무덤에 해당한다.
- 2-가. 91호 출토 金銅·靑銅製 馬具類와 청동완 등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중국 慕容鮮卑 특히 前燕시대(337~370년)의 유물들이다. 특히 金銅製品들은 국내에서 출토위

치가 확실한 것 중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것들로, 기존에 5세기대에 金銅製品이 출현한다는 통설을 뒤엎는 획기적인 자료다. 그리고 이를 통해 대성동29호 도굴갱에서 수습된 金銅冠 역시 29호 출토품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6〉 대성동 91호 마구

2-나. 91호 金銅·靑銅製馬具類와 동일한 것이 조양 袁台子壁畫墓와 안양 孝民屯154호묘에서 출토되며, 이 두 무덤은 일반적으로 4세기3/4분기로 비정된다. 그러나 대성동91호분의 금동제방울과 방원형은주의 형식이 중국의 두 유적보다 한 단계 빠르기때문에, 91호의 연대는 4세기 2/4분기로 설정된다.

2-다. 앞의 유물들은 북방계유물이고, 91호의 칠기와 운모는 중원계유물로 추정된다. 또한 91호에서 서역계유물인 유리용기(로만글라스)편이 수습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알려진 경주 월성로 '가' 13호 출토 로만글라스보다 최대 70년 이상 빠른 것으로 보인다.

3-가. 88호의 바닥에서는 금동제대금구4점, 巴形銅器12점, 筒形銅器3점, 紡錘車形石製品2점, 동촉4점, 骨鏃군, 有孔式鐵鏃群, 철창, 이지창, 頸飾, 銀製·靑銅鞘尾金具 등이 출토되었고, 봉토에서 중광형동모가 수습되었다. 파형동기는 왜를 제외하면 대성동고분군에서만 부장되는데, 한일 양국에서 12점이 부장된 예는 대성동고분군이 유일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 파형동기+통형동기+방추차형석제품+동촉의 조합이 발견된 예가 한 곳도 없다.

3-나. 金銅製帶金具는 문양구성 등에 의해 晉代의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의 晉式帶金具는 전 풍납토성, 몽촌토성, 화성 사창리, 전 영주, 전 용성출토품이 알려져 있는데, 이중 몽촌토성 85-1호 수혈 출토품만이 출토지가 명확할 뿐이다. 대성동88호와 91호의 중국계유물들은 삼연을 통해 금관가야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진식대금구와 로만글라스, 칠기는 동진과의 교류를 통해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두 무덤이 조사되기 전까지는 대성동고분군의 최상위층의 위세품으로 파형동기나 통형동기, 왜계석제품 등 왜계유물들이 주목받아 왔으나, 이러한 금동제품들이 최상위지배층의 무덤에 왜계위세품들과 함께 부장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성동고분군의 최상위지배층의 무덤들은 모두 주피장자와 그 주변에 도굴이 매우 심한데, 아마도 이곳에 중국계유물들이 부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4. 대성동고분군의 구조와 장제를 알 수 있는 양호한 자료가 검출되었다. 무덤의 충전토에 장벽 한쪽이지만 큰 돌들을 의도적으로 넣은 것이 처음으로 91호에서 확인되었고, 다음 단계인 88호에는 충전토 네 곳 모두에 큰 돌을 의도적으로 넣은 것이 조사되었다. 또한 충전토에 殉葬者가 확인된 것은 대성동고분군 뿐만 아니라 금관가야에서는 처음이다. 이러한 충전토에 순장자가 처음으로 확인된 유적은 고령 지산동 73호와 75호인데, 이들보다 대성동88호와 91호가 70년 이상 앞서기 때문에 소위 '대가야식순장'의 원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렇듯 木槨墓의 묘제와 장제 연구에서도 이 두 木槨墓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5. 이렇듯 화려한 중국계유물과 일본의 중요 위세품들이 대성동고분군에 계속 부장된다는 것은 금관가야가 동아시아 교역의 중심축 중에 하나였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유물들이 부장되는 곳에 철정이 부장되는 점에서 철이 교역의 중요한 매개체였을 것이다.

가야의 철기문화

- 가야갑옷의 이해

김혁중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I. 머리말

철은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이지만 고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로 이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여러 제품들은 사회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가야는 고대국가 대부분이 그렇듯이 철제품의 발달을 이용하여 국가 발전을 이루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와 같은 철제품은 고대국가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었는데, 생산과 관련된 철제농공구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철제품에서 단연코 중요한 물품은 무기와 무구이다. 왜냐하면 당시 삼국은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자주 하고 있었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우수한 무기·무구가 제작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야 역시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에 따라 각종 무기와 무구를 제작하였으며, 오늘날 이들 무기와 무구가 가야의 여러 무덤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가야의 철기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초석으로 가야의 갑옷에 대해서 종류와 특징 그리고 관련된 역사적 의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려고 한다.

II. 가야 갑옷의 종류와 특징

철제 갑옷은 몸을 보호하는 부위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하다. 몸통을 보호하는 갑옷은 판갑과 찰갑이 있으며 머리를 보호하는 갑옷은 투구로 구분한다. 또한 팔, 목, 정강이 등을 보호하는 갑옷을 부속구로 명칭하며 경갑, 쾡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을 형태와 구조를 고려하여 세부적인 명칭이 불리어지는데 가야에서 출토되는 갑옷으로는 판갑은 종장판갑과 대금계판갑이 있으며 투구는 종장판주, 소찰주, 차양주, 충각부주가 있다. 그리고 찰갑은 동환식찰갑과 양당식찰갑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모두 가야에서 확인된다. 이중 종장판갑과 종장판주는 가야에서 많은 수량이 출토되는 주요 갑옷이다. 이번 장은 이러한 갑옷에 대하여 구조와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려고 한다.

1. 투구

투구는 뼈대의 형태에 따라 크게 종장판주, 소찰주, 차양주, 충각부주로 구분된다.

1) 종장판주

종장판주는 반구형의 복발에 세로로 긴 지판을 연결하여 본체를 이루는데 철판의 만곡상태에 따라 안으로 휘어진 것을 종장판주로, S자형으로 휘어진 것을 만곡종장판주로 부른다.

종장판주는 한반도의 여러 고분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어 널리 사용된 투구이다. 또한 이 투구는 중국 동북지방에서 고구려와 많은 영향관계가 있던 삼연에서도 널리 사용된 투구이다. 또한 종장판주는 철제갑옷이 출현하는 시기에 생산되어 가장 늦게 까지 이용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투구라고 할 수 있다.

4세기대에는 주체를 구성하는 지판의 넓이가 커서 12~20매 정도이며 뒷목가리개가 없고 불가리개도 여러 매가 아닌 한판 혹은 2~3매 등을 이어붙인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후 5세기대가 되면 지판이 얇아져서 30~50매 정도를 이루며 뒷목가리개나 불가리개가 찰갑의 형태와 유사한 소찰을 이용하여 만들어진다. 특히 가야의 종장판주는 불가리개가 하나 혹은 두세개의 지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대성동 57호 출토 종장판주처럼 장식은 하는 경우도 있다.

2) 소찰주

소찰주는 투구를 구성하는 철판의 형태가 사각형, 오각형 등의 작은 소찰로 구성되며 타원형의 복판과 복발이 있다. 소찰주가 이용된 지역은 고구려, 백제, 가야로 판단되나 현재 백제에서는 아직 그 출토예가 없다. 이러한 소찰주는 중국 중원 및 동북지방에서 철제 갑옷이 제작되던 시기부터 확인되는 투구로 중국 중원 및 동북지방에서 제작기술을 수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제작방법의 차이로 보아 종장판주와는 별도의 계통으로 판단된다. 현재 실제 유물로 함천 반계제 가-A호, 함천 옥전 M3호, 구리 아차산 4보루에서 출토된 것과 한남대 소장품이 있으며 고구려 벽화 중 삼실총에 그 형태가 그려져 있다. 또한 한남대 소장품의 경우 여타 철제갑주와 달리 금동으로 제작되어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있다.

3) 차양주와 총각부주

차양주와 총각부주는 한반도에서 적은 수량이 확인되는데 뒤에 살펴볼 판갑 중 대금계판갑과 더불어 왜계 갑주로 언급되는 갑옷이다.

차양주는 반구상의 주체 앞에 반원형의 챙을 붙인 현대의 모자와 유사한 형태이다. 투구 상부의 복판과 중위, 하위의 대판이 뼈대이며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모양의 철판을 때꾼 것이다. 복판의 상부에는 반국자형의 복발이 있고 복발의 정점에 관과 연결된 수발이 있다. 부산 연산동고분군, 김해 삼계동 두곡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고흥 안동 고분군에서 출토되었다.

총각부주는 투구의 평면형태가 살구모양으로 투구 상부에서 앞쪽으로 튀어나온 주걱모양의 복판이 있다. 차양주와 유사하게 복판과 중위, 하위의 대판을 뼈대로 그사이에 삼각판, 직사각판 등의 여러 가지 모양의 철판을 메꾸어 제작하였다. 철판의 연결방법은 차양주가 못만으로 연결된 반면에 총각부주는 가죽끈이나 못을 이용하여 연결하였다. 함양 상백리 고분군, 부산 오륜대 고분군, 고령 지산동 고분군, 김해 죽곡리 고분군 등에서 출토되었다.

2. 판갑

판갑은 찰갑이 작은 철판인 소찰 여러 매를 연결해서 만든 것과 달리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고 적은 매수의 철판을 이어붙인 갑옷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판갑도 사용하는 철판의 형태에 따라 종장판갑, 장방판갑, 삼각판갑, 횡장판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 종장판갑을 제외하고는 장방판갑, 삼각판갑, 횡장판갑은 일본열도에서 제작된 갑옷으로 보는 견해가 많으며 이를 통칭해서 ‘대금계 판갑’으로 부른다. 또한 출현시기와 사용시기도 종장판갑은 4세기대이며 나머지 판갑은 주로 5~6세기대까지 사용된 점에 차이가 있다.

가야의 대표적 갑옷인 종장판갑은 철판의 형태가 세로로 긴 종장형을 띤 갑옷이다. 철판의 연결방법은 가죽 끈을 이용하거나 납작한 못으로 고정한 방법이 있다. 종장판갑은 발생초기부터 소멸기의 갑옷과 비교할 때 상당히 정형화된 형태여서 이전 시기에 사용된 가죽갑옷 혹은 나무갑옷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 갑옷은 초기의 제작품에서 보이는 나팔형의 목가리개를 통해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종장판갑은 단순히 철판만 연결한 것이 아니라 새털과 같은 장식을 목이나 어깨 부분에 달아 위엄을 자랑하였으며 당시에 유행한 고사리 모양의 꺾수문 장식, 새장식을 붙이기도 하였다.

3. 찰갑

찰갑은 일정한 크기의 소찰을 횡 또는 종으로 연결하여 상하 유동성을 가지도록 한 갑옷이다. 찰갑은 동일한 형태의 소형 철판이 수 백매가 필요하므로 여러 명이 제작에 참여하는 노동 집약적 생산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찰갑은 삼국 중 고구려가 가장 먼저 제작하기 시작하여 신라, 백제, 가야로 퍼져나갔는데 가야는 5세기 이후에 주요 무장으로 이용하였다.

이와 같은 철제갑옷이 출현한 4세기 혹은 3세기말의 초기형의 찰갑은 5세기 이후의 갑옷과는 그 형태에 차이가 있다. 초현기의 대표적인 찰갑은 가야의 경우 복천동 38호 출토품을 들 수 있다. 이 찰갑은 소찰의 형태가 크고 신체의 곡률을 고려하여 허리 부분에 곡률을 두는 5세

기대의 찰갑과 달리 방형의 소찰로 제작되었다. 이후 5세기에 가야의 대표적인 찰갑으로 볼 수 있는 옥전 고분군 출토 찰갑을 보면 소찰의 형태가 작아지고 허리 부분의 경우 다른 부위의 찰갑과 달리 'S' 자형 혹은 'Q' 자형의 만곡된 소찰이 이용된다. 또한 초현기 찰갑에 없었던 각종 부속구 즉 정강이나 팔뚝을 가리기 위한 것들이 제작된 것에 큰 변화가 있다.

이와 같은 찰갑의 변화와 채용은 전신을 갑옷으로 무장하는 중장기병의 출현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기마 전술과 같은 전쟁 전술의 변화와 연관되어 중요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

Ⅲ. 가야 갑옷의 역사적 의의

앞서 언급한 이와 같은 다양한 갑옷은 당시의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문헌에서 언급된 사실의 확인이나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중장기병의 출현과 당시 한반도에 출토된 왜계 갑주에 대한 이해를 들 수 있다.

1. 중장기병의 출현과 고구려 남정

갑옷으로 무장한 말과 무사가 전장으로 돌진하는 모습을 쉽게 우리는 상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소위 중장기병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무사가 삼국시대에 실존하였는지 궁금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중장기병은 삼국시대에 실존했던 것으로 유물이나 문헌 그리고 벽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삼국시대의 기병 또는 기병전술과도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문헌과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연구를 참고하면 기병단독전술과 보기합동전술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기병단독전술에서는 일대일 기병전술, 기습전술, 추격전술, 충격전술로 세분할 수 있다고 한다. 이중 중장기병과 관련이 있는 전술은 충격전술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중장기마전술의 본격적인 도입은 승마용제어구인 재갈보다는 안정구인 안장과 등자의 출현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중장기마전술에 필요한 갑주는 찰갑이며 안악 3호분의 개마무사에 표현된 갑주로 보아 경갑 등의 부속구가 구비된 찰갑이다. 가야는 5세기에 이르러 확인되는 마주, 마갑의 출현과 함께 안정구인 등자와 안장이 출토되므로 중장기병이 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가야는 중장기병을 통한 전술이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중장기병과 관련된 유물이 출토되는 고분을 보면 알 수 있다. 중장기병과 관련된 마주, 마갑 그리고 찰갑등이

공반되어 출토된 고분은 중소형분보다 대형분이며 이것이 대부분 최고지배자 또는 지배계층에 속한다는 점에서 기병으로 무장할 수 있는 계층이나 숫자가 매우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가야는 고구려나 백제와 달리 대규모의 기병집단이나 밀집중장기병대를 보유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단순히 왕 또는 최고지휘관을 중심으로 소수의 중장기병이 운용되었을 것이다.

2. 가야 갑옷 출토 왜계갑주

앞에서 언급한 갑옷 중 왜계갑주로 판단되는 것은 차양주, 충각부주, 장방관갑, 삼각관갑, 횡장관갑이다. 이들 갑옷은 일본에서는 대금계갑주로 통칭하고 있다. 또한 찰갑 중에서도 왜계 피장자가 문헌 유적으로 판단되는 유적에서 왜인이 제작한 찰갑도 출토되고 있다.

과거 이들 왜계 갑주가 잘못된 역사인식인 임나일본부의 배경으로 설명되는 점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출토된 여러 유물 등을 통해서 임나일본부는 허구임이 밝혀진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왜계 갑주의 출현에 대해서는 교류에 의한 물품으로 보는 경향과 물품이외의 정치적 목적과 관련하여 해석하는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후자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보면 군사적 동맹관계에 의한 산물로 보거나 매장의례의 과정에서 군사적인 과시를 필요로 하는 계층이 입수한 물품으로 보는 점으로 나뉜다.

가야는 이들 왜계 갑주의 분포 범위나 수량이 신라나 백제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물론 당시 왜와 활발한 교류에 의해서 생겨난 산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갑옷은 생활물품과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이들 왜계 갑주의 분포범위나 수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당시의 한일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가야에서 이러한 갑주가 출토되는 배경을 좀 더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IV. 맺음말

삼국시대의 여러 유적 중 고분에서 출토된 각종 철제품은 당시의 기술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그중 각종 무기와 무구는 기술 수준 뿐 만 아니라 삼국이 당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었음을 문헌자료로는 볼 수 없는 생생한 실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가야 역시 그 독자적인 세력을 지켜가기 위해 철로 된 각종 방어구를 끊임없이 개량하고 있었음을 위에서 언급된 여러 갑옷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갑옷으로 당시 철 제작 기술을 엿볼 수 있어서 ‘철의 왕국’의 면모를 조금이나마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혁중, 2011, 「한반도 출토 왜계 갑주의 분포와 의미」 『중앙고고연구』 제8호.
- 류창환, 2010, 「삼국시대 기병과 기병전술」 『한국고고학보』 76.
- 이현주, 2010, 「한국 고대갑주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의 고대갑주』, 복천박물관.
- 송정식, 2008, 「종장판갑의 제작공정과 기술변화 연구」 『한국고고학보』 69.
- 장경숙, 1999, 「영남지역 출토 종장판주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복천박물관, 2009, 『한국의 고대갑주』.
- 복천박물관, 2001, 『고대전사 - 고대전사와 무기』.

아라가야의 토기생산

이정근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

1. 가야토기란?

기원 후 3세기 말 또는 4세기 초, 가야지역인 낙동강하류를 중심으로 회청색의 아주 단단하고 이전과는 다른 형태에 새로운 제작기술로 만들어진 토기가 등장한다. 소위 ‘고식도질토기 古式陶質土器’라 불리는 것이다. 이러한 토기는 온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굴가마(密閉窯)의 사용, 소성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가야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점진적으로 발전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에서 새로운 기술의 유입에 따라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점에 만들어진 토기는 소성 방법에 있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이후 고식도질토기에서 가야토기와 신라토기로 분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도질토기는 이전 토기에 비해 고온으로 소성되어 단단하며, 대표적인 것으로 공자工字모양 고배, 화로모양의 그릇받침 등이 대표적인 기종이다. 이러한 형태의 토기는 100여 년간 낙동강 하류 뿐 아니라 영남전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때문에 영남전역이 비슷한 토기가 만들어지고 사용되었다는 ‘고식도질토기 공통 양식론’이 등장하기도 하였고, 이에 반대되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외부에서 유입된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발전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쟁은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고식도질토기는 낙동강하류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고, 신라와 가야토기로 분화되는 5세기 초까지 만들어진 토기이며, 가야와 신라토기가 고식도질토기에서 발전 분화된 것이라는 점에 있어 공통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가야와 신라토기의 형태적 차이점은 동일 기종 간 모양이나 문양 등을 통해 구분이 가능하지만, 무엇보다도 신라토기에 비해 가야토기가 고식도질토기의 전통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고식도질토기단계를 가야토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 가야토기는 4세기에서 6세기까지 지금의 경상남도와 부산지역, 경상북도 일부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사용된 토기를 말한다. 시간적으로는 고식도질토기의 등장에서부터 가야가 신라에 멸망하기 전까지, 공간적으로는 가야의 각 세력이 존속하였던 곳에서 만들어지고 사용된 토기라 할 수 있다.

2. 가야토기? 신라토기?

회청색경질토기(또는 도질토기, 이하 도질토기라 칭함)가 영남지방에 등장한 이후 약 100년간을 신라-가야토기 분화 전 단계 또는 고식도질토기단계라 부르고 있다. 간단히 영남전지역이 비슷한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던 시기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간을 거쳐 5세기부터는 가야와 신라의 토기가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분화된 신라와 가야토기는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가야토기와 신라 토기는 굽다리접시, 그릇받침, 목항아리 등에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투창이나 새겨진 문양 등 세부적인 차이보다도 ‘가야토기는 곡선, 신라토기는 직선적이다’라 이해하는 것이 보다 쉬운 구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신라의 목항아리는 몸통과 목이 연결되는 부분이 각을 이루고 목이 직선으로 처리되었지만, 가야는 목과 몸통의 이음새가 불분명할 정도로 부드럽게 연결되고 목도 밖으로 벌어지는 곡선으로 처리되었다. 또, 굽다리접시도 가야의 것은 굽다리가 나팔상으로 벌어지는 곡선이다. 고식도질토기의 전통을 보다 충실하게 따르고 있는 5세기 이후의 가야토기는 부드러운 곡선의 미를 살려 정감이 있으면서도 세련함을 느끼게 한다.

3. 여러 모양의 가야토기

이렇게 신라와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가야토기이지만, 가야지역 안에서도 각기 다른 모양의 토기를 만들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금관가야, 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토기가 있다.

가야토기의 발생지 - 구야국(狗倻國, 금관가야)

낙동강 하류지역을 중심으로 가장 먼저 도질토기가 만들어졌던 지역으로, 밖으로 벌어지는 입술을 가진 굽다리접시와 손잡이가 달린 화로모양토기가 대표적이다. 토기표면은 회흑색을 띠는 것이 많이 보인다.

당당하였던 가야의 기상을 담고 있는 토기 - 반로국(半路國, 대가야)

지금의 경상북도 고령을 중심으로 하는 대가야에서는 다른 가야에 비해 직선적으로 만들어져 당당함이 느껴진다. 낮은 배신에 장방형의 투창이 일렬로 뚫린 굽다리접시, 세로로 된 긴 띠를 장식한 원통모양그릇받침, 뚜껑받이 턱이 있는 목항아리가 대표적이다.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들어진 토기 - 안라국(安羅國, 아라가야)

지금의 함안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아라가야에서 만들어진 토기는 가야토기의 특징인 곡선미를 극치를 보여준다. 낙동강하류지역과 함께 일찍부터 도질토기를 만들기 시작한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불꽃모양의 투창이 있는 굽다리접시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소박하면서 절도 있는 토기 - 고자국(古自國, 소가야)

지금의 고성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소가야에서 만들어진 토기는 다른 지역에 비해 소박하게 만들어졌다. 아가리가 수평을 이루는 바리모양 그릇받침과 목항아리, 긴 네모꼴의 투창이 있는 굽다리접시가 대표적이다.

4. 고식도질토기 단계 아라가야의 토기 제작기술

1) 아라가야 토기가마유적

함안지역에서 발굴조사된 대표적인 토기가마유적으로는 우거리와 묘사리토기가마가 있다. 묘사리가마유적은 가야읍 묘사리 윗장명 1416번지 일대로 경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해 가마 2기와 폐기장이 확인되었다. 1호 가마는 잔존 길이 5m, 폭 2.3m, 깊이 0.9m 규모의 등고선과 직교하는 무계단식 등요로 소성부 일부와 연소부는 삭평되어 전체규모를 알 수 없다. 2호 가마는 잔존 길이 6.5m, 폭 1.6m, 깊이 0.25m인 무계단식 등요이며, 이 가마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져 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 출토되는 유물은 승(석)문타날단경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 노형토기, 쪼갬토기, 통형고배, 시루, 연질발과 함께 제작도구인 內拍子 등이 출토되었다. 가마의 조업 연대는 4세기 2/4분기~5세기 1/4분기까지로 보고되었다¹⁾.

묘사리가마유적에서 북서쪽으로 1.4km 떨어진 우거리 215번지 일대에 우거리토기가마가 있다. 국립김해박물관에 의해 3기의 토기가마와 폐기장 등이 조사되었다²⁾. 1호 가마는 대부분 삭평되어 길이 7.3m, 최대폭 1.8m 규모의 열을 받아 붉게 산화된 암반만이 확인되었다. 2호 가마는 1호 가마에서 서쪽으로 4.0m 떨어져 확인되었다. 길이 6.6m, 최대너비 1.9m이다. 풍화암반층을 등고선과 직교되게 굴착하여 만든 타원형의 무계단식 등요이다. 3호 가마는 2호 가마에서 서쪽으로 4.5m 거리를 두고 확인되었다. 남아 있는 규모는 길이 5.8m, 최대너비 1.6m 가량이다. 풍화암반층을 등고선과 직교되게 긴 타원형으로 굴착하여 만들어진 무계단식 등요이다.

폐기장은 2호 가마에서 남쪽으로 6m 가량 떨어져 있으며, 생토층을 굴착하여 만든 부정형의 수혈에 많은 토기편, 소토, 벽체편, 재 등이 퇴적되어 있었다. 폭 5.0m 미만의 부정형 수혈이 연결되어 있는데, 조사된 규모는 길이 17.0m, 최대폭 8.0m, 최대깊이는 1.3m 가량이다. 출토

1) 慶南文化財研究院, 2002『咸安 苗沙里 윗 長命 土器가마 遺蹟』

2) 國立金海博物館, 2007, 『咸安于巨里土器生産遺蹟』

되는 유물은 승(석)문타날단경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형단경호, 대호, 통형고배, 완, 유문개, 노형토기, 꺾형토기, 연질발, 시루, 방추차, 등과 함께 제작도구인 내박자가 출토되었다. 가마의 조업 연대는 4세기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지표조사에서 토기가마유적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천제산의 능선을 따라 10여 개소의 토기가마유적이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고식도질토기단계(4세기 중후반)의 가마유적으로 조사된 가마유적과 비슷한 성격으로 보인다³⁾. 함안지역에서 발굴조사된 대표적인 토기가마유적으로는 우거리와 묘사리토기가마를 비롯하여 지표조사를 통해 10여개소가 넘는 토기가마유적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토기가마유적은 범수면일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대부분 4세기대에 조업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묘사리와 우거리에서 확인된 가마유적은 2~3기의 가마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배치되어 있다. 가마는 길이 7m내외의 평면 타원형인 굴가마이며 가마내부와 폐기장 출토유물로 보아 고식도질토기단계에 해당한다. 비슷한 시기 영남지역의 토기가마로는 창녕 여초리에서 2기, 경산 옥산리에서 1기가 조사되었다. 가마는 길이가 10m이상으로 매우 길고, 각 한 기의 가마만 확인되었다. 주요 생산토기는 함안지역은 단경호의 비율이 높고, 여초리는 대호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2) 토기제작기술 복원을 위한 접근 방법

토기에 대한 연구는 주로 형식분류를 통한 편년, 토기문화권 설정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토기는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속성만으로 토기를 이해하려 하고 더 나아가 정치사를 비롯한 복잡한 과거문화를 설명하려 한다. 토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릇에 남은 흔적들을 관찰함으로써 토기 생산 기술을 파악할 수 있음에도⁴⁾ 이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토기’ 자체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기가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⁵⁾. 토기에 대한 연구는 무엇보다도 토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어떻게 폐기되었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국립김해박물관, 2005 「함안 우거리토기가마 발굴」 『연보 2004』
國立金海博物館, 2007, 「咸安于巨里土器生産遺蹟」

4) 이성주 옮김, 2008, 『토기연구법』, 도서출판考古, p270

5) 이와 관련하여 白井克也는 토기연구는 토기를 분류 · 편년하는 것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며, 좀 더 자세히 분류하는 것이 토기연구의 사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편년에 이용하기 어려운 속성의 잘라버림이 횡행하고 토기자체에 대한 연구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1개체의 토기 중에 고착된 공인의 수많은 행위를 해명하고, 행위를 연결한 질서를 앞에 의해서 선인의 ‘행동’에 통찰이 가능하게 됨을 주장하고 있다(白井克也 1996: 335).

가야토기는 단순히 이전의 원삼국시대原三國時代와 다른 형태로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성형기술과 소성기술이 적용된 결과라는 것에서 중요하다. 특히 소성기술의 측면에서는 보다 높은 온도로 구웠는데,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가마의 축조, 높은 온도에서 토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불을 조절하는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토기는 태토의 준비에서부터 성형, 건조, 소성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각 과정에 적용된 기술의 완벽한 복원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유물로 남겨진 토기의 관찰을 통해 토기제작기술의 복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토기제작기술에 대한 접근은 아직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소성방법과 소성기술에 대해 연구를 중심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⁶⁾. 소성기술에 대한 접근은 토기의 찌그러짐과 부착된 이물질, 토기단면 상태, 토기 표면에 남겨진 흔적 등을 통하여 가능하다. 토기에는 다양한 문양을 새기기도 한다. 문양은 토기를 제작한 도공이 의도가 직접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에 비해, 도공의 의도와 관계없이 토기표면에는 소성과정에서 다양한 흔적이 남게 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종규는 토기표면 상태를 태胎 - 막膜 - 윤潤 - 유釉 - 비산飛散의 5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⁷⁾. 이 5단계는 큰 틀에서 볼 때 소성온도의 차이에 따른 변화이며, 1개체의 토기에 모두 나타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쉽게 구분하는 것이 자연유自然釉이다. 인공적으로 유약을 바르지 않았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연유가 만들어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알려져 있다. 하나는 토기제작 원료인 태토胎土속에 포함된 규산 등의 성분이 소성과정에서 녹아 토기표면에 형성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성과정 중 가마 안으로 유입된 재가 토기표면에 붙은 뒤 높은 온도에서 녹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토기를 관찰해 보면 재에 의해 형성된 자연유는 특정 부위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가마 속 모습을 복원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윤이나 막은 자연유보다 낮은 온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두터운 층을 형성하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토기표면상태의 관찰을 통해 토기가 가마의 어느 부분에 놓였는지, 어떻게 놓였는지를 추적해 볼 수 있다.

토기를 가마 안에 넣어 구울 때 사용된 도구인 이상재離床材, 이기재離器材도 가마속에 토기를 놓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이상재離床材는 가마의 바닥과 토기가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기바닥에 놓았던 것으로 짚과 같은 초분류가 많으며, 점토덩이나 돌, 토기편 등도 사용하였다. 이기재離器材는 토기와 토기 사이에 끼운 것으로, 짚이나 나뭇가지를 비롯하여 장고

6) 홍진근, 2003, 「三國時代 陶質土器의 燒成痕分析」, 『삼한·삼국시대의 토기생산 기술』, 제7회 복천박물관 국제학술대회
李政根, 2012, 「토기 재임방법에 대한 검토」 『嶺南考古學 60』

7) 崔鐘圭, 2001, 「고찰 3. 陶質土器의 表面觀察」, 『昌寧桂城新羅高塚群』, 慶南考古學研究所.

나 고리모양 등으로 특별히 만든 도구도 사용되었다. 이상재와 이기재는 토기를 구울 때 토기가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당시 토기 소성기술의 발달과 대량생산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5. 아라가야 토기생산의 특징

토기표면관찰을 통해 살펴본 고식도질토기 단계의 아라가야토기는 형태적인 특징 뿐 아니라 소성방법에 있어 주목할 만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토기표면관찰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통해 토기의 재임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⁸⁾. 우선 토기는 가마 안에 놓는 방법(소성각)에 따라 바로 놓는 정치定置, 옆으로 놓는 횡치橫置, 거꾸로 놓는 도치倒置之의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상태로 토기를 가마에 놓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토기표면 관찰을 통해 살펴본 소성각은 횡치 및 도치도 상당수가 확인된다. 또, 토기를 가마바닥에 한단만 놓은 경우도 있지만, 2단 이상 중첩重疊하여 소성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중첩은 일반적으로 5세기 중엽이후 고배-고배, 고배-뚜껑과 같은 기종구성을 보이며 사용된 소성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4세기대 아라가야토기에서도 많이 관찰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성각과 중첩여부를 기준으로 가마내 토기재임방법을 단경호정치소성법短頸壺定置燒成法과 단경호횡치전향소성법短頸壺橫置前向燒成法으로 구분하였다. 단경호정치소성법은 다시 단경호를 정치하고 고배와 같은 소형토기를 중첩하지 않는 것과 소형토기의 중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두 가지 단경호정치소성법은 토기생산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토기 재임방법이 변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5세기 이후 고배와 같은 소형토기의 중첩이 확인되며 이전 방법에 비해 소형토기를 보다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재임방법이다.

이에 비해 단경호횡치전향소성법은 매우 독특한 재임방법이다. 단경호를 옆으로 놓고 구웠다는 것은 어쩌면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이 시기의 함안지역에서 출토된 단경호를 관찰해 보면 아가리를 가마의 입구(火口)향하도록 옆으로 놓고 그 위에 다시 단경호를 중첩重疊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윗 단의 단경호 위에 고배나 노형토기, 단경호 안에는 컵형토기 등을 넣기도 한다. 비슷한 시기 다른 영남지방에서는 고배와 고배의 중첩이 일부 확인되지만, 단경호는 아가리가 가마의 천장을 보도록 바로 놓고 중첩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한 것과 차이가 있다. 우거리 가마유적을 통해 볼 때 가마의 규모와 단경호 표면관찰을 통해 단

8) 李政根, 2012, 「토기 재임방법에 대한 검토」『嶺南考古學 60』

경호는 최대 3단까지 중첩하였다. 또 단경호위에는 노형토기나 고배, 소형호를 중첩하고 단경호 안에는 꺾형토기를 놓기도 하였다. 이러한 재임방법은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건데 영남지방에 있어 고식도질토기단계 함안지역의 우거리 가마유적 뿐 아니라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4세기대 토기가마유적과 무덤에서 출토된 토기에도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이후 5세기 이후에는 소형토기를 중첩하고 단경호는 정치하고 중첩하지 않는 방법의 바뀌게 된다. 한편 단경호횡치소성법은 최대 100년간의 공백기를 거친 다음 영산강유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고식도질토기단계의 함안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른 소성방법을 사용한 것일까? 이는 각 소성방법의 특징을 통해 작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소형토기의 중첩은 소형토기의 수요가 증가(예를 들어 고분 부장용 토기수요의 증가)하는 사회적 상황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⁹⁾. 중첩을 한다면 한 번의 소성작업으로 보다 많은 토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단경호를 중첩하였다는 것은 중첩하지 않은 것에 비해 더 많은 단경호를 생산하기 위한 도공의 의도에 의해 적용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중첩하였다면 우거리 2호 가마 규모의 가마에서 한 번의 소성작업으로 약 117점의 토기를 생산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약 90점(77%)이 단경호, 고배나 노형토기 등 다른 기종은 27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비율은 우거리토기가마유적에서 확인되는 단경호의 비율(78%)와 거의 유사하다. 이에 비해 중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60여점 중 단경호가 약 30점(50%)으로 추정되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¹⁰⁾. 그만큼 단경호 횡치소성법은 더 많은 토기(특히 단경호)를 생산하기 위해 적용된 재임방법이며, 이것은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함안지역 토기가마유적에서 단경호 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 경상도지역 뿐 아니라 전라도지역에서도 함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단경호가 많이 확인되는 점을 통해서도 함안지역은 단경호를 많이 생산하고 이를 넓은 지역에까지 유통¹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시기 함안지역에서 출토되는 단경호에는 도부호陶符號가 많이 확인된다. 이러한 도부호는 토기의 대량생산과 관련성을 가지는데, 주로 5세기 중엽 이후 고배와 같은 소형토기에 많이 보인다. 하지만 고식도질토기단계 함안지역에서는 소형토기보다는 단경호를 중심으

9) 홍진근, 2003「三國時代 陶質土器의 燒成痕分析」『삼한·삼국시대의 토기생산 기술』제7회 복천박물관 국제학술대회

10) 李政根, 2012, 「토기 재임방법에 대한 검토」『嶺南考古學 60』

11) 물론, 이러한 단경호를 함안지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전 영남지역이 비슷한 형태의 토기(단경호)를 생산하였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함안지역 이외에 이러한 형태와 제작방법으로 단경호를 생산하던 가마는 확인되지 않았다.

로 도부호가 많이 확인(기종별로는 약 76%가 단경호에서 확인)되며, 확인된 도부호의 종류는 30여종에 이른다. 도부호는 그 의미에 대하여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동일한 가마에서 토기를 소성하던 여러 공인이 소성 후 자신이 만든 토기의 구별을 위해 새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²⁾.

※ 본 글은 제한된 분량과 강의용으로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 필자의 拙稿부분을 편집하거나 간단하게 요약하였습니다. 때문에 인용문헌 누락, 비논리적인 전개, 충분한 설명 누락 등이 많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 宋桂鉉, 2001, 「加耶·新羅의 文字와 記號遺物」 『한국고대의 문자와 기호유물』 국립청주박물관 특별전도록
李政根, 2006, 「咸安地域 古式陶質土器의 生産과 流通」 嶺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가야와 일본열도의 교류

하승철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자료연구실장

I. 머리말

중국-한반도-일본의 교류는 선사시대 이래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그 흐름은 한결같지 않았는데 때론 장기간 막혀 있기도 하고 때론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넘쳐났다. 그러한 교류는 서로에게 자양분이 되어 역사발전을 이끈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교역에 관계했던 다양한 집단들은 교류 객체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부침(浮沈)이 나타난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문물의 창구였던 낙랑·대방군이 쇠퇴함에 따라 주요 교역대상지인 남해안지역의 늑도, 김해 양동리세력이 몰락하게 되었고 뒤이어 김해 대성동세력과 일본열도의 정치적 구심체인 야마토(大和)정권이 교역의 중심 파트너로 부상한다. 김해 봉황동 유적에서 확인된 항구와 고상가옥, 김해 율하지구의 선착장과 도로시설은 김해가 가야의 대외교역항으로 번성하였음을 고고학적으로 확인시켜 준 획기적인 증거이다. 특히 2010년 김해 구산동유적에서 확인된 일본 야요인들의 집단 취락은 김해의 국제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가야시대는 선사 이래 한반도와 일본열도 간의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이다. 일본의 고분시대를 선도한 제철, 금공, 마(馬) 문화, 토기, 토목은 한반도에서 수입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가야에서 파견된 공인들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가야와 왜의 교류는 3세기 후반~5세기 전엽(1기), 5세기 중엽~6세기 중엽(2기)의 시기로 나뉘 볼 수 있는데 1기는 낙동강하류의 김해, 부산 등 금관가야로 일원화되어 있었고 2기는 고령, 창녕, 함안 등 내륙의 가야 각지로 다원화된다. 특히 2기에는 왜-가야-마한·백제로 이어지는 서남해안교역로가 부각되는 것이 주목된다.

본 강의에서는 일본 고분시대의 토기인 하지키(土師器)와 스에키(須惠器) 그리고 일본열도와 관계깊은 왜계고분(倭系古墳)을 통해 가야와 일본열도의 교류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II. 가야와 왜의 교류(3세기 후반~5세기 전엽)

기원전후한 시기부터 3세기 후반대까지 한반도 남해안 지역의 교류는 거점별 정치체에 의해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중 김해 양동리유적에 중국과 왜의 유물이 집중 출토된다.

4세기부터는 김해 대성동이 중심 교역지로 부상하는데 통형동기를 비롯한 각종 석제품은 김해 대성동, 양동리, 부산 복천동고분군 등 금관가야 핵심고분과 일본 긴키지역에 집중분포하고 있어 금관가야 수장층과 일본 기내세력이 긴밀히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수장층의 교섭과 더불어 일반민들의 교류도 빈번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일상생활품인 왜의 하지키는 부산 동래패총을 비롯하여 김해, 창원 등 남해안 일대의 유적에서 다량 출토되고 있다. 아라가야권역인 마산 현동유적, 대평리고분군에서도 출토예가 보고되어 있고, 소가야권인 고성패총, 신라의 경주 월성로고분군과 경산 임당, 마한지역인 광양 용강리 석정유적, 광주 소명동, 군산 여방리 남전 패총 등에서도 하지키가 출토되지만 분포의 중심은 금관가야권으로 나타난다. 3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엽의 왜계자료 중 90% 이상이 금관가야권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하지키를 비롯한 왜계문물은 동시기의 신라, 백제계 유물에 비해 출토수량이 월등히 많은데 동래패총의 경우 외래계토기의 80%이상이 왜계토기임이 밝혀져 있어 금관가야는 왜와의 교역에 중점을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목되는 것은 왜계 하지키는 반입품과 현지 모방품이 있고 생활유적은 물론 무덤에서 출토되고 있다는 점인데 왜인들이 이주, 정착하였음은 물론 세대를 이어가며 현지 사회에 적응해 나갔음을 나타낸다.

3~4세기대는 가야와 일본열도의 정치체들이 급성장하던 시기로 철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부산 낙민동패총이나 성산패총에서 단야로가 확인되었고 진해 용원유적이나 봉황대유적, 부원동패총에서 철재(鐵滓) 등이 출토된 사실과 철기생산과 관련된 유적에서 하지키가 출토된다는 연구는 하지키인들의 주요 목적이 철의 확보와 원활한 공급이었음을 증명한다. 가야의 생활유적 곳곳에서 하지키가 출토된다는 사실은 하지키인들이 철의 생산과 교역에 대거 동원되었던 것을 반영하며 가야인들과 공존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해안가의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하지키가 일정한 비율로 출토되는 점은 금관가야 수장층에 의해 하지키인들이 통제, 배치된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인들의 한반도 이주와 더불어 가야인들도 일본열도에 활발히 진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400년을 전후로 일본열도에서 새롭게 스에키가 제작되기 시작하는데 오사카부 오바테라 유적에서 출토된 금관가야, 아라가야, 소가야계 토기는 가야의 토기 전문기술자들이 일본열도에 대거 진출하여 토기생산 기술을 전수해 주었음을 증명한다. 또한 금관가야 토기인 유개대 부파수부소호가 일본 열도 곳곳에서 출토되고 있는 사실도 금관가야와 왜 왕권의 교섭을 밝혀주는 중요한 증거로 제시되고 있다.

금관가야와 왜의 교섭이 단절되는 시기는 5세기 전반 이후로 추정되는데 광개토왕 남정 이후 전개된 신라의 가야지역 진출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다. 대성동집단은 광개토왕 남정을 계기로 몰락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후 한동안 교섭의 중심점이었던 복천동집단은 신라의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왜와의 교섭이 중단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Ⅲ. 5세기 중엽~6세기 중엽

5세기 중엽 이후 가야 각국은 일본열도와 새로운 교역망을 형성된다. 그 중에서 대외교역의 새로운 거점으로 대두된 지역이 남해안의 고성이다. 고성은 남해안의 해상교역로를 통해 중국, 마한·백제, 왜 교역의 중간 기착지로 성장하였으며, 남강을 통해 가야 내륙의 교역을 담당하는 새로운 창구로 급부상하였다. 고성 송학동 1A-1호 → 고성 송학동1B-1호 → 고성 내산리 34호 석실 등 고성지역 최고 수장층의 고분에 왜의 스에키와 마구류, 신라, 마한·백제 유물이 집중되는 점은 당시 해상교역을 담당하는 소가야 수장층의 위상을 보여준다.

아라가야와 왜의 교류는 남강-낙동강을 통한 간접교역로와 진동만, 마산만을 이용한 직접적인 교역로로 구분된다. 남강-낙동강교역로는 4세기에서 5세기 전엽에 주로 활용되었는데 함안의 아라가야는 김해 금관가야 수장층을 통해 왜와의 교류를 진행하였다. 이후 김해 세력의 몰락으로 남강-낙동강교역로가 위축됨에 따라 남해안의 진동만, 마산만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진동만은 창원 대평리유적, 덕곡리유적 등 4~6세기 고분군이 밀집하는 점으로 보아 아라가야의 최대 항구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함안 말이산 34호분 출토 녹색제도장구, 도항리 13호분 출토 삼각판형철판갑, 마산 현동과 진북 대평리에서 출토된 스에키와 하지키, 일본 천리시 후루유적과 카시하라시 신도우유적에서 출토된 화염형투창고배 등은 아라가야와 왜의 교류를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특히 5세기 후엽 진동만에 축조된 대평리 I 지구 M1호분은 최고수장층 고분으로 왜의 고분 축조기술로 만들어진 고분임이 확인되었다.

대가야는 고령을 거점으로 성장하여 5세기 후반에는 합천, 거창, 산청을 넘어 남원, 아영, 장수 등 금강상류역의 넓은 지역으로 진출한다. 대가야는 내륙에 존재하고 있어 교역에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남강, 섬진강을 통해 남해안으로 진출하고자 노력하였고 남해안의 가야세력과 연계하면서 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대가야와 왜의 교류는 일본열도에서 출토된 대가야 이식, 마구, 대가야 토기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Ⅳ. 왜계고분, 전방후원분을 통해 본 한일교류

끝으로 최근 남해안 지역의 왜계고분과 영산강유역의 전방후원분의 출현배경에 대해 검토해보기로 한다. 마한·백제와 왜의 교역은 4세기부터 전개되어 왔으나 금관가야에 비하면 미약한 편이었다. 그러나 금관가야의 몰락 이후 남해안의 가야와 마한·백제의 교류가 부각되는데 남해안 연안항로에 축조된 왜계고분과 영산강유역의 전방후원분은 이러한 정황을 보여주는

가장 적극적인 증거이다. 남해안의 해상교역로에 축조된 왜계고분은 대마도와 대한해협을 바라다보는 위치에 조성된 거제 장목고분을 시작으로 마산 진동만에 축조된 대평리M1호분, 고성만을 바라다보는 송학동고분, 사천만의 선진리고분, 여수·순천만을 지나 고흥반도의 안동길두리고분, 고흥 야막고분, 영산강 입구의 해남 조산고분으로 이어진다. 최종 기착지인 영산강유역에는 10여기의 전방후원분이 축조되어 있음이 밝혀져 있다. 왜계고분은 일본열도의 북부구주지역 석실과 유사한 구조를 보이는데 고분의 축조에 왜인 기술자들이 참여했음이 확실시 된다.

서남해안교역로의 활성화와 함께 백제지역에 왜계유물이 급증한다. 서울 몽촌토성, 풍납토성, 청주 신봉동, 고창 봉덕리, 부안 죽막동 유적 출토 스테키는 왜인들이 백제의 중심부에까지 진출하여 교류하였음을 나타낸다. 특히 공주 단지리 횡혈묘는 북부구주의 소집단이 이주하여 정착했던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 동림동유적은 마한·백제, 소가야, 왜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취락유적으로 스테키계토기와 소가야토기가 다량 출토되고 있고 인접하여 전방후원분인 광주 월계동고분이 축조되고 있다. 교역에 종사한 다수의 왜인과 소가야인들이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가야지역 왜계고분, 영산강유역 전방후원형고분의 도입배경과 그 피장자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현지 수장층으로 보는 견해, 왜인으로 보는 견해, 백제 또는 가야에 의해 현지 관료로 임명된 왜인으로 보는 견해 등이 대표적이다. 필자는 대부분 현지 수장층일 가능성이 높지만 재지 수장층의 비호아래 상당한 지위를 누린 왜인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5세기 후반과 6세기 전반의 한일교류는 백제-영산강유역-서남해안 수장층-고성 소가야-북부구주-왜왕권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왜는 백제와 중국의 선진문물의 입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백제와 왜왕권의 틈새에 존재했던 영산강유역과 고성, 북부구주지역의 수장층은 그들 나름의 연대를 강화해 나갔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 증거가 앞서 설명한 왜계고분과 전방후원분의 축조이다.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던 가야와 왜의 교류는 6세기 중엽에 이르러 급격히 쇠퇴한다. 낙동강 연안의 가야 세력은 신라에 흡수되어갔고 남해안의 고성지역에는 신라유물의 반입이 급증한다. 남해안의 교역로가 신라에 의해 차단되기 시작한 것이다. 백제는 영산강유역은 물론 섬진강유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한다. 일본 구주 역시 급격한 정세변동이 일어나는데 531년 왜왕권과 九州 호족의 전쟁이 발생하며 九州 호족인 이와이(磐井)가 살해됨으로 亂이 평정되는 상황이 전개된다. 6세기 중엽의 시기에 영산강, 고성, 구주세력이 동시에 곤경에 처하는 상황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바야흐로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새로운 역학구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의 약 100년의 시간은 가야를 포함한 한반도 남해안지역의 정치체와 북부구주를 포함한 일본 열도의 다양한 정치체들이 거대한 왕권을 배후에 두고 나뉘는대로 역동적인 활로를 모색하던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낙중, 2009, 『영산강유역 고분 연구』, 학연문화사.
- 박천수, 2007, 『새로 쓰는 고대 한일교섭사』, (주)사회평론.
- 신경철, 1992, 「금관가야의 성립과 대외관계」 『伽耶와 東아시아』, 김해시.
- 하승철, 2011, 「외래계문물을 통해 본 고성 소가야의 대외교류」 『가야의 포구와 해상활동』, 주류성.
- 홍보식, 2008, 「6世紀 前半 加耶의 交易 네트워크」 『6世紀代 加耶와 周邊諸國』, 제14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 김해시.
- 井上主税, 2006, 「嶺南地方 出土 倭系遺物로 본 한일교섭」,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가야의 제사

김현희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제사의 의미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제사는 죽은 이에 대한 것이다. 지금도 가정에서 일정한 시거나 죽은 사람의 기일에 맞춰, 죽은이의 넋을 위로하고 살아있는 후손들이 무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제사를 지낸다.

하지만 제사라는 것이 죽은 이를 위한 것, 무덤에 절을 올리는 제사만이 아니다. 다양한 유적 가운데 무덤이나 집터, 패총, 성터 등을 발굴조사하다보면, 어떤 행위의 결과물처럼 보여지는 것들을 확인할 때가 있다. 무언가 일부러 차곡차곡 쌓아 모아놓은 듯하고, 일부러 부수어놓거나 구부러놓은 듯하고, 정성을 들여 무언가를 해놓은 듯한 흔적들...

이러한 자료들을 모아놓고 분석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 놓았던 흔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제사유적이라고 말한다.

고고학에서는 의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생산의례·장송의례·제사의례·신앙의례로 내용과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즉 문화적으로 유형화된 집단적 행동은 다양한 장소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거지나 무덤과 같은 곳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독립된 공간에서도 의례행위가 이루어진다면, 그 흔적이 남을 것이기 때문에 국한지를 필요는 없다.

선사와 고대의 제사를 분류를 해본다면 생활제사(복골·성기승배·모조품과 소형토기·지진구·수혈의례), 산악제사(암석제사·고개제사·산정제사), 해양제사, 생산제사(농경제사·토기생산제사·철생산제사), 분묘제사(지석묘 매장예·빈궁·봉토제사·묘사·공헌), 수변제사(수리시설·우물·원지와 해자제사), 종교제사(도교·불교)로 구분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사는 특정한 대상을 향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장소 등에 따라 성격을 달리 하기도 하고, 유사한 형태로 비추어지기도 한다. 그러한 믿음은 행위가 이루어졌던 장소에는 흔적들이 남긴다. 그러한 흔적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양한 지역에서 고대 사람들의 바람이 담긴 제사유적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무덤이나 건물터, 산성, 강가, 우물, 수혈 등에서 다양한 종류의 유물과 미니어처와 같은 토제품이나 철제품, 다종다양한 동물뼈와 패각류를 접할 수 있다.

죽음과 관련된 제사

지금까지 고고학계에서는 주로 고분의 호석 주변이나 석실분의 연도부, 왕릉급의 봉토 등에 매납된 일부 유물을 제사와 관련한 것이라는 연구에 집중했다. 하지만 2000년도를 넘어서면서 다양한 종류의 제사와 관련된 유적이 발굴조사되면서 고고자료에서 본 제사연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가야지역에서는 주로 대가야 지역의 왕릉급 무덤의 순장이라는 습속에 초점을 맞추어 제사 개념을 도입시켜 연구해왔으며, 인위적인 발치, 문신의 흔적, 편두 습속 등 고대 가야사람들의 생활상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였다. 특히 『삼국지三國志』에 기록된 가야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이가 생기면 곧 돌로 그 머리를 눌러서 편편하게 하려고 애쓴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왜에 가까운 사람들은 문신을 한다.’ 라는 기록과도 부합되는 고고학적 정보가 김해 예안리유적에서 확인되기도 하였다. 김해 예안리유적이 주목받았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인골 중 일부러 이를 뽑아낸 흔적이 있다는 것이다. 즉 복상발치服喪拔齒라고 하는 것으로 죽은 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의 생니를 일부러 뽑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일본의 경우가장의 권위를 계승하기 위한 것, 또는 발치의 고통을 공유하여 사회적인 규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 등에 대한 견해가 있다. 이 외에는 치아를 일부러 마모시킨 흔적도 있다. 이러한 무덤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고고학적 정보는 고대 가야인들의 생생한 생활습속을 통한 제사 과정의 일부를 복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그리고 무덤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동물뼈와 패각류 등을 통해 무덤 제사에 사용된 음식 종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당시의 가야 음식문화의 단편을 복원할 수도 있다. 즉 고령 지산동이나 창녕 송현동 무덤 내에서 굽다리접시 속에 닭뼈나 복숭아씨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다 무덤 제사시 사용한 음식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해주고 있다. 원래 복숭아는 귀신을 쫓는 과일이라 하여 현재의 제사상에는 올리지 않는 것 중의 하나로 취급된다. 하지만 복숭아에 담긴 또 다른 상징성은 괴력·여성·장수를 상징하며, 하늘의 열매이자 신성한 과일로 여겨진다. 따라서 물과 관련된 제사유적인 우물에서는 복숭아씨가 다량으로 확인된다. 이는 우물에 깨끗한 물이 지속적으로 나오기를 바라며, 오염되거나 부정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물을 만들 때 우물 바닥에 복숭아씨를 깔아두어 제사 의식을 치루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야 무덤뿐만 아니라 백제 무령왕릉에서도 은어와 같은 물고기뼈가 확인되고, 신라의 최대 왕릉인 황남대총에서도 다양한 패각류와 물고기뼈가 봉토 상부의 토기에 담겨 매납되어진 제사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김해 부원동유적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동물의 뼈를 이용하여 점을 쳤던 복골이 출토되어 당시 가야사람들의 신앙에 대한 단편을 엿볼 수 있다. 김해 부원동유적은 가야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생활유적으로, 조·기장·콩·보리·팥 등의 곡류뿐만 아니라 감·복숭아·머루·밤·도토리·호두 등의 과실류, 말·소·돼지·사슴·고래·수달·강치 등의 동물과 굴·고동·조개류 등이 확인되어 당시의 음식 종류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곳이다.

물과 관련된 제사

김해지역에서 보이는 물과 관련한 의례는 『삼국유사三國遺事』가락국기駕洛國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희락戲樂으로 가락 국조를 사모하는 일이 있어 매년 7월 29일에 이 지방 인민과 이졸 吏卒들이 승점乘帖에 올라가 유막帷幕을 치고 주식酒食으로 환호하며 동서로 서로 눈짓하고 장건한 인부들은 좌우로 나뉘어 망산도로부터 용맹한 말굽으로 육지로 달리고 뱃머리는 등실등실 서로 물 위에 밀리어 북으로 고포古浦를 지향하여 다투어 달아나니, 이것은 대개 옛적에 유천留天, 신귀神鬼 등이 허왕후의 오는 것을 바라보고 급히 임금에게 고하던 데서 연유하였다”

또한 계욕제禊浴祭라는 것은 목욕재계를 통한 물과 관련된 의식으로 『삼국유사三國遺事』가락국기駕洛國記에 봄의 첫날, 음력 3월 초하루에 지도자와 마을 사람들이 함께 개울에서 목욕재계를 통해 지난해의 부정을 물에 흘려보내는 의식을 치루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지역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물에 대한 제사가 있다. 특히 우물과 관련된 제사유구가 다양하게 확인된다. 그러나 가야의 우물에 대한 정보는 극히 미비한 편으로 대가야지역인 고령에서 대가야 어정御井이라는 곳이 유일하다. 『신동국여지승람新東國輿地勝覽』에 “고령현 남쪽 1리에 대가야국의 궁궐터가 있고, 그 옆에 돌로 만든 우물이 있는데, 어정御井이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고령현의 북쪽에도 왕후정王后井이란 어정도 있다라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

현재 고령초등학교에 있는 우물은 왕궁터의 북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왕후정으로 우물로 추정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물 내부조사시 최하층에서 가야토기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우물의 사용시기가 가야까지 소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어정은 1977년 계명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조사되었으며, 그 결과 우물의 형태는 말각방형, 또는 원형이었으며, 크기는 우물 안지름이 130cm 내외이다. 현재는 우물의 석축을 복원한 다음 동쪽 입구만 트고 나머지 세 방향은 막아 두꺼운 판석으로 뚜껑을 덮어놓았는데, 1917년 당시의 모습과 유리건판을 토대로 재현한 것이다. 현재는 주위에 팔작지붕의 보호각을 건립하였고, 철책을 둘러 보호하고 있다. 우물 내부 출토 유물은 장경호편 1점, 단경호편 1점, 파수 1점, 적색 연질토기편 1점, 그릇 손잡이 3점, 토구 1점, 와편 다수와 연석, 그리고 남근석형 석기 등이 있다.

물에 대한 제사는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확인되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논산 마전리 목제 우물이 있다. 이 우물의 내부에서 완형의 송국리형토기와 단도마연토기가 출토되었고, 우물 주변에서 새모양의 목제품까지 확인되어, 농경과 관련된 물의 의례가 우물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런 유사한 사례는 일본 야요이시대 우물 근처의 도랑에서도 확인된다. 새에 대한 인간의 믿음은 인간계와 천계를 이어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 농경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존재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러한 믿음은 고성 동외동 유적의 새가 새겨진 청동의기의 존재에서도 알 수 있으며, 함안 성산산성의 새머리모양의 목제품[鳥頭形木製品]에서도 새에 대한 믿음이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새머리모양 목제품의 존재는 수변제사, 즉 물의 제사와 관련이 있으며, 광주 신창동유적, 부여 능산리사지와 궁남지유적, 하남 이성산성 등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후 고구려 고산동 석조우물에서도 내부에서 고구려 토기와 동물뼈, 복숭아씨 등이 확인되며, 백제 지역의 풍납토성 외곽 우물에서도 제사와 관련된 자료들이 출토되었다. 나무로 만든 우물 내부에서 다량의 항아리와 병, 복숭아씨 등이 확인되었는데, 토기의 구연부를 일부러 파쇄한 흔적도 확인되었다.

특히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에서는 현재까지 200여기 이상의 우물이 있는데, 유물이 출토된 우물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물과 관련한 모종의 제사의식이 행해졌던 것이 틀림없는 우물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신라 왕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월성 주변지역에서 확인되는 4기의 우물은 월성 외 지역에서 확인되는 우물 제사관련 유물과는 차원이 다른 유물들을 쏟아내고 있다. 4기의 우물은 국립경주박물관부지 내 우물 2기, 전 인룡사지유적, 월지 동북지역의 왕경유적 내 우물을 일컫으며, 실제로 30여종이 넘는 동물뼈, 다량의 토기와 기와, 파수, 원형토제품, 금속그릇, 두레박, 나무빗, 철제품, 복숭아씨를 비롯한 다양한 씨앗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출토품이 말해주는 사실은 우물제사의 성격이나 규모 등에 있어 일반 우물제사와는 차원이 틀린 제사였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최근 김해 관동리유적에서 확인된 우물의 경우도 있다. 이 유적은 삼국시대에서 통일신라시대에 걸쳐 사용된 것으로 100여기 이상의 건물지, 우물 10기, 잔교시설, 도로 등이 확인되어 당시 가야의 해상교통의 중심지·주거·창고·생산 등의 분할된 공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곳으로 유명하다. 특히 대형 건물지의 존재를 두고 종합적인 유적의 성격 내에서 제의 공간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김해 중심지 내에 확인된 제사관련 유물이 출토한 김해 한옥생활체험관 부지내에서 확인된 저습지가 있다. 이 유적은 김해 수로왕릉의 서쪽에 인접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대성동 고분군과 남쪽으로 봉황대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70호 저습지는 조사지역의 남쪽에 있는 공방지 관련 수혈군과 68호 제방 사이에 있는 고지대에서 흘러내리는 목탄·점토·재 등으로 이루어진 퇴적층과 제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목조시설물층 및 뺨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저습지의 남쪽 흑색 목탄퇴적층에서 30여 점의 토우가 확인되는데, 인물형 토우 3점, 말모양 토우 1점, 발형토기와 그릇받침의 세트로 된 모형토기가 17쌍, 모형발형토기 4점, 모형그릇받침 6점 등이 있다. 이러한 사람과 말모양 토우, 소형 미니어처토기의 존재는 일종의 제사가 있었음을 암시하며, 물과 관련된 제사였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말모양 토우는 특히 물과 관련된 제사유적에서 확인되기도 하는데 수신水神을 숭배하는 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본의 수변제사유적이나 우물제사유적에서 확인되는 맥락과 유사할 것이다.

또한 70호 저습지에서 개의 두개골도 출토되었다. 이러한 개의 두개골의 존재는 신라지역인 경주 황남동 376번지 건물지 초석 아래에서 발견된 개의 두개골의 존재와 비교해서 살펴보면 역시 제사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또한 말을 사용한 제사관련 유물이 출토된 유적으로는 2010년에 발굴조사된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 일원 산업단지 토취장 부지의 토루가 있다. 토루의 부대시설인 배수구, 문지, 망루, 내부 주거지와 저장 수혈 등이 있으며, 이 곳에서 말모양의 철제품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말모양 철제품은 대전 보문산성에서 출토된 것이 있으며, 이는 백제시대의 산악제사와 관련이 있다고 추정되는 것 중의 하나이다. 이 사산성에서 출토된 말모양 철제품은 머리에서 목부분만 남아 있으며, 목 등에 갈기가 있고 등에 안장을 엮고 다래가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말을 이용한 제사유적으로는 서울 풍납토성, 부안 죽막동, 부여 쌍북리유적에서 흙으로 만든 말이 있는데, 말 머리나 다리 등을 절단하여 버린 것으로 물에 대한 수신으로써의 역할 뿐만 아니라 역병을 물리치는 의미가 포함되기도 한다. 신라에서는 경주 황오동 100번지유적에서 말만 따로 매장한 마갱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가야 지역에서 확인되는 제사 관련 유적은 다른 삼국에 비해 현저히 작은 편이다.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높여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고대 가야사람들의 바람을 조금이나마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김해 봉황동유적의 발굴성과

윤태영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1. 머리말

김해 봉황동유적¹⁾은 김해 시내에서 남쪽에 위치하는 낮은 구릉에 입지한다. 이 유적을 경계로 북쪽은 현재의 김해 중심가이고, 남쪽은 현재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즉 김해 전역으로 보았을 때 봉황동유적은 서쪽으로는 임호산과 해반천을 사이에 두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남산과 함께 남쪽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런 지리적인 입지는 해반천을 중심으로 삼각형 지형을 이룬 김해를 남쪽 평야지대와 구분 짓는 경계이기도 하다. 남쪽 평야지대는 낙동강제방으로 형성된 현재의 지형이고, 고대에는 ‘古金海灣’으로 불리는 內灣性汽水域이었었다. 따라서 봉황동유적은 김해에서 바다로 나가는 입구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유적은 일제강점기 전인 1907년에 今西 龍이 발견한 이후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사되었으며, 그 결과 金海式土器, 金石竝用期²⁾ 등 고고학사적으로 중요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유적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김해 봉황동유적의 최초 발견자인 今西 龍의 조사부터 최근 조사까지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김해 봉황동유적 발굴조사 성과

가. 일제강점기 이전

1907년 今西 龍이 김해 봉황동유적을 처음 발견하였다. 그는 1906년 경주지역을 답사하면서 채집한 석기를 근거로 한반도에 석기시대가 존재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듬해인 1907년 8월³⁾에 부산을 거쳐 김해로 이동하면서 현재의 봉황동유적 가운데 동쪽으로 뻗은 구릉에 분포하는 土木岬(회현리)패총을 발견하게 된다⁴⁾. 이어 그는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 3시간에 걸쳐 구릉

1) 회현리패총 또는 김해패총은 2001년 도 문화재자료 제87호였던 봉황대와 합쳐져 김해 봉황동유적으로 확대·지정되었다. 본고에 서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보고자의 유적명칭을 그대로 따르기로 한다. 따라서 회현리패총과 김해패총은 동일한 유적이며, 봉황대유적은 현재 봉황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다.

2) 금석병용기는 1923년 김해 회현리패총 발굴보고서가 원래의 고고학적 의미와는 다르게 일제강점기 식민사관을 긍정하는 데 결정적인 고고학적 증거로 인용되었다.(이기성, 2010, 「일제강점기 ‘금석병용기’에 대한 일고찰, 『한국상고사학보』68.)

3) 1907년은 舊慣制度調査事業이 시작된 해로 보고문의 “今年再び大學から修學旅行の恩命に接し”, “私の旅行の本來の目的” 등의 표현을 통해 아마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今西 龍이 참여했을 것이다.

4) 금서룡은 이 패총 외에 두 곳을 더 소개하고 있다. 즉 회현리패총에서 동쪽으로 數町 떨어진 곳으로 오늘날 부원동패총을 언급하고 듯하고, 회현리패총과 같은 성격의 패총으로 보았다. 나머지 한 곳은 그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현재 선암다리가 있는 곳에서 1리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예안리교분군 근처의 패총을 언급하는 듯하다.

서쪽 단애부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봉황동유적에 대한 최초의 조사이다. 그는 이와 같은 간단한 조사를 마친 후 동년 10월에 들어오는 柴田常惠에게 추가조사를 맡기고 본래의 목적을 위해 이동하였다고 한다.

조사결과 봉황동유적은 삼한시기에 형성된 유적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출토유물을 통해 일본 석기시대 패총 출토유물과 다른 성질이기 때문에 결코 동일종족(아이누족)⁵⁾이 만든 것은 아니라고 하고, 유물 가운데 토기는 남한에서 신라시대 및 일본 선조 상대의 유물과 동일계통에 속하며, 이 패총을 남긴 민족은 어떤 민족인지는 몰라도 그 기예는 신라·일본에 전해진 것으로 보았다. 또한 한반도의 문화를 수용한 일본민족이 한중족의 기예를 수용했을 것이며, 미생식토기는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으며, 한반도의 문화는 그 연원이 아주 오래 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今西 龍에 이어 추가조사한 柴田은 봉황동유적에서 적색토기의 비율이 높고, 고분출토품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분보다 이른 시기의 것이며, 골각기제작에 금속기 사용흔이 관찰됨으로 석기시대 이후의 것이라고 보았다.



〈그림1〉 1907년 10월 조사당시 김해 회현리패총

나.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기간에 봉황동유적에 대한 조사는 鳥居龍藏과 黑板勝美, 梅原末治·濱田耕作, 藤田亮策·小泉顯夫, 樞本杜人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⁶⁾.

5) 당시 일본 고고학계에서는 석기시대 패총을 아이누족이 남긴 것으로 생각한 듯하다.

6) 대정9년 보고서에 의하면 中頃西村眞次라는 사람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문맥상 柴田常惠 뒤에 표기된 것으로 보아 柴田과 함께 조사한 사람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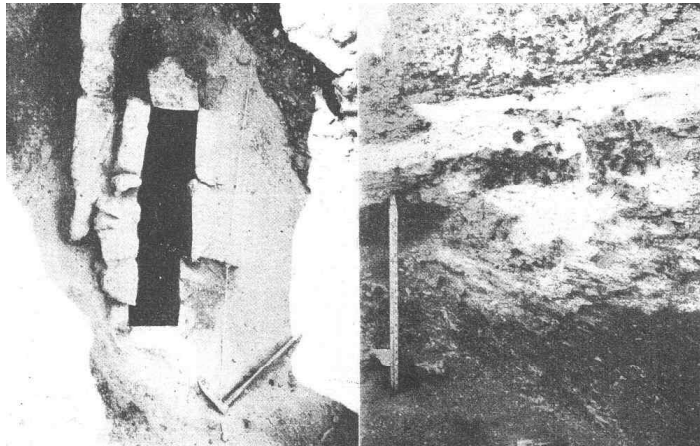
1) 鳥居龍藏

鳥居는 1914년(C지점)과 1917년(A지점) 2회에 걸쳐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였다⁷⁾. 특히 1917년도 조사는 깊이 10척 이상 깊이로 파내려가 패각층의 바닥면을 조사하여 석관묘 1기를 확인하였다. 석관묘에서는 아무런 유물도 출토되지 않았다.

그의 조사는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았지만, 1925년 발간된 『有史以前の日本』에 게재된 「濱田・梅原兩氏著『金海貝塚報告』を讀む」에서 조사성과에 대한 견해를 일부 제시하였다.

즉 김해패총은 토기를 근거로 甲・乙・丙 3시기로 구별된다고 하였다. 甲期는 최상부층으로 삼국시대에 해당되며, 乙期는 그것보다 약간 빠른 삼국시대 이전의 것이라고 한다. 김해 주촌면의 패총, 대구 달성, 경주 반월성, 함경도 북청패총, 평안도 미림리유적 등이 을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丙期는 김해패총 최하층으로 석기시대유물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이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그는 김해패총에서 철기만 출토되고 청동기나 동기가 출토되지 않기 때문에 석기시대 패총이 아니라 금속기시대 패총이라고 보았다.



〈그림2〉 1917년 조사당시 석관묘와 패각층

2) 黑板勝美

1915년(大正4년) 6월 23일~26일까지 4일간 김해에 머물면서 고분, 산성 등을 조사하였다⁸⁾. 이 기간에 김해패총도 일부분 조사(K구)⁹⁾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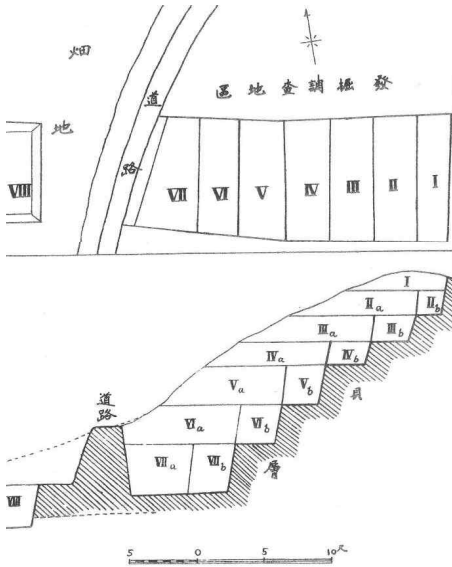
7) T구로 알려진 부분을 조사하였다. 조사당시 자료는 현재 鳥居龍藏記念博物館에서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京都大學校 교수 吉井秀夫로부터 전해들은 바 있다.

8) 黑板勝美先生生誕百年記念會編, 『黑板勝美先生遺文』, 1974, 吉川弘文館.

9) 대정11년도 보고에는 B지점임. 앞 주의 내용에 따르면 흑판승미는 당시 東京帝國大學에서 경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조사로 그 결과를 東京帝國大學總長에서 보고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도면·사진자료 등이 현재 東京大學校에 보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3) 濱田耕作・梅原末治

1920년 10월 23일~29일까지 7일간 발굴·조사(A구)하였다. 이 조사에는 濱田・梅原 이외에 關野貞, 谷井濟一 등이 참가하였다. 이 조사는 패층을 계단식으로 조사한 점에서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다. 조사결과 김해패총 VIa층에서 출토된 貨泉을 근거로 유적의 상한을 기원후 1세기, 하한을 기원후 2세기로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김해패총은 비교적 단기간에 형성된 것이며, 반월형 석도 등 석기류와 철도자 등 철기류가 함께 출토된 점을 들어 金石併用期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그림3〉 계단식조사

4) 藤田亮策・小泉顯夫

1922년 5월 19일~6월 1일 중 일정기간 藤田亮策・小泉顯夫가 회현리패총에 대한 장래 보존시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자 앞서 濱田과 梅原이 조사한 곳에서 서남쪽에 접한 패층노출부분에 가로세로깊이 4척의 범위를 조사하였다. 조사의견으로

유적의 훼손이 우려되므로 표석을 세우고 발굴을 금지시키는 보존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조사내용은 별도로 보고되지 않았다.

5) 榎本杜人

가야모토의 조사는 及川民次郎¹⁰⁾에 의해 1호 옹관이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¹¹⁾. 조사는 1934년 12월 27일~1935년 1월 12일까지 현재 알려진 D구를 우선 40여평의 범위에 목책을 둘러고, 내부 패각층을 제거하면서 지면을 노출하는 작업을 하였다. 조사결과 상식석관묘 5기, 옹관묘 3기, 석축시설, 부석주거지, 점토곽 등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 유구들은 생토면을 파고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조사 내용을 정리한 것이 아래의 표이다¹²⁾.

10) 일제강점기 부산에서 활동하였던 釜山考古會의 동래패총 발견자인 '及川民次郎' 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크다.

11) 당시 김해 봉황동유적(회현리패총)은 사적지로 지정·관리되어 왔으며, 1933년 8월 9일 '朝鮮寶物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令' 이 공포되어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었던 듯하다. 조사자가 본 유적에 대한 발굴을 금지시키고 있었다고 한 점과 이 조사가 정식발굴조사가 아닌 긴급발굴조사였음을 밝히고 있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다.

12) 榎本龜次郎, 1935, 「金海貝塚-其の新發見」, 『考古學』6-2, 조사일지를 귀국 도중 분실하고, 현재 제시된 유적 도면은 野守健이 실측한 것이다.(1954, 「金海貝塚の再檢討」, 『考古學雜誌』第40卷3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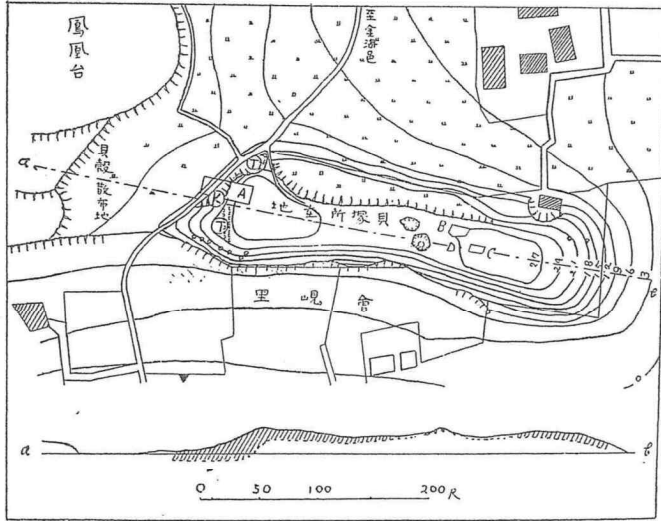
일자		내용	비고
12월 26일		1호 옹관 발견	及川民次郎 김해봉황동패총 유적답사 중 발견
		총독부박물관에 연락	
12월 27일		樵本龜次郎 서울출발	
12월 28일		김해도착	우천으로 조사연기
12월 29일		1호 옹관 조사	
		1호 상식석관묘확인	及川道視學
		경성에 보고	
		2호 석관 노출	
		석축발견	
		3호 석관 확인	
		4호 석관 확인	
		기 확인 유구 조사	
		2호 옹관 확인	
		주변 패각층 제거	
		주거지·점토곽 확인	
1935년 (昭和10年)	1월 3일	3호 옹관 확인	
	1월 12일	3호 옹관 조사완료 및 수거 중 하부에서 동검 및 동사발견	

〈표1〉 봉황동패총 D구 조사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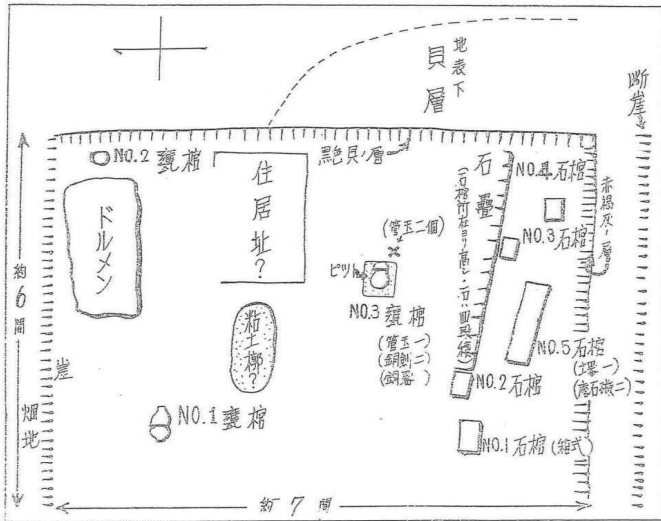
敷石住居址는 상부에 패각층이 있고 그 아래 흑갈색토층으로 덮혀있었다고 한다. 즉 상부 패각층과 부석주거지 내부토 사이에 흑갈색토층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동서 150cm내외, 남북 120cm내외의 장방형 수혈이다. 깊이는 30cm내외이다. 상면에는 2열로 자연석을 깔았지만 중앙에 있는 2개의 돌로 보았을 때 주거지 상면 전면을 4열의 자연석으로 깔았던 것으로 추정하였다. 주혈은 확인되지 않아 주혈없는 상옥으로 보았다.

爐蹟은 원형으로 조사구역 동쪽 끝에 위치한다. 직경 60~70cm내외, 깊이 20~30cm내외이다. 내부는 목탄과 재로 가득 차 있었으며, 바닥면은 흑색 혹은 흑갈색을 띤다. 주변에서 적갈색 연질용 1점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부석주거지와 노적을 세트관계로 보기도 했다.

옹관은 모두 일본 야요이옹관으로 ‘김해식옹관’의 알려진 것이다. 조사구역 내의 북단에 지석묘 1기가 있으며, 이 지석묘의 남측과 서측에 걸쳐 분포한다. 1호 옹관은 거의 파괴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내용은 거의 수평으로 놓여 있었으며, 외옹은 경사져 있었지만, 원상을 잃은



〈그림4〉 1935년도 김해 회현리패총 조사구역도



〈그림5〉 회현리패총 D구 유구배치도

상태로 조사자는 판단하였다. 내용은 구연 전체와 신부 일부만 결실되었으며, 외옹은 겨우 상반의 절반과 저부가 남은 것으로 대부분 결실되었다. 복원 규격은 2점 모두 140cm이기 때문에 수혈의 길이는 이것을 훨씬 뛰어넘지는 못할 것이고, 깊이도 60cm내외로 추정하였다. 옹관의 장축은 동-서이며, 서쪽이 내용, 동쪽이 외옹이다. 즉 내용을 외옹에 삽입한 형태이며, 외옹이 원위치가 아니면 거의 수평으로 놓인 내용으로 보아 수평으로 놓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내용 내 저부 부근에서 동제품의 소편이 鏽着되어 있었으며, 원형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2호 옹관은 지식묘 동측에서 발견되었다. 저부와 동체부 일부만 남은 것과 신라토기와 함께 출토된 것 가운데 구연과 저부 일부편만 남은 것을 합쳐 조합식 옹관으로 보았다. 이런 경우 지식묘와의 관계로 보아 2차적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3호 옹관은 동쪽 외옹은 구연부 1/2정도가 결실되었지만,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쪽의 내용은 구연부 일부만 남았다. 수혈은 동서 100cm내외, 깊이 60cm내외이며, 장축은 동-서이다. 옹관은 수평으로 놓였다고 한다. 옹관 밑에서 벽옥제 관옥 3점과 동사 다수, 동검 2점이 출토되었다. 한편 수혈 서쪽에 2매의 판석이 있었다고 하는데 옹관과의 관계는 알 수 없다고 한다.

옹관묘는 遠賀川Ⅲ式 또는 須玖第1式으로 보았다.
 1호와 3호 옹관 사이에 장타원형의 점토곽이 확인되었다. 길이 120~130cm, 너비 50cm, 깊
 이 30cm내외이다. 내부에 점토질의 흙이 차 있었다고 한다. 토광묘로 추정하였다.



〈그림6〉 석관묘, 석축, 옹관묘 노출상태

석관묘는 조사구역 남쪽에 있는 석축시설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조사내용을 정리한 것이 아
 래 표이다.

호수	묘제	규격(cm) ¹³⁾			출토유물	비고
		길이	너비	깊이		
1	석관묘	120	30	30		
2	석관묘	100				
3	석관묘	50				개석과 시상석 있음
4	석관묘	80				시상석 있음
5	석관묘	250	45	45	단도마연토기1, 석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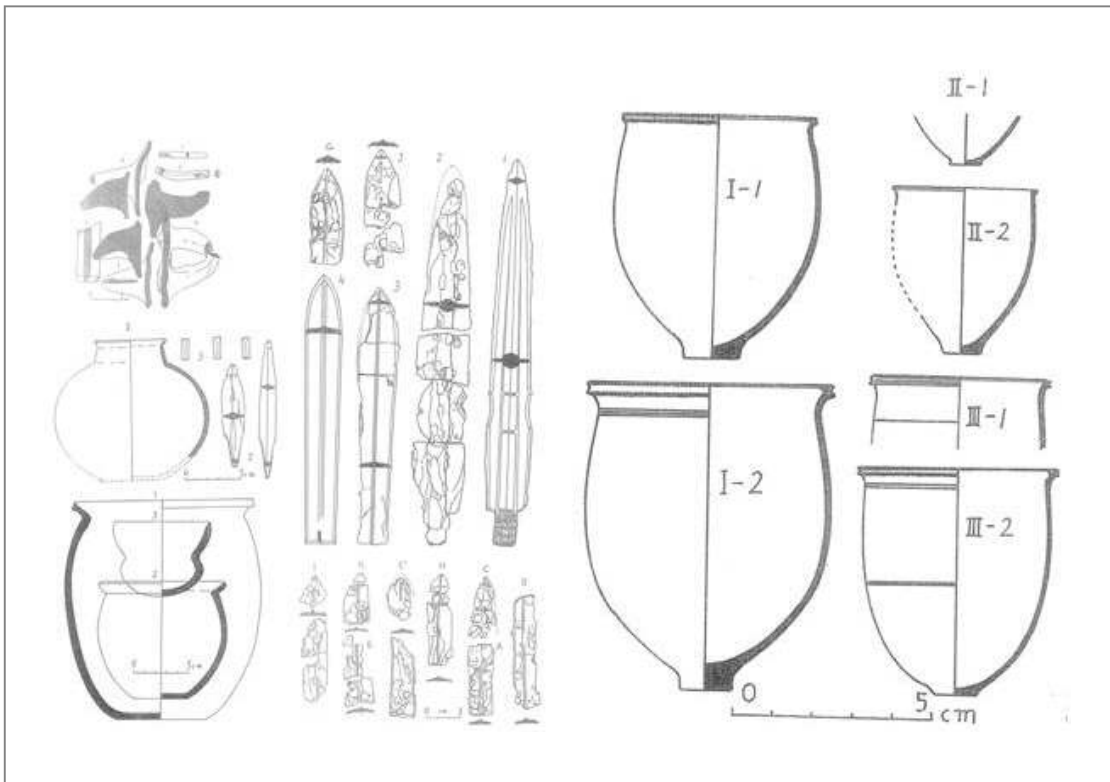
〈표2〉 김해 봉황동유적 석관묘 일람표

13) 개략적 치수임.

석축시설은 할석을 횡평적하였으며, 최하단은 약간 돌출되게 하였다. 석축은 동서로 길게 축조되었으며, 지대가 낮은 남쪽에 4단정도 쌓았으며, 북쪽의 생토면과 높이를 맞춘 듯 축조되었다고 한다.

조사된 유구의 선후관계에 대해 조사자는 석관묘를 중심으로 한 가족묘의 묘역구획기능이 있다고 보았으며, 석관묘, 주거지, 패총과의 관계는 석관묘와 석축시설 위에 쌓인 적갈색토층의 재가 주거지의 노지에서 나온 것이며, 패총은 이 적갈색토층 위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석관묘→주거지→패총라는 선후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여기에 지석묘와 옹관묘를 추가하면 지석묘·옹관묘→석관묘→주거지→패총 순으로 유적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조사자는 봉황동유적을 석관묘, 옹관묘, 지석묘 등이 축조된 묘역이었다가 주거지가 들어서고 이후 패총이 형성되었다고 추정하였다.



〈그림7〉 1935년도 조사 출토유물

연번	조사기간	조사책임자 및 조사기관	조사구역	참고문헌
1	1907.8	今西龍	구릉서쪽에 있는 토목현(소로)단애부의 패층	今西龍, 1907, 「朝鮮にて發見せる貝塚に就いて」, 『東京人類學會雜誌』23
2	1907.10	柴田常惠	연번1을 기준으로 중앙에서 북쪽	柴田常惠, 1908, 「朝鮮金海貝塚」, 『東京人類學會雜誌』24
3	1914	鳥居龍藏	연번1을 기준으로 중앙에서 남쪽 및 南北縱區 T區	濱田耕作·梅原末治, 1923, 「金海貝塚發掘調査報告」, 『大正九年度古蹟調査報告』第1册, 朝鮮總督府
4	1915.6.23 ~26	黑板勝美	K區	黑板勝美先生生誕百年記念會, 1974, 『黑板勝美先生遺文』
5	1917	鳥居龍藏	북쪽 T區	濱田耕作·梅原末治, 1923, 「金海貝塚發掘調査報告」, 『大正九年度古蹟調査報告』第1册, 朝鮮總督府 鳥居龍藏, 1925, 「濱田耕作·梅原末治著『金海貝塚報告』を読む」, 『有史以前の日本』
6	1920.9	濱田耕作·梅原末治	A區(K區 북측)	濱田耕作·梅原末治, 1923, 「金海貝塚發掘調査報告」, 『大正九年度古蹟調査報告』第1册, 朝鮮總督府
7	1922.5~6	藤田亮策·梅原末治·小泉顯夫	A區 西南	藤田亮策·梅原末治·小泉顯夫, 1923, 「1. 金海貝塚-慶尙南北道忠清南道古蹟調査報告」, 『大正十一年度古蹟調査報告』第1册, 朝鮮總督府
8	1934.12.27 ~ 1935.1.12 (?)	榎本杜人	支石墓 南側, C區 西側の D區	榎本杜人 , 1935, 「金海貝塚-其の新發見」, 『考古學』6-2 , 1938, 「金海會峴里貝塚發見の甕棺に就いて」, 『考古學』9-1 , 1957, 「金海會峴里貝塚發見の一銅製品に就いて」, 『朝鮮の考古學』 , 1957, 「金海貝塚の甕棺と箱式石棺-金海貝塚の再檢討」, 『考古學雜誌』第43卷1號 藤田亮策·梅原末治, 1944, 「二七, 金海會峴里出土一括遺物及傳永登浦出品-銅劍·銅製尖頭器·碧玉管玉等-」, 『朝鮮古文化綜鑑』第1卷

〈표3〉 김해 봉황동유적 조사일람표(일제강점기)

3) 1945년 이후~현재

1945년 이후 2009년까지 봉황동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아래 표¹⁴⁾와 같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를 지도로 표시한 것이 그림 12이다.

연번	조사기간	조사책임자 및 조사기관	조사구역	참고문헌
1	1998.10.9~11.11	부산대학교박물관	봉황대	1998, 『김해봉황대유적』
2	1992.12.27~1993.3.31	부산대학교박물관	봉황대진입로개설구	1998, 『김해봉황대유적』
3	1998.10.9~11.11	부산대학교박물관 · 고고학과	1920년도 발굴 A구와 동일	2002, 『김해회현리패총』
4	1999.6.2~6.15	부산대학교박물관	봉황동442-7번지	2006, 『김해봉황동442-7번지』
5	1999.12.20~2000.1.15	부산대학교박물관	추정가야궁허지	2006, 『진금관가야궁허지』
6	2000.4.7~5.24	부산대학교박물관	408번지 일원	2007, 『김해봉황동저습지유적』
7	2001.8.21~9.10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409-7번지	2004, 『김해봉황동409-7번지유적』
8	2001.10.8~12.10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회현리패총동쪽 소방도로개설구간	2004, 『김해회현동소방도로구간내유적』
9	2002.4.4~11.29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가야인 생활체험촌부지	2006, 『김해가야인생활체험촌조성부지내유적』
	2003.4.14~10.11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보고서 미간
10	2003.6.11~11.29	삼강문화재단연구원	회현동사무소- 분성로소방도로	2005, 『봉황토성』
11	2003.12.16~ 2004.1.22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380-24번지	2005, 『김해봉황동380-24번지유적』
12	2004.5.17~6.10	국립가야문화재단연구소	240·260번지	2005, 『김해봉황동단독주택부지시굴조사보고서』
13	2004.9.13~10.5	국립가야문화재단연구소	284·177·442-5번지	
14	2004.12.30~ 2005.5.31	삼강문화재단연구원	한옥생활체험촌 부지	2007, 『김해 봉황동유적』
15	2005.4.18~5.23	대성동고분박물관	176-2,16,17번지	2007, 『김해봉황동380·176-2,16번지』
16	2005.3.14~6.13	삼강문화재단연구원	봉황동유적패총 전시관조성부지	2009, 『김해 회현리패총 I · II』
	2005.8.11~11.8			
17	2006.6.9~7.15	대성동고분박물관	229-1,4번지	2008, 『김해봉황동유적-229-1·4번지』

14) 기존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을 추가·보완하였다.

연번	조사기간	조사책임자 및 조사기관	조사구역	참고문헌
18	2008.3.28~ 2008.5.30	동서문물연구원	220-16번지	2009, 『김해 봉황동 주택신축부지내 유적 발(시) 굴조사 약보고서』
19	2009.2.2~ 2009.3.20	동서문물연구원	220-5번지	2009, 『김해 봉황동 근린시설부지(220-5번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20	2006.05.15~ 2006.07.07	동아세아문물연구원	김해도서관증축 부지	2008, 『김해 고읍성』
21	2009.2.2~ 2009.3.20	동서문물연구원	220-3,9번지	2009, 『김해 봉황동 220-3·220-9번지주택 신축 부지내 유적 문화재 발굴(시굴)조사 약보고서』

〈표4〉 1945년 이후 김해 봉황대유적 발굴조사 일람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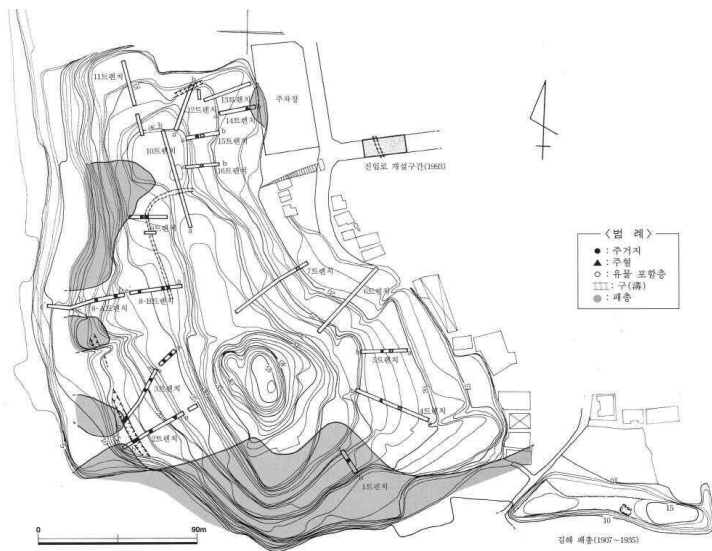


〈그림12〉 봉황동유적 주변 조사구역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년대 이후부터 봉황동유적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992년에 봉황동유적으로 통합되기 전 ‘봉황대’ 만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봉황대 동쪽지역에 대한 부분적인 조사도 실시되었다. 그 결과 봉황대유적은 주거지를 위주로 하는 패총, 구 등 생활유적이 밀집·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참조)

패총은 구릉의 동쪽을 제외한 모든 경사면에 형성되었는데, 크게 6개소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1트렌치에서 조사된 패총은 봉황동유적 전체에서 가장 규모 큰 것으로 위치로 보아 회현리 패총 ‘T’ 구역과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시기는 2세기~6세기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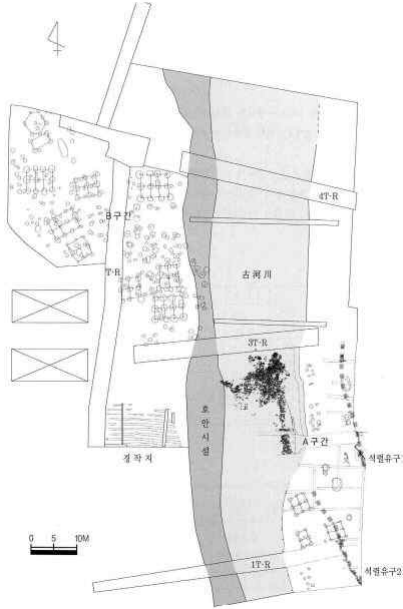
주거지는 봉황대 전역에서 확인되며, 구릉의 中腹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된다. 구릉 정상 부에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삭평된 것으로 보았다. 패총을 기준으로 주거지의 선후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패총보다 먼저 축조된 주거지는 2세기에 해당되며, 패총과 동시기 또는 이후 시기의 주거지도 확인되었다. 4~5세기대의 주거지가 밀집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8〉 1992년도 봉황대유적 시굴조사 배치도

전반적으로 1992년도 조사는 처음으로 ‘봉황대’를 중심으로 유적의 성격을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겠다. 거의 동시기에 봉황대 진입도로개설구간도 조사되었지만 아직 보고서가 미간인 상태이지만 특수한 바닥시설을 갖춘 대형주거지와 대형 주혈들이 다수 확인되어 봉황대 동쪽 일대의 평지가 중심지였을 것으로 보고자는 추정하였다.

1998년에 실시된 조사는 1920년에 조사한 A구에 대한 재조사의 성격이다. 이 조사결과 당시 계단식으로 조사된 층위 가운데 IV층 일부와 V·VI·VII층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패총의 퇴적방향이 이전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퇴적된 것이 아니라 봉황대가 있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퇴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봉황대와 회현리패총 사이에 남쪽으로 돌출된 또 하나의 소구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유적의 조성시기는 상한이 단면삼각형구연점토대토기가 늑도 Ⅲ기층의 전통



〈그림9〉 봉황대서쪽평지 유구배치도

을 이어받아 군곡리 Ⅱ기층과 시기적으로 병행하고, VIa층과 11층에서 출토된 화천과 휘룡문 경편 등으로 보아 기원전후로 보았으며, 하한은 4세기로 보았다.

이후 주목할 만한 성과 없이 간헐적으로 부분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2003년·2004년 봉황대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즉 봉황대 서쪽지역에서는 고려~조선시대 古河川과 護岸施設, 6~7세기대의 柱穴群과 耕作遺構, 4~5세기대의 토기가마와 굴립주건물지 등이 조사되었다.

봉황대 서남쪽은 지형조건이 가야 당대에는 내만성기수역 환경의 해안선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굴립주건물들은 기수환경의 뺄층을 매립성토한 후에 주혈을 파고 내부에 기둥의 침하를 방지

하기 위한 주축목시설을 만드는 등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였다는 점에서 해상교역과 관련된 장소이거나 교역품들을 일시 저장하는 창고시설로 추정하였다. 또한 이런 시설의 보호와 구릉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석렬유구와 옹벽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추정하였다¹⁵⁾.

한편 봉황대 동북쪽에서는 5세기 후반대로 추정되는 토성이 발견되어 봉황대를 중심으로 토성을 구축하였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조사는 좁은 범위에서 이루어져 대략적인 내용만 확인할 수 있었다. 토성은 봉황대 구릉의 동쪽 자연 경사면 아래쪽 저습지부에 1m간격의 지름 30cm 정도의 고정주와 소형말뚝 등으로 성토 기저부를 조성하고, 그 상부를 판축상으로 회색의 사질토와 유기물, 뺄을 부분적으로 이용하여 堆築하였을 것이며, 기저부 상층에는 황갈색사질토, 점질토, 혼패토 등을 여러 차례 퇴축하면서 군데군데 불을 질러 다짐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때 내·외측 성체부 퇴축이 유실되지 않도록 상단부에는 가장자리 고정주 쪽으로 황색 점토벽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내·외벽은 성체 축토부의 가장자리를 45° 경사로 삭토하고 그 삭토면에 한단에서부터 할석들을 쌓아서 피복하였다. 이때 석축은 2단 또는 3단으로 단을 지워 쌓았으며, 할석들 사이사이에 황색점토로 포장하고 불을 질러 소토화시켜 단단하게 구축하였다. 전체 이러한 과정이 내·외측으로 4회 이루어졌다.

15) 경남발전연구원역사문화센터, 2003, 『김해가야인생활촌조성부지내유적 2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그림10〉 봉황토성



〈그림11〉 김해 봉황동119-1,22-6번지 유적출토 배선택편과 노

전체적으로 봉황대 구릉 끝자락을 따라 돌아가는 단면 제형의 거대한 황갈색점질토로 포장된 토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일련의 축조공정으로 판단하였다.

봉황대 시굴조사와 봉황대진입로개설구간에서 2~5세기대의 溝가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런 시설들이 봉황대를 중심으로 구축되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으로 2010년도까지 봉황동유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사성과를 개략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한편 최근 조사된 유적에서는 가야시기 배의 선체 목재편과 노, 닻돌 등이 출토되어, 봉황동 유적의 성격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¹⁶⁾. 또한 C구역에서는 목책열이 확인되었는데, 단순히 목책열로 보기보다는 습지고고학이 발달한 지역에서의 조사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습지지역을 원활하게 통행하기 위한 도로(木道) 또는 다리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말목열 위에 잔목이나 나뭇가지들이 다량으로 깔려 있어 인위적으로 깔아 지반침하를 방지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¹⁷⁾. 이 밖에 고려 조선시대에 해당되는 유구도 확인되어 가야 시기 이후 꾸준히 생활공간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16) 동양문화연구원, 2012, 『김해 봉황동119-1 및 22-6번지일원 주택신축부지 문화재발굴조사 약보고서』

17) 현재까지 남아있는 흥천 설다리와 정선 나막다리의 경우 다리의 교각을 Y자상의 나무를 뒤집어 땅에 박고 흙을 낸 보를 가로로 끼운 다음 세로로 나무를 걸쳐 기본 골격을 갖추고 난 후 그 위에 가지나 판자 또는 흙을 덮은 형태이다. 김해 관동리유적에서 이런 교각을 확인할 수 있다. 습지에서는 침하를 고려하여 Y자상의 나무를 겹치게 박은 다음 그 위에 가지를 얹은 형태를 상정해 볼 수 있겠다. 한편 목책열 주변에 고상가옥이 있는 점은 이런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18) 부산대학교박물관, 2007, 「VI. 맺음말」, 『김해 봉황동 저습지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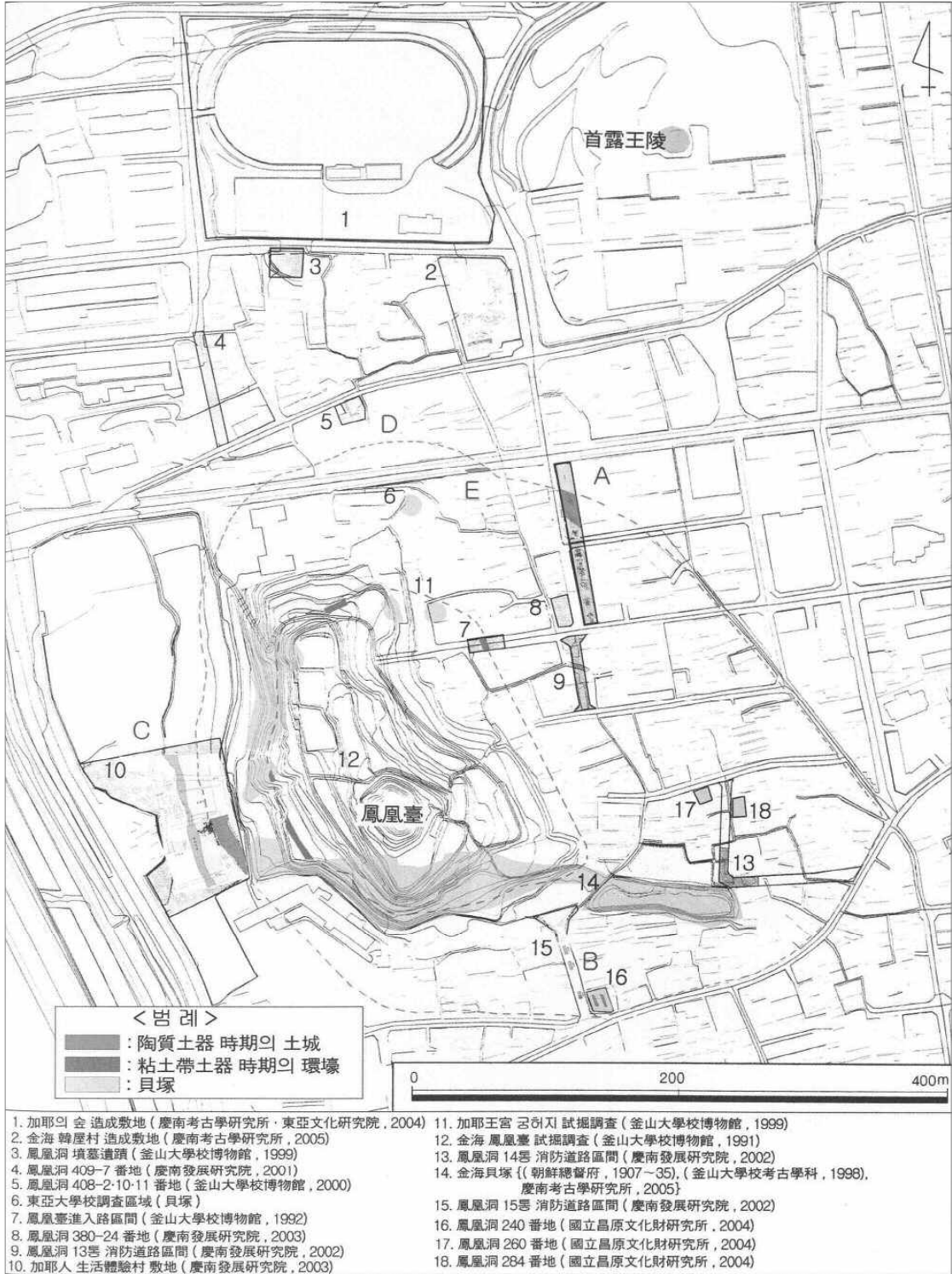
3. 맺음말

봉황동유적은 일본인에 의한 조사이긴 하지만 경남지역에서 최초로 고고학 발굴 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1907년 처음 봉황동유적이 발견되고 조사가 이루어진 후 현재까지 수많은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봉황동유적의 성격뿐만 아니라 이곳을 주무대로 삼았던 금관가야의 당시 모습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끝으로 기원전 2세기 이후부터 가야인의 생활근거지로 활용되었던 봉황동유적과 그들의 사후세계인 대성동유적의 범위를 최근 연구¹⁹⁾에서 제시된 바 있어 이를 게재하였다.



〈그림13〉 봉황대유적과 대성동유적 범위

19) 삼강문화재연구원, 2005, 『봉황토성』



〈그림13〉 봉황대유적과 대성동유적 범위

인골이 말하는 가야인

김재현

동아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I. 머리말

한국 고고학에서 고대사회를 인골의 연구와 관련시켜, 장송문화를 해석하고자 하는 연구가 흔한 편은 아니다. 장송이라는 테마에 처음 초점을 맞춘 연구는 이상길의 연구를 들 수 있다¹⁾. 氏는 청동기시대 지석묘에서의 장송의례를 5단계인 整地儀禮-築造儀禮-埋葬儀禮¹-埋葬儀禮²-祭祀儀禮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들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는 고고학적 증거를 제시하여, 의례행위의 복원을 시도하고 있다. 결과 장송의례에서 나타내는 고고학적 증거는 “死者에 대한 슬픔”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산자의 의례행위이며, 死者의 죽음을 사회적으로 공인시킴으로써 死者가 가졌던 사회적 지위나 역할, 재산 등을 온전하게 이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동시에 확보하고자 한 행위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매장과 관한 또 다른 연구로서는 高久健二를 들 수 있다²⁾. 氏는 낙랑 채협총의 발굴상태에서 낙랑 목곽분의 추가장에 대한 복원을 시도하였는데, 유물의 배치상태와 목관의 출토상태를 분석하여 낙랑의 장송의례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기존의 유물이나 유구에 대한 분석에만 집중되어오던 고고학에서 발굴성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시도하고자한 노력 있었다. 또한 발표자의 연구에서도 가야의 수혈식묘제인 도항리 8호분에서 이루어진 매장프로세스를 인골의 출토상태에서 파악하고 일본의 매장사례와도 비교·분석하여 한국의 고대 장송의례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³⁾, 한국에서 이제까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져 오던 殉葬에 대해서는 고대 친족구성에 근거한 매장의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死後에도 死者에 대한 祭祀行爲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인골을 통해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의 고고학이 유구나 유물에 대한 분석이나 해석에 치중한 결과, 유적 전체가 가지는 사회적 의미나 정체성을 간과하여 오던, 이제까지의 고고학 자료들을 재정리·분석하여 각 시대별 유적에서 나타나는 장송의례에 대한 문화패턴을 구성함으로써 한 민족의 고대 장송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파악하고 각 시대별·지역별로 이루어진 장송문화의 변화에 대한 원인과 양상을 파악하는 것도 새로운 자료와 방법에서의 문화해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 본 발표에서는 그러한 작업의 하나로서 사례들을 중심으로 가야사회에 대해 살펴본다.

1) 이상길, 1994, 「支石墓의 葬送儀禮」 『古文化』 45집, 한국대학박물관협회.

2) 高久健二, 2000, 「樂浪彩藻塚의 埋葬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고고역사학』 16, 동아대학교박물관, 97-130쪽.

3) 김재현, 2002, 「함안 도항리 8호분의 매장프로세스」 『고고역사학』 17·18합집, 동아대학교박물관, 231-244쪽.

II. 사례 검토

1. 김해 대성동고분군

경성대학교박물관이 2001년 조사한 김해 대성동고분에서는⁴⁾ 57호 목곽묘의 북서 모서리 부분의 외부에서 인골이 출토되었다⁵⁾. 인골은 57호 목곽묘의 바닥면 보다 약 70cm 상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57호 목곽묘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는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다. 57호 목곽묘에서 확인된 인골은 모두 3개체로 각 인골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3개체의 인골, 모두 성별에서는 여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연령에서는 A호 인골이 성년후반(30대), B호 인골이 성년전반(20대), C호 인골이 성년(20~30대)으로 판정되었다. 관골에서는 3개체의 여성 모두에서 1회 내지 2회의 出産痕이 확인되어 이들 3개체가 적어도 사실적인 미혼의 여성들이 아님을 알 수 있었고, 그 자식도 존재하였을 인물들일 가능성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추정신장에서는 A호 인골이 152.6cm, B호 인골이 148.7cm, C호 인골이 147.7cm여서, 추정신장에서 보면 그 크기에서 A호-B호-C호 여성의 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A호 인골은 B호 인골보다 거의 4cm나 큰 편이어서 동일한 공간에 매장되었을 경우 B호 인골 보다는 신장이 큰 관계로 자연히 흉부 쪽으로 목을 강하게 굽히게 되며 그와 함께 상반신도 다소 들려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과 같은 출토상태에서 추정되는 것은 이들 인골들이 먼저 매장되고 부장품들이 부장되어진 것이 아니라 부장품들이 우선하여 부장된 다음, 동일한 공간에 이들 인골들이 매장되어짐으로써 다소 신장이 적은 B호 인골이 伸展葬의 형태를 보이는 것에 비하여 추정신장이 4cm나 큰 A호 인골은 두개골과 목부분이 강하게 흉부 쪽으로 굽어진 형태를 취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下肢骨에서는 3개체 모두가 여성이면서도 남성에 비견될 정도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여성에 비하여 大腿骨 粗線과 脛骨의 가자미근선이 발달한 편이다. 이것은 이들 부위에 있는 근육이 발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적어도 이 세 여성은 노동과 관련한 일을 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A호 여성과 B호 여성의 치아에서는 齒冠 표면에 에나멜질감형성이 확인된다. 이것은 A호·B호 여성이 발육기에 영양장애 즉 질병에 의한 영양공급 장애나 영양섭취의 곤란에 의한 장애, 어린이 편식에 의한 장애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경성대학교박물관, 2003, 『金海大成洞古墳群Ⅲ』, 경성대학교박물관 연구총서 제10집.

5) 김재현 외, 2003, 『김해 대성동고분군 전사관부지조사 출토인골에 대한 분석』.

2. 고성 송학동고분

고성 송학동고분군이 2000년부터 1차조사를 시작하여 2002년까지 3차의 조사가 있었다⁶⁾. 그 중 1B호분 이 조사된 것은 1차 조사 때인 2000년 7월부터로 중심에 위치한 1B-1호분은 황혈식석실분임이 확인되었다. 이 중 1B-1호분의 내부 바닥에서 치아 1점이 검출되었다⁷⁾. 석실 중앙 바닥에서 검출된 치아 1점은 좌측 하악의 제 1대구치로 치관만이 형성된 것이며 아직 미 맹출된 것이어서 3~5세의 幼兒로 추정된다. 이 대구치는 검출당시 단지 1점만이 잔존한 것은 아니며, 비록 흔적만이 확인되지만 치아흔들과 나란하게 치열을 유지한 것이 확인되어서, 본래 두개골과 함께 위치하던 치아가 부식되지 않고 잔존한 결과로 생각된다. 묘실 중앙바닥에서 약간 북측 벽면에 치우친 곳에 위치한 이 치아는 출토 유구가 황혈식석실묘인 점에서 추가장에 의해 매장된 인골로 생각된다. 그것은 일반적인 매장상태(화장이 아닌 상태)에서는 다른 부위에 비해 대체로 치아가 오래도록 부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1B-1호분 내에서는 다른 개체의 성인인골이나 어린이 인골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직 치아 1점만이 잔존하는 위치에서 두개골의 흔적이나 치열의 흔적이 확인되어진 사실에서, 이 치아의 피장자는 최초 피장자가 아닌 추가장의 인물로 추정된다. 따라서 1B-1호분에서 검출된 치아는 3~5세의 幼兒가 추가장에 의해 매장되어진 결과로 추정된다.

3. 함안 도항리 8호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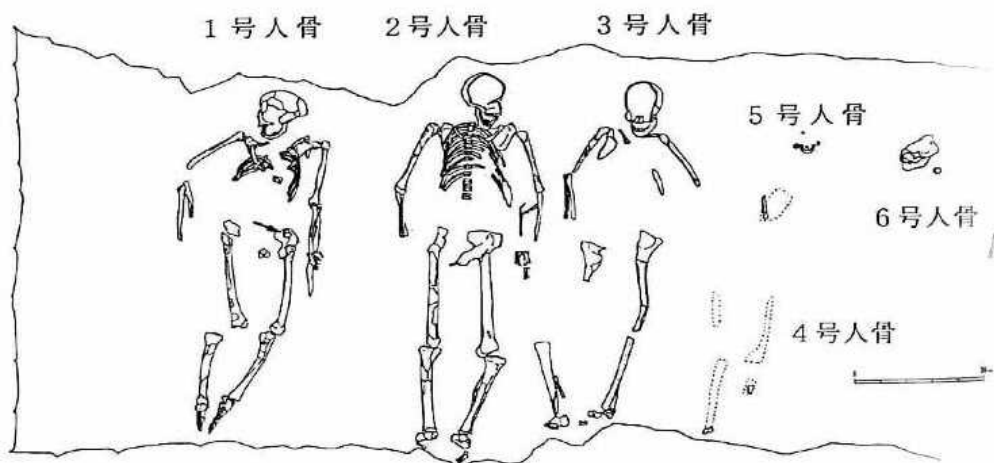
창원문화재연구소는 1994년 함안도항리 5호분과 8호분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⁸⁾. 8호분 유구는 분구 정상에서 3.8m 아래에 길이 11m, 폭 1.85m, 깊이 1.9m의 수혈식 석곽묘이다. 석벽은 개석의 함몰과 함께 붕괴되어 본래의 상태를 어는 정도 없고 있지만 석실내부의 유물은 대개 매장시의 본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인골이 검출된 곳은 석실의 남쪽에 위치한다. 유존하는 인골은 두개골이 서쪽에 위치하여 병렬하는 상태로 매장되어 있다. 잔존하는 인골은 출토상태에서 확인되는 바로는 6개체이다. 먼저 석실의 중앙 가까이에 두개골의 일부만이 확인되는 2개체와 있으며 이들 두개골 편에 근접해서 상지골과 하지골의 흔적만이 확인되는 1개체가 유존하고 있다. 사지골만의 인골과 두개골만의 인골을 별개체로 판단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점도 있으나 다른 인골들이 거의 원위치를 유지하고 있고 사지골만의 인골에서도 고관절은 원

6) 동아대학교박물관, 2005, 『固城松鶴洞古墳群 제1호 발굴조사보고서』고적조사보고서 제 37책,

7) 앞의 주27)의 360-361쪽

8)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4, 『咸安道項里古墳群V』학술조사보고서 26집,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이 사지골과 두개골은 오히려 별개체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머지 3개체는 앞서의 3개체에 비해서 잔존상태가 양호하여 매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다. 여기서 3호 인골은 약간 우측와의 신전장이다. 사지골은 일부만이 유존하지만 우측 상지골의 주관절과 좌측 하지골의 슬관절이 원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서 매장시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좌측 상완골이 약간 외부로 틀어진 상태이지만 인접하는 4호 인골과 겹쳐졌을 가능성이 있다. 2호 인골은 약간 우측와의 신전장이다. 사지골은 부위동정이 가능하다. 우측 견갑절, 좌우 주관절, 좌측 고관절, 좌우 슬관절, 족관절은 매장시의 본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우측 전완골은 몸쪽으로 틀어진 상태이며 구간골은 흔적만이 확인된다. 1호 인골은 2호·3호 인골보다 약간 떨어져서 남측 단벽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 두개골은 우측와의 상태이지만 몸은 신전장을 하고 있다. 이 인골도 좌우 견관절, 좌우 주관절, 좌측 고관절, 좌측 슬관절, 족관절은 매장시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측 주관절은 내측으로 굽어져 있고 좌측 전완골은 몸쪽으로 틀어져 있다. 특히 좌측 손가락은 펴져 있는 상태여서 가까이에 있는 철도자를 쥐고 있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또 좌우 늑골의 상하가 겹쳐진 상태로 출토되어 있어서 매장시에 상반신을 하반신 보다 높게 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우측 슬관절은 좌측 슬관절과는 대조적으로 대퇴골과 경골이 떨어져 있어서 본래의 위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매장시에 우측 무릎을 세웠던 것이 부식과정에서 전락하여 흩어졌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측 슬개골이 슬관절 본래 위치가 아닌, 좌측 관골의 장골 위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에서 이 인골은 연골조직이 부식한 뒤 인위적인 행위에 의해 우측 슬개골이 좌측 관골 위에



〈도면1〉 함안도항리 8호분 인골출토상태(「→」는 右膝蓋骨) (김재현, 2002에서)

옮겨지면서 원 위치였던 슬관절도 2차적으로 움직여졌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 8호분에서 확인되는 특징 중에 1호 인골의 우측 슬개골이 좌측 관골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에서 연골조직이 거의 부식한 단계의 인골에 대해 어떠한 목적을 가진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을 시사한다.

4. 창녕 송현동고분군

국립 창원문화재연구소는 2004년 4월부터 창녕 송현동 고분군의 6·7호분을 발굴조사 하였다⁹⁾. 이 중 7호분의 석실 내부에서 목관 및 유물과 함께 인골이 검출되었다¹⁰⁾. 인골은 목관 내부가 아닌 석실 바닥에서 대부분이 확인되는데 주로 유물이 위치하는 북쪽 단벽과 목관 서쪽에서 검출되었다. 인골은 석실의 주체부인 목관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인골이 확인되는 곳은 7호분의 북쪽 단벽을 중심으로 목관 외부의 서쪽에서 확인됨으로 주피장자의 인골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인골은 모두 교란된 상태여서 매장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인골은 1개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인골이 교란된 것은 拾骨의 결과는 아니며 어떠한 다른 요인에 의해 교란되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두개골이 동쪽 장벽에서 2개체 검출됨으로 인골은 2개체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인골의 위치를 중심으로 구분한다면 동쪽 장벽에 위치하는 2개체의 두개골 중, 북쪽 단벽에 가까운 두개골을 1호 인골로 하고 목관 가까이의 두개골을 2호 인골로 한다. 또한 두개골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목관의 서쪽에서 검출된 치아들을 3호 인골로 하였다. 송현동고분군 7호분에서 검출된 인골은 중앙의 목관이 아닌 북쪽 단벽 가까이를 중심한 곳에서 출토된 것으로 개체 수는 3개체임이 확인된다. 인골은 모두 매장시의 위치를 유지하지 않으며 교란된 상태를 보인다. 그러나 대체로 개체식별은 가능한 편이어서 북쪽 단벽 가까이에 1개체(1호 인골)는 숙년전반(40대)의 남성으로 추정신장은 164.4cm이다. 다음 인골(2호 인골)은 성년후반(30대)의 남성으로 신장은 160.4cm로 추정된다. 또한 목관 서쪽에서 확인된 치아를 중심한 인골(3호 인골)은 성년(20대 후반)의 여성으로 추정신장은 154.0cm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골의 검출상태와 개체식별 과정에서 추정되는 매장형태는 1호 인골은 두개골을 남향으로 하고 사지를 북쪽으로 둔 매장상태로 추정되며 2호 인골은 두개골을 동쪽으로 하고 3호 인골은 두개골을 서쪽으로 하여 서로 대치되게 매장하여 1호 인골과는 T자상을 이루는 매장형태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9)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6, 『창녕 송현동고분군 6·7호분 발굴조사 개보』 학술조사보고 제33집.

10) 김재현, 2006, 『창녕 송현동고분군 7호분 출토 인골에 대한 분석』 『창녕 송현동고분군 6·7호분 발굴조사 개보』, 98-101쪽.

5. 김해 유하리고분

동의대학교 박물관에서는 금관가야의 2대왕인 거등왕(居登王:199~259)의 능이라고 전해져 오던 김해 유하리고분을 발굴하였다¹¹⁾.

여기서 9개체의 인골이 검출되어 분석을 하였다¹²⁾. 결과 성인 여성 5개체와 어린이 인골 4개체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무덤은 7세기의 황혈식석실묘로써 계속적으로 추가장이 가능한 무덤이었고 인골의 출토상태에서도 시간차를 알 수 있는 것들이었다. 결국 이 무덤은 居登王이 출현하는 시기와는 훨씬 동떨어진 시기의 것이었고 출토된 인골도 모두 여성이거나 어린이여서, 居登王으로 비정할 수 있는 남성인골은 전혀 출토되지 않았다. 그러므로〈傳 居登王陵〉이라는 것이 전혀 근거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무덤의 인골들이 시기차 내지는 세대차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과 그 출토인골의 구성으로 볼 때 반드시 남성이 죽어야 묘를 축조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즉 만약 부계계승권이 확립되어진 사회였다면 첫 피장자가 남성이거나 적어도 남성의 배경을 등에 업은 여성이 먼저 죽어서 묻혔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서는 남성이 매장되어야 할 것인데 이 무덤에서는 남성인골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여성도 사회적으로 무덤의 축조계기가 되는 인물일 수 있는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Ⅲ. 가야인과 왜인

일본은 명치시대를 지나면서 일본인의 기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관심 속에 완성된 것이 이른바 인종교체설과 일본인설이다. 즉 지금의 일본인은 죠평시대 사람이 아니라 야요이시대 이후 대륙에서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인종교체설과 현재의 일본인은 일본 자국내에서 형성되었다는 일본인설이다. 이것은 이후 야요이시대 이후 계속되는 대륙종족의 도래를 인정하는 혼혈설과 일본인은 죠평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전적으로는 연속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변형설로 자리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혼혈설과 변형설은 다시 도래설과 이행설의 형태로 바뀌게 된다. 여기서 도래설은 金關丈夫에 의해 주장된 것으로 죠평인과 구분되는 야요이인의 두개계측치 특징이 같은 九州 남부에

11) 임효택·곽동철, 1996, 「金海柳下里 傳王陵」 『東義史學』 9·10합집, 東義大學校史學會, 1-44쪽.

12) 김재현·田中良之, 1996, 「金海柳下里 傳王陵 出土人骨」 『東義史學』 9·10합집, 東義大學校史學會, 45-70쪽.

서는 나타나지 않고 九州 북부와 機內地方에만 나타나는 점과 그것이 후속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도래인의 출발지를 신장의 크기로 보아 한반도 남부로 추정할 설이다. 즉 도래가 조몽시대 만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北部九州·山口 지방에서는 도이가하마(土井ヶ浜)의 야요이인과 같은 형질을 나타내지만, 南九州로는 도래인이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몽인이 특징이 계승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에 비해 機內地方에서는 고분시대 이후로도 도래가 지속된다고 추정하였다. 한편 이행설은 鈴木尙에 의해 주장되던 것으로, 신체변화는 생활문화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인 만큼 야요이인은 도래가 아니라 쌀의 보급(도작농경의 시작)에 의한 식생활 개선이 얼굴을 비롯한 제반 체질의 변화를 낳은 것이라 보았다. 그러나 이 상반된 두 주장은 鈴木가 金關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일단락된다.

이후 도래설은 일본에 정착화 되면서 또 다른 세부적 분리를 가져오게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田中良之의 논문¹³⁾ 정리되어 있으므로 생략한다. 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도래인의 출발지와 그 수에 관한 것이다. 먼저 도래인의 출발지를 한반도로 보는 견해와 북방아시아로 보는 견해가 그것이다. 이 출발지의 문제는 고고학의 성과에서 야요이시대의 문화형성에 한반도의 문화가 상당 관련됨이 증명되어 왔다. 그러한 고고학 성과들에 힘입어 도래인의 출발지를 한반도로 보는 견해가 힘을 얻어왔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비록 주변의 정황이 모두 그 가능성을 시사하고는 있지만 그 직접적인 증거의 한국인의 형질에 대한 시대적·지역적 분석이 없는 지금의 형편에서는 도래인의 출발지를 한반도로 보는 견해에 박차를 가하던가, 또는 야요이시대 문화에 한반도인의 기여하였음을 힘있게 주장하는 데는 다소 소원함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도래인 수도 소수이나 대량이나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도래인 집단이 야요이시대 하나의 독립된 단위로써 야요이사회 형성에 영향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에 재래민에 포함되어 점점 융해되어 갔는지에 대한 대담도 한국에서의 고인골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현재로서는 비교·검토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이 일본인의 원류를 찾는 데 있어서, 비교적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중국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한국인에 대한 형질인류학적 성과를 축적시켜 우리 스스로가 일본의 고대 문화형성에 정신적·물질적 영향 뿐 아니라 형질적 영향도 얼마나 미쳤던가를 증명해 내어야 할 것이다.

13) 田中良之, (김재현역), 1992, 「이른바 도래설의 재검토」 『考古歷史學志』 8, 587-611쪽.

단위: cm (김재현작성)

시대	남 성		여 성	
신석기	연대도	1		
		7		
	평균		167.0 161.0 164.0	
삼한	조도		164.8	
				신창동 저습지 156.7
	늪도평균(부산대)		161.3	늪도평균(부산대) 147.3
				늪도 98-4 144.8 (동아대) 98-6 143.8
가야				대성동 A 152.6 B 148.7 C 147.7 평균 149.7
	예안리 평균		164.7	예안리 평균 150.8
백제	복암리3호	6-1	166.3	복암리3호 17-1 150.6
		17-2	160.3	
	평균		163.3	
	원주 법천리		160.3	
신라	조영1A		160.9	
	임당 A-II-2-1		162.3	임당 D-II-132 151.4
	임당 G-22		171.4	임당평균(嶺文研) 158.9
	성산고분	서1곽	167.8	성산고분 서2곽 154.5 서3곽 152.4 평균 153.5
				김해 유하리 1 152.4 2 151.0 3 152.8 평균 152.1
	한국 현대인(1934)		161.2	한국 현대인(1934) 147.5
	한국(1967)		170.1	한국(1967) 156.2
	土井ヶ浜(야요이)		162.8	土井ヶ浜(야요이) 150.3
	북부구주	조몽	159.2	북부구주 조몽 150.5
		야요이	162.6	야요이 151.3
	山口	고분	162.8	山口 고분 150.2

Tab.1 고대인의 추정신장(Pearson식)

제10기

가야학아카데미

발행처 : 국립김해박물관

경남 김해시 가야의길 190(621-030)

TEL : (055) 320-6800

FAX : (055) 325-9334

<http://gimhae.museum.go.kr>

발행일 : 2013년 4월

인쇄처 : 김해시민신문(Tel.055-313-2074)



국립김해박물관
GIMHAE NATIONAL MUSEUM



국립김해박물관
GIMHAE NATIONAL MUSEUM